(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719 - 720 1982년1월12일(화), 13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12, Wednesday, 13 January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헌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헌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AN 18 1982

살인적강추위 엄습

폭설·강풍으로 하이웨이두절

공항수은주 신기록, 영화 26도

시속 50km의 강풍과 영하 26도의 강추위는 온타리오 남부 전역과 미국의 북부지방을 뒤덮어, 온타리오주내 수십군데 하이웨이를 두절시켰고, 시내 곳곳에서 수도관을 꽁꽁 얼게했다. 측후소는 이번 추위가 3~4일 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주말 9일밤 토론토공항의 수은계는 영하 26.1도를 기록, 지금까지 최하였던 1945년의 기록보다 6도이상 낮았다. 여기저기 교통이 두절되고 수백대의 자동차들이 길가에 버려졌으며, 수천명의 스키여행객들의 발길도 묶였다.

온타리오 경찰은 하이웨이 401 선상의 런던, 키치너 중간이 폭설로 두절됐고, 구엘프 북쪽 Hwy 6를 차단시켰다고 밝혔다. 하이웨이 곳곳의 사고지점까지 접근하기도 어려웠다고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컬링우드와 스테이너에 이르는 길들도 중단되어 불루마운틴지역과 스테이너 지역의 각 교회는 여행자 등 폭풍설 피난민들로 가득 찼다.

인구 8만의 수세마리 는 교통두절로 외부지역으로부터 고립됐다. 교통부와 온타리오 경찰은 수세마리 외곽의 하이웨이들을 모두 차단시켰고, 에어캐나다등 모든 비행기의 항로를 취소시켰다. 이 지역의 기온은 영하 37도까지 기록, 한때 하이드로가 차단되는소동도 빚었다.

한편 미국 중서부지방에서는 20세기들어 최고추위 강풍온도 영하 80도 로 모든 전력이 중단되고, 적어도 11명의 동사자가 났다. 시카고는 미국측후소가 생긴 이래 최초로 영하 32도까지 내려갔다.

적어도 5만 이상의 시카고주민들이 동력중단으로 추위에 웅크렸다.

온타리오지역에서는 10일현재 큰 사고는 없었으나 캐나다철도회사(CN)의 한 철도원은 20분간 열차뒤에 매달려 가는 동안 동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되는 사건도 있었다.

몬트리얼·토론토간의 VIA철도승무원인 존·태스커씨는 10일저녁 기차가오사와에 섰을 때 열차 뒷부분을 점검하는 동안 객차문이 꼭 닫혀 화차뒷칸 사다리에 의지한채 승무원이 비상스톱할 때까지 20분동안이나 매달려 있어야 했다.

스카보로 제너럴 병원에 입원중인 태스커씨는 손과 얼굴에 동상을 입었으나중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추운 날씨에 차의 배터리가 죽는 것을 막는 방법은 배터리 보온기를 달거나 배터리를 떼어 밤새 집에 갖다 놓는 법. 차고가 없는 경우라도 되도록 차를 바람이 덜 부는 곳에두는 것등이라고 온타리오·모터·리그의 팻·커란씨가 말했다.

추운 날씨에는 집에서지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 나가야할 경우 내의나 팬티호스를 꼭 입고 되도록 얇은 스웨터나 셔츠를 여러벌 껴입도록 한다.

수도 파이프가 어는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하실의수도꼭지를 조금씩 열어놓아물이 늘 흐르도록 해놓는것이 좋지만 파이프가 어는 것을 방지할 묘책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말이다.

◇주말인 10일 4살난 미건과 3살난 션을 맹추위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엄마들은 담요로 둘러쌌다. 던다스·웨스트의 중국상가에서.

중고교생에 성교육

교복자유화따라, 83년실시

(서울11일=연합)수도서울 교육위원회는 중고교학생들의 성(性)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날로 증가하는 미성년 성범죄 방지를 위해 중고교 성교육교재초안을 작성키로 결의했다. 이같은 결의는 최근 정부의 중고교생들에 대한 머리와 제복자유화로 학생들의 이성접촉기회가 많아질 것을 고려 취해진 조처라고 교육위관리가 밝혔다.

이관리의 말에따르면 유능한 선생들과 상담자들로 구성된 연구반이 금년내에 교재를 작성, 83년부터 전국각 중고교생들에 특별활동시간을 이용 성교육을실시할 예정이다.

미시사가 새시청 84년 건축

미시사가시는 84년에 새시청을 짓기위한 대지를지난년말 5백10만달러에 사들였다.

새시청은 스퀘어·원서쪽과 번햄토르프로드(Square One×Burnhamthorpe Rd)의 10에이커크기 땅이며, 총 공사비는 4천만달러 로 추산된다.

해이즐·맥콜리은 미시사가시장은 현재의 시청건물이 비가올때마다 물이새고 난방, 냉방시설이 고장났으며, 공간이 좁아 일부 부서는 다른건물에 세들어야했기때문에 새서청건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토빅콕 발전낙관 불황불구 건설업등

경제불황에도 불구, 새해에 메트로·토론토는 계속발전, 확장해 나갈 것이며 특히 이토비콕지역은 공장및 사무실이 점점 늘어가, 다른 메트로지역보다 발전이 클 것이라고 데니스·플린 이토비콕시장이 말했다.

노스·욕의 멜·레스트맨 시장과 함께 메트로의 최장수 시장으로 꼽히는 데니스·플린은 특히 이자율이 계속 떨어질 경우 건설업계를 비롯 각 기업전망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크레딧카드 이자율인상

금리 하락추세 불구

은행 이자율은 떨어져도 크레딧카드의 이자율은 오히려 오르고있다.

지난8월 중앙은행금리가 21.07%를 기록하자 대부분의 크레딧 회사들이 이에 맞춰 이자율을 올렸으나 금리가 7일현재 14.74%까지 떨어졌어도 크레딧카드 이자율은 떨어지지 않았다.

심슨, 헌슨스베이는 28.8%로 이자율을 오히려 인상했다.

차젝스·비자나 매스터카드등을 취급하는 주요 은행들은 현재 이자율을 21%로 적용하고 있으나 오는 3월부터는 24%로 인상할 예정이고 몬트리얼은행은 매스터카드의 이자율을 3월부터 24.6%로 올릴예정이다.

캐나다소비자협회 앤더슨여사는"은행이자율이 떨어졌는데 크레딧카드 이자율이 오히려 오르는것은소비자 기 만이다"고 크레딧회사들을 비난했다.

크레딧회사들은 은행금리가 안정됐다고는 볼수없고 또 우편료 인건비등이 올라이자율을 쉽게 떨어트릴 수가 없다고 변명했다.

한편 지난20주간 계속떨어져 지난주 14.66%까지 내려갔던 중앙은행 금리는 이번주 14.74%로 약간인상됐다. 최고로 신용도가 높은 업체에게주는우대금리는 16.5%에서고정, 이번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의 소폭인상이 지난3주간 계속됐던 미국금융시장의 단기금리인상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이수신전무는 8일"이번의 금리인상의 큰 요인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자율 하강이잠시중단된 것이다. 미국및캐나다경제의 위축추세로보아 장기적으로는 계속 떨어질 요인이 더욱 많다"고 말했다.

교포 채용 희망

캐나다 원자력공사

서울에 특별 사무실을두고있는 캐나다원자력공사(AECL)는 서울서 일할캐나다교포 1~2명을 찾고있다.

서울주재 한스·루티(Hans·Luthi)부사장에 의하면 피고용인은 앤지니어링 또는 공학, 경영학을 전공하고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이있거나 캐나다와 관계를 가진자이다.

캐나다원자력공사는 캐나다제 캔두원자로 1기를 한국에 판매, 캐나다 기술자들이 경북 월성군에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중이다.

원자력공사는 캔두 원자로를 한국에 더 팔려고 노력하고있다.

취직 희망자의 연락처는 A.E.C.L.of Korea 캔두 다원자력위원회(성공회빌딩) 서울시 중구 정동 3-7 전화 : 722-0952, 3784.

원화 여행자수표 한국은행서 발행

(서울 9일=연합)한국은행은 외국인여행자들이 일일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불편을 덜기 위해 원화로 표기된 여행자수표를금년내 발행할 계획이다.

여행자수표는 금액이 표기 안된 수표, 5만원짜리, 만원짜리, 3만원짜리 수표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말했다.

한국은행은 체크 발행때마다 소정의 코미션을 받는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통용된 여행자수표는 달러, 마르크, 엔표기 뿐이었다.

눈과 강풍, 맹추위때문에 차를 두고 가야했던 사고는 온타리오주 곳곳에서 빈번했다. 온타리오주 경찰은 다행히 심한 사고나 부상은 없었으나 북부의 주요 하이웨이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리북쪽 하이웨이 400에서 눈언덕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해 버려진 차이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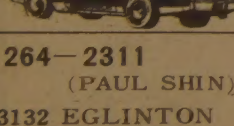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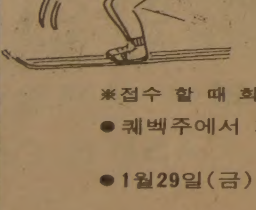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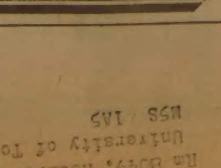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264-2311
(PAUL SHIN)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신 성 우

스키강습
접수마감 박두

선 착 순
(35명중 27명접수필)
※접수 할 때 회비를 함께 보내주십시요
● 퀘벡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명산 "MT. 세넹"으로
● 1월29일(금) 오후6시30분출발(브랜돈 스포츠사) →31(일)귀환
● 그레이·하운드 버스여행
● 회비 : 개인당 $180
※자세한 문의는 : 598-3732(이건영), 533-2361(송광호)
주최 : 브랜돈스포츠사
한국일보 사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쌀 폭리판매 조사하라"

미의회、법무·농무성에 요구

상항 미 회사서 33%비싸게 한국에 팔아

【워싱턴】 미국 의회 의원들은 미국의 쌀 생산자들이 한국에 쌀을 수출하면서 지나친 폭리를 취한 사실을 포착,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관계부처에 사건조사를 요청했다고 「하워드 스크립스 뉴스」서비스가 30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하원의 폴 핀들리(공화,일리노이주) 의원은 샌프런시스코의 「퍼시픽 인터내셔널 라이스 밀스」회사가 한국에 쌀을 판매할때 일반 싯가보다 무려 33% 이상이나 비싸게 팔아 도합 1천2백만달러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 법무성과 농무성게 이 사건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113명의 하원의원들이 연서로 전두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쌀 수출과 관련 불법행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쌀 생산회사 「퍼시픽 인터내셔널 라이스 밀스」회사는 지난 1월23일 한국측과 계약을 체결, 20만톤의 남부산 현미(미디엄그레인) 20만톤을 수출키로 되어 있었는데 이중 10만톤은 톤당 449달러90센트에 이미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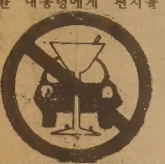
그후 계획이 변경되어 남부산 현미 4만톤은 지난 10월에 수출하고 7만톤의 캘리포니아산 현미는 내년에 수출키로 되어 있다고 하워드 스크립스가 보도했다.

그런데 남부산 현미 4만톤은 싯가보다 4백만달러, 캘리포니아산 현미 7만톤은 싯가보다 8백만달러,도합 1천2백만달러가 비싸게 수출됐다고 하워드 스크립스 뉴스가 보도했다.

전혀근거없는 보도 한국정부서 부인

【서울 31일 UPI】 한국정부는 31일 한국이 미국에서 쌀을 싯가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는 보도를 근거없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주호 구매청장은 31일 하워드 스크립스 뉴스의 보도에 대해 "이러한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것"이라며 싯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쌀을 구입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샌프란시스코, 신시내티 수퍼보울 진출

카우보이, 샌디애고 각각물리쳐

24일 디트로이트에서

SUPER BOWL XVI

"종료 2분30초전 공격챈스가 와 90야드를 전진해야 됐을때 완전히 자신을 느꼈다"는 쿼터백 죠·몬타나의 말대로 51초를 남긴 순간 극적 터치다운을 성공시킨 샌프란시스코의49er's는 달라스·카우보이를 28:27로 격파, 오는 24일의 티토로이트형 티켓을따냈다.

경기시작전 라스베가스 도박사들이 승부률을 50:50으로 내다본 것처럼 샌프란시스코와 달라스의 내셔널 컨퍼런스 챔피온쉽은 역전·재역전의 흥분의 도가니였다.

게임종료 2분전 샌프란시스코는 27:21로 리드당한채 미들필드까지 전진했다. 쿼터백 몬타나가 공격 오픈 전진패스를 시작했다. 첫번째 터치다운을 성공시킨 프레디는 몬타나의 패스를 잡아 14야드 를 전진, 달라스지역 35야드선까지 이끌었다.35야드선에서 이날의 히어로 클 락과 솔로몬은 각각 10,12야드 전진을 감행, 샌프란시스코는 13야드 전방에서다시 한번 훠스트·다운을 시작했다.

러닝백 엘리옷트가 7야드를 더 전진한 후 6야드전방에 섰을때는 게임 종료 58초전.

쿼터백 몬타나는 볼을다시 잡아 오른쪽으로 튼 후 엔드·존 근처로 높은 볼을 던졌다. 이때 왼쪽으로 움직이던 클락은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며 3피트 공중으로 날아 볼을 캐치, 터치다운을 성공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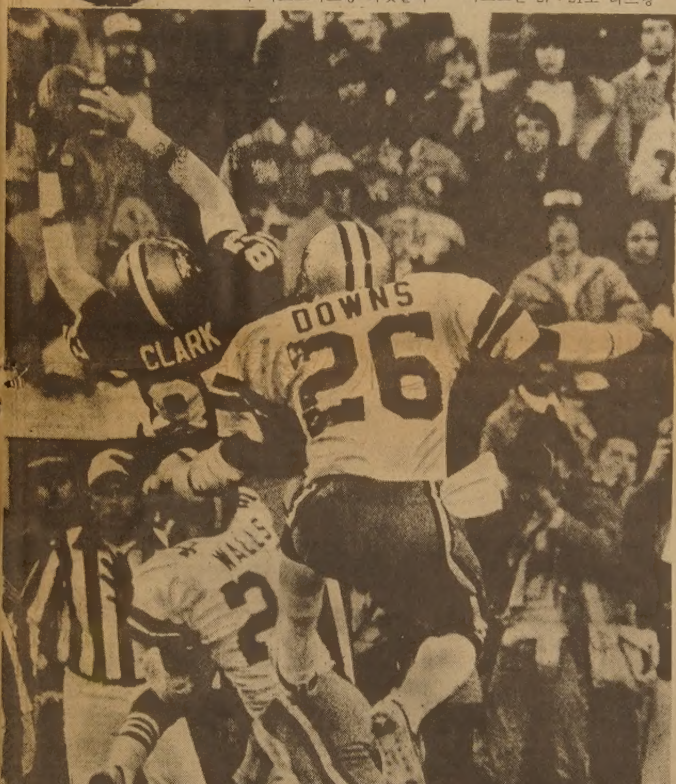
달라스가 5초를 남기고 시도한 마지막 공격은 쿼터백 대니·화이트가 볼을 놓치는 바람에 슈퍼·보울에의 꿈은 무산됐다.

한편 영하 22도의 차거운 날씨에 벌어진 신시내티와 샌디아고의 아메리칸 컨퍼런스결승전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안은 신시내티가 27대7로 승리,팀역사상 처음으로 슈퍼보울에 진출했다.

지난 9월 NFL이 시작됐을때 그 누구도 샌프란시스코나 신시내티가 결승에 오르리라고는 생각지못했다.

어쨌든 작년도 우승팀인 오클랜드는 예선에서 탈락했고 준우승팀 필라델피아도 간신히 와일드카드로플레이·오프에 진출한후 1회전에서 뉴욕·자이안트에 밀려 나갔다.

금년으로 제16회가 되는 수퍼보울은 오는 24일 디트로이트 근교 폰티악의 실버돔에서 열린다. 실버돔은 하기팀 디트로이트·레드윙, 야구팀, 하기거스, 풋볼팀의 주경기장으로 쓰이는 대형 실내경기장이다. 수용능력은 경기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8만명까지 동원될 수 있다. 폰티악은 글자 그대로 GM 폰티악디비전의 근거지이다. 이번 16회 슈퍼보울은 샌프란시스코에 약간 유리하다고 도박사들은 내다봤다.



◇공중으로 3피트나 날아 볼을 잡아 터치다운을 성공, 샌프란시스코의 극적인 승리를 가져오게한 87번 드윗·클락의 멋진 폼.

메트로 범죄 감소 살인만 늘어 57건

81년 한해동안 메트로의 전체 범죄건수는 15년이래 처음 감소됐으나 살인건수만은 기록을세워 57건을기록했다.

메트로 토론토 경찰국장에 의하면 범죄건수는 최고였던 1960년대 중반보다 0.5%, 천여건이 줄은반면 살인은 기록상 최고였던1977년의 55건보다 2건이 많았다.

1980년도의 통계는 총범죄건수가 228,450으로 이중 4만건이 교통위반 이었다.

81년들어 감소한것은 은행강도등의 절도,상해, 강간,주택및 아파트침입 절도였고,증가한것은 상점절도 11%,지갑소매치기 3%였다.

파바로티 독창2회 매씨홀, 캐슬호텔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파바로티의 독창회가 오는17일(일)오후3시 매씨·홀에서, 오후6시30분 토론토 힐튼 하버·캐슬 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11월중 이미 매진된 것으로 알려진 매씨홀 연주회의 티켓은 $50.$30.$10씩이었고, 하버·캐슬 컨벤션·센터의 티켓은 호화디너,댄싱,도어·프라이즈,음료포함 $250씩.(문의전화(416)789—7011)이다.

◇테너 루치아노·파바로티

가정의 벗 한국일보

◇토론토·메이플립은 시틀러등 주전선수가 빠진 채 벌어진 캘거리 플레임과의 게임에서 4대4로 비겼다. 사진은 토론토의 센터 돈·루스가 캘거리의 케빈·라발리의 방위를 뚫고 나가는 모습.

시틀러 신병이유 출전거부

메이플립스 주장 이적문제 불만

대릴·시틀러의 이적문제는 본인이 신병을 이유로 게임을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토론토·메이플립스의 주장이며 센타인 대릴·시틀러는 이적문제로 인한 정신적불안을 이유로 지난 6일밤 미네소타와의 경기부터 불참했다.

시틀러는 이미 12월초 메이플립스 구단주 해롤드와 합의, 미네소타나 필라델피아로 이적되면 계약서에서 No-Trade(이적불가)조항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이플립스는 미네소타및 필리와의 협상에 성공치 못했다.

시틀러의 변호사 알란·이글톤은 토론토가 시틀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시틀러의 이적희망팀들 에게 지나친 요구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이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시틀러는적어도 10일이상 쉬어야 한다는 주치의 진단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메이플립스의 맥나마라 감독은 시틀러의 병이 무엇인지 잘모르겠다면서 메이플립스 전용의사에게서 이와같은 진단결과가 나온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시틀러, 앤더슨, 마틴, 딜라고등 주공격수들이 빠진채 강팀 미네소타,캘가리와의 원정 게임에서 메이플립스는 3:3,4:4로 각각 비겼다.

이로써 토론토는 NHL 노리스디비존에서 11승 11무18패로 5위를 기록,위니펙을 바짝 뒤쫓고 있다.

고객유치는 이렇게

불경기를 이겨내는 비결

손님은 왕이다…철저히 실행

업소경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객유치가 활발히 일어 나야 한다.

「에스키모인에게 냉장고를 팔 수 있다.」는 정도의 상술이 있어야 요즈음같은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본다.

고객유치의 대원칙은「고객은 왕이다」라는 관념을 모든 업소가 지켜야 한다.

상점에 들어온 손님의 질문에 통명스럽게 대답한다든가, 무표정한 대꾸등은 바로 손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아도 좋다.

자기집에 온 고객을 제대로 서비스하지못했다면 오히려 소문이 꼬리를 달고 이사람 저사람에게 옮아간다는 사실을명심할 필요가 있다.

상점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저 사람한테 물품을 팔면 20달러가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보다「저 손님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팔겠다」는 태도가 자연히 이익을 가져온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세일즈하는데에는 무엇보다도「정직」해야 하며, 손님에게 상품의 장, 단점을 모두 설명할 수있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비싼 것만 팔려고 애쓰기보다 상대방에게 적당한 상품을 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이 운동구점에서 축구화를 사려고 했을때, 프로선수가 사용하는 비싼 것 대신에 초보자가 부담없이 사용하는 축구화를 권유하는 마음자세가 바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상점이 된다.

주간女性

교포학생 $13만 밀반출

김포세관, X레이 투시로 발견

(서울본사전화)서울에서 유학중인 재미교포청년 이 방학을 맞아 6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짐속에 미화 13만3천8백달러를 숨겨 나오다 김포세관에 적발, 구속됐다.

김포세관은 현금 13만 3천8백달러와 수표 1천8백달러를 사전등에 숨겨 출국하려던 오형석군(25세 Y의대 3년)을 출국직전에검거, 외화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오군은 지난 80년1월 미국(워싱턴D.C.)으로 이민,미국영주권을 얻은 후 다시 일시 귀국해 Y의대에서 학업을 계속해 오던 중이었다.

세관에 의하면 오군은지난해 가을 서울 강동구에 있는 땅을 처분한 돈으로 남대문시장 암달러 상에서 달러로 바꾸어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오군은 1백달러짜리 지폐 1백장씩 다발로 묶어 4만달러는 두께 10센치정도의 영문의학사전책장을 칼로 도려낸 후 그 속에 숨겼고,나머지 돈은 달력,구두창,옷속에 숨겨 이를 다시 대형가방에 담았는데 출국수속을 받던중 X-RAY 투시과정에서 돈의 형태가 드러나 발각된 것이다.

초 대 장

본회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모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63회 전국동계체전에 참전하는 아이스하키 중등부 선수와 임원의 결단식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선수단의 장도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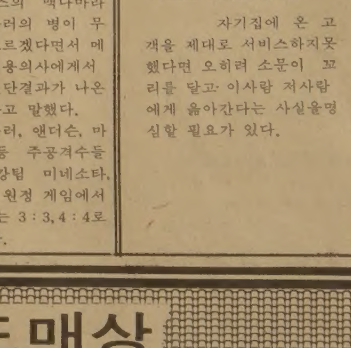
— 아 래 —

일시 : 1982년1월16일(토) 오후5시정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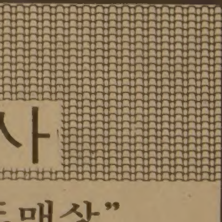
장소 : 한인회관

주최 : 재캐나다 체육회
아이스하키 협회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 CASH & CARRY 에 한함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CASH & CARRY
27 RANGEMORE DR.TOR.



탁명환교수 강연성황

통일교등 사이비 종교 비판

◇탁명환 교수

지난 1일~4일간 성도교회(목사 : 김용진)는 창립 5주년 기념행사로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이며 사이비종교계 연구의 권위자인 탁명환 교수를 초청, 신앙강좌를 가졌다.

탁씨는 이들 사이비기독교단체들은 성서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 자기들의 목적에 유리하게 뜯어맞추기 때문에 성서의 지식이 부족하고,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기성기독교인들이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며 기성기독교계는 이런 때일수록 비판에 앞서 사이비기독교단체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기성기독교계의 부조리한 요소를 없애는데 전력을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씨는 기성기독교계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못할 때 이단에 빠지기 쉽다고 전제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으로는 사랑, 용서를 쉽게 말하나 몸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선적 형식적 신앙이 몸에 젖어 이웃에 무관심 하고, 같은 교인끼리 미움의 장벽을 높이 쌓아 분열과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이단이 침투해 들어 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랑이 없는 곳은 아무리 교회라 하더라도 지옥이라며 탁씨는 희생과 용서를 수반하는 참사랑을실천하며 쉬지 않고 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했다.

탁씨는 참사랑의 극치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세상에 오셔서 인간을구원하신 구속사업에서 나타나며, 인간은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자신의 무력함과 죄인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고독의 심연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에서는 하나님을 중성적(中性的) 존재로 보고 피조세계의 존재양상이 상대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그 피조세계의 제일원인이 되는 하나님이 양성과 음성의 조화일체의 모습으로 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남성, 여성의 구별을 초월하여 계신다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앙에선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 주장이다.

통일교에서는 또 타락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창조목적을 완성한 인간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 뿐아니라 예수의 구속사업은 영적인 면에서만 완성되었고 육적인 면에서는 완성치 못했으므로 예수는 육적인 속죄사업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육적으로 재림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적구원에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적인 구원을 완성키 위해 재림하는 예수는 반드시 여인의 몸에서, 동방인 한국에서 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문선명」교주를 재림예수라고 통일교에서 믿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통일교는 또 불교의 윤회설과 비슷한 재림부활과 관련된 윤회설을 주장하고 있다.

구원파인 평신도 복음선교회는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 구원은 영이 얻었기 때문에 육으로 하는 일은 어떠한 것이라도 관계치않는다고 주장, 윤리 도덕페기주의 경향을 띠고 죽은 자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구원파에서 말하는 인간관은 고대 그리이스철학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원론적 비 성서적 인간관이다.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구원 확신의 증거로 이들은 구원받은 년, 월, 일, 시, 장소를 자각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구원파는 또 보이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예배의 형식을 인정치 않으며 기도생활, 헌금, 주일성수, 전도에도 미온적이고 소홀하다. 내용은 강조하고 형식을 배격하나, 그들도 모임을 갖고 활동을 위해서 성금을 걷음으로 자기모순에 빠진 감이 없지 않다.

신앙강좌 2째날 본보기자와 인터뷰를 가진 탁씨의 대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 언제부터 사이비 종교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나? 동기는?

답 : 17년전 절친한친구 하나가 박태선의 전도관에 유혹돼 폐가망신하고, 결국 자살을 하였다. 그때 나는 도대체 전도관이어떤 곳이길래 친구의 목숨까지도 빼앗았나 하는 의문과 의혹으로 전도관 및 여러 사이비종교의실태와 생리를 조사하기시작했다.

문 :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나?

답 : 수없이 위협과 회유를 당했다. 대표적인 예로, 동방교(공식명칭 대한개혁장로교, 교주 : 노광공)에서는 74년 나를 죽이는 댓가로 1500만원을주겠다는 청부살인 지령을 내렸다. 통일교는 나를 공산당으로 몰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등 [illegible] 했다. 그 결과 10.26사건 이전까지 나는 당국에 의해 출국정지 조처를 당했다.

문 : 사이비종교의 공통된 특성은?

답 :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1) 교주를 살아있는신으로 숭배한다.
2) 추종자들의 재산을여러 형태로 착취하며, 그 돈으로 기업을 경영한다.
3) 추종자들의 노력을착취한다.
4) 기성종교를 거부한다.
5) 여러가지 종교의 교리를 혼합한다.
6)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한다.
7) 시한부 심판설을 유포한다.
8) 지상천국의 현실화를 주장한다.
9) 정치권력과 야합하는 경향이 있다.

문 : 사이비 종교가 미치는 나쁜 영향이 무엇인가?

답 : 1) 건전한 종교의 공신력을 파괴한다.
2) 사회질서를 혼란시킨다.
3) 기존윤리 도덕을 파괴시킨다.
4) 불신풍조를 조장한다.
5) 가정을 파괴한다.
6) 국가 정치체제를 거부한다.
7) 기존 가치관을 파괴한다.

문 : 현재 통일교는 미국에서 탈세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캐나다에서도 "정치적 집단"으로판결돼 종교단체로서 누리던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등 서구 여러나라에서 배척을 받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답 :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는 미연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판결 확정이 되면미국내의 통일교재산은 모두 정부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며, 문선명은 투옥되거나 한국으로 추방당한다.

문선명은 이미 영국, 브라질, 일본등지에서도입국거부를 당하고 있다.

결국 「문」은 한국에 정착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 한국에 토지를 마구 사들이는 것으로 알고있다. 결과적으로 문선명은 「국제적 미아」의 신세가 될 것이다. 활동범위가 한국으로 좁혀진통일교는 가일층 한국기독교계 침투와 파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본다. 현재 통일교는 수많은 농촌 미자립 교회에 월10만원씩 보조하는등 마수를 뻗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음으로 양으로 통일교와 관련된기성교회 목사들의 수 가 1300명이나 된다. 비대해진 도시교회들은 교인수와 헌금 많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 늦기전에농촌 미자립교회를 적극보조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통일교의 앞날은 어둡다. 정치와 결탁의 명수인 통일교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때 상당수의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게 3억원씩 정치자금을 주어자체 세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 또 국제승공연합회를 조직하려 했으나 정부당국에 의해 무산됐다. 제5공화국과는 정치결탁에 실패했음이 확실하다. 통일교는 문선명이 죽은 후 재산및 권력다툼등으로 쇠퇴될 전망이 크다.

문 : 사이비종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기성 기독교계및 교인들이 할일은?

답 : 사이비종교가 성행하는데는 기성교회와 교인들의 책임이 크다. 교파분열, 교회분열, 교권싸움및 교회내의 배금주의 등은 사이비종교가 싹트는 온상의구실을한다. 교회가 서로 회생, 봉사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이단, 사이비종교는 발붙일 자리를 잃는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교민동정

◆임태호(Sure Kjller 사장)=오랫동안 바퀴벌레약 제조회사를 경영해 왔으나 요즈음 토론토의 376Queen St. East에 북미여행사(North American Travel Agency)를 신설, 개업했다. (전화 : 366-0960, 368-9018)

한인성당인 쎄인폴 교회앞에 자리잡은 북미여행사는 한 옆에 각종성화, 성상등 선물도 비치, 판매하여 신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115)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이곳 새로운 땅으로 쫓겨온 사람들은 매우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다.

백인들이 캐나다 북쪽의 초원지대와 수림지대에 군대를 이끌고 온 이후에 인디안들이 바렌으로 추격해 오는 것이 끊겼다.

1780년경 이덴 엘델리들은 전염병(주로 천연두)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죽어갔기 때문에 에스키모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리버오브맨또는 바렌의 남쪽끝의수림지대에 모여 살게 되었다. 에스키모들은 이누이트쿠의 전역에 걸쳐 정착했고 그 숫자가 점점 불어났다.

19세기초 에스키모가 번창했던 시기에 내륙평원에 얼마나 많은 수가 살고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적어도 1,000여명은 되었으며 1880년대에는 그 두배는 되었을것이지만 남쪽으로부터 전염병이 퍼져와서 몰살되고 말았다.

앙쿠니산밑에서 발견된 하얗게 햇볕에 바랜 석궁조각은 이제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었고 다만 또하나의 슬픈 유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당장 앞에 놓인 문제때문에 그런 옛일을 곰곰히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사슴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앙쿠니의 불모지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우리는 호숫가에 고기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잡히지 않았다. 이런 일은참으로 이상한 일일뿐만 아니라 조금은 두렵기도 했다. 왜냐하면 바렌의 다른 모든 호수는 화이트 휘쉬, 레이크 트라우트, 파이크 등으로 가득 차있었고, 오직 앙쿠니호수만은 고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새들은 드문 드문 보였지만 일주일에 뇌조 서너마리를 잡는데도 여간 힘들지 않았다. 정말로 앙쿠니 주위는 완전히 죽어 있는 땅이었다. 거기는 살아서 잡혀먹을만한것이 전혀 없었으며 다만 우리들과파리 모기떼와 같이 고기를 먹는 것만 남아있었다. 이미 8월로 접어들어서 더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슴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다.

산밑으로 회색과 초록색 이끼로 뒤덮힌 낭떨어지주위에 바람 한점 없는 이른 아침햇살을 받으며 우리는 툭투를 찾아 카누를 타고 떠나갈 준비를 했다.

앙쿠니의 분위기 때문에 앤디와 나는 점점 불안을 느꼈고, 오호토는 우리들보다 더 불길한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일행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된것을 매우 기뻐했다.

우리는 카내투아 베이에서 서쪽으로 배를 저어가다가 큰 협곡처럼 보이는 곳까지 와서 막혀버렸다. 협곡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찾다가 그 너머에 있는 호수로 이어지는 아주 얕은 물목을 발견해서 카누를 끌다시피 해서 통과하게 되었다. (계속)

교육전도사청빙공고

본 교회에서는 제2세 기독교교육(유년, 중고등, 청년부)을 전담하실 전임교육 전도사님을 모시고저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격 : 1) 북미에서 정규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분.
2) 영어에 능하시고 기독교 교육에 경험이 있으신분, 가능하면 음악을 지도하실 수 있으신 분.
대 우 : 자격과 경력에 따라 우대함.
제출서류 : 이력서1통, 사진1매
(서류는 비밀이며 반환하지 않음)
보내실곳 : Korean Full Gospel Toronto Church
1 King St. Weston, Ont. M9N 1K8
전 화 : (416) 881-7162
(416) 431-9962

순복음토론토교회
담임목사 이 필 주

총회소집공고

아래와 같이 총회를 소집코저 하오니 본회 이사, 임원, 각 경기 가맹단체장 또는 단체장의 위임을 받으신 분은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 소 : 크링톤하우스(아리랑식당 건너편)
일 시 : 1982년 1월14일(목) 오후6시
의 제 : 81년도 사업보고
81년도 결 산
82년도 사업계획, 승인
〃 예산안 승인
82년도, 83년도 회장단선거

재카나다 체육회장
이 병 권

南國酒家
SOUTH CHINATOWN RESTAURANT

* 전통적인 칸토니스 중국음식
* 해산물(게, 천엽등)
* 팔진두부
* 각종국수
* 뱅쿠엘으로 써비스

O.PEN HOUR
월~목(11 : 30~11 : 00 P.M)
금 (11 : 30~2 : 00 A.M)
토 (1 : 00P.M~2 : 00A.M)
일 (1 : 00P.M~10 : 00P.M)

주소 : 131 A DUNDAS W.
(던다스×유니버시티)
전화 : 977-3452

사진협회총회공고

회칙 제1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갖고저 하오니 회원 되시는분은 빠짐없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1982년1월23일(토)오후6시
곳 : 한국관(628 BLOOR ST.W. TORONTO)
안건 : 1. 업무보고
2. 감사보고
3. 결산보고
4. 82년도 예산심의
5. 임원개선
6. 기타

사진협회회장 이인덕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삐라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중역간부모집－어느정도 영어에 용통하고 용모 단정한 분. 당회사는 기반이 잡혀있는 무역회사임.
☎ : 962－0019

웨이츄레스와 키친 헬퍼 구함
459CHURCH ST. TOR. (미치 레스토랑)
☎ : 924－7501

도미니언·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또는 파타임 여자분 구함(YONGE & COLLEGE 빌딩안).
월～금 : 3시30분～9시30분 ☎ : 598－1140

도너스샾에서 주말에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11 : 00PM.～9 : 00AM. (스카보로 지역)
☎ : 284－9325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성실한 남자구함.
저녁6시～새벽2시
☎ : 531－2689(Mr. 김)

도너스샾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밤11시부터 아침7시까지(일요일～목요일까지)
☎ : 482－4088

스토아 헬퍼 구함(유경험자)
☎ : 491－9701(던밀×세파트 지역)

ROOM MATE구함
6시 이후 연락바람
☎ : 745－5174(MISS. BANG)

NIGHT TIME WAITRESS 구함
460 DUNDAS ST. W.
☎ : 977－2164(Mr. NIKKO)

세살난 미국소녀 친구되어줄 한국 어린이 찾습니다.
위치 : HIGH PARK
☎ : 769－7822

착실하고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
☎ : 742－0800
(렉스데일 & 이스링톤)

"송규석"씨 연락바람
충남 천원군 병천고등학교출신 김진영씨 요망.
연락처 : 몬트리얼(514)484－2906 조병화

맥스 밀크 스토아에서 일하실 캐쉬어 구함.
1주일에 26시간
☎ : 244－5248

* 성실하고 신체건강한 운전면허 소지자 남자분
* 주6 일(WAGE : $350)
직접내방 바람. 고려식품

• 가게봐주실분 구함.
• 6412 YONGE ST.
☎ : 221－6544 Mr. 안

VAN DRIVER WANTED FOR SATURDAY ONLY
ROUTE-TORONTO WEST, PAY-$30 PER WEEK
SEE-ALL SCHOOL ☎ 960-0074, 441-2986

• 업주하셔서 2월 한달간 2개월된 아기
돌보아 주실분
☎ : 446－1346

☼ Cook Wanted ☼
KOREAN VILLAGE RESTAURANT
628 BLOOR ST ☎ : 536－0290

매매및 양도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 머신 $800, 렌트 $550
☎ : 1－387－3983

급 매
뎀뿌라, 가마보꾸 제작기계 6점.
냉면기계 3점, 제분기계 1점(ALL NEW)
※기계에 관심있으신 분은 연락바람
☎ : 862－0361(홍)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극장옆 코너위치(로타리오 에이전트)
3344 YONGE ST. (직접 내방 요망)

78년형 VAN(G. M. C.)매매
마일레지 : 45,000마일스 가격 : $3500.
☎ : 281－1938(Mr. KIM)

버라이에티 스토아 주매상 : $4,500
렌트 : $400 리스5＋5년(가능) 아스킹 : $41000.
☎ : 221－2084(Mr. LEE)

스토아＋주택(4베드룸)매매
주매상 : $4,200 $30,000 DOWN＋STOCK
☎ : (1)－579－4451

잘꾸며진 미용실, 아파트(2베드룸)
(DUPONT × SPADINA)
☎ : 921－5947

해밀톤 스토아 매매
● 주매상 $6,000, ASKING $195,000
건물포함 다운페이 $90,000
● 주매상 $4,200 ASKING $152,000
건물포함 다운페이 $60,000
● 주매상 $4,000 다운페이 $50,000
건물포함 $159,000
● TUCK SHOP
주매상 $4,200, 좋은리스, 다운페이 $80,000
☎ : 1－662－4705, 1－662－7609
MONTREAL TRUST 전 병 호

• 이사관계로 급매(미시사가지역) 주5일 오픈
년매상 : $200,000 우유제품 제외
• 아스킹 : $30,000＋스탁＋설비.
☎ : 1－877－0634
(월. 화. 수. 토 오후7시이후 전화)
(목. 금. 일 오후9시이후 전화) ASK for JOE

부인혼자 할수있는 세탁소 매매(주매상 : $1,200
월세 : $500 리스 : 7년 가격 : $35,000)
오후4시이후 문의바람 ☎ : 423－7280

DELICATESSEN & MEAT STORE FOR SALE 주매상 : $2,300 렌트 : $425
아스킹 : $23,000(모게지가능) ☎ : 742－3216

BRACEBRIDGE ONTARIO
주류면허 LLBO를 갖고 있으며, 100명 이상을 수용할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와, 지불 기간에 있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음식점을 팝니다.
Clarence La Bossiere
☎ : (705)325－4454 낮, (705)326－7468 밤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높은이익 보장합니다.
928 DENFORTH. ☎ : 466－3423

TUCK SHOP 가정사정상 매매코자함.
주매상 : $2,500 렌트 : $600(전기, 물세 포함)
한달 순수익 : $2,200
$28,000＋스탁(몰게지가능)
(10 : 00 A.M～10 : 00P.M)
☎ : (416)461－5242(미시사가)

하우스 렌트

독신자 원함 $170(MONTHLY)
RAPE SUBWAY에서 한 블럭 거리
☎ : 282－0236, 929－5531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자동차수리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87－0432(B), 534－3346(R) MR. LEE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평가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신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8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 생화, 조화, PLANTS, GIFT 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을 완치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구 혼

1957년생(26세), 키 167cm,
직업 : 컴퓨터, 결혼할 여자구함.
☎ : 534－9660

1957년생(서울출생. 남)
신장 : 169cm 특기 : 태권도4단(양친 캐나다거주)
☎ : 291－2976

태 권 도

손영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홍수 태권도장(사범 박홍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부로 앞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회계사무소

R.I.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45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 : 273－7300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기 타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在日선수 12명 스카웃"

張勳씨交涉차 日本으로

한국프로야구위원회(徐鍾喆총재)의 보좌역을 맡고있는 在日同胞 張勳씨가 日本프로야구에서 활약중인 한국계선수들과 한국프로야구입단 교섭을 벌이기위해 7일 日本으로 떠났다。張勳씨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은퇴를 선언한 日本햄 출신의 朱東植(34)투수를 포함, 日本프로 1軍선수들을 상대로 한국프로로의 이적을 교섭, 12명의 선수를 모을예정이다。

프로 야구위원회는 日本프로구단들이 선수유출을 막기위해 새해계약을 서둘러체결하고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日本구단과의 협의를 통해 시즌도중에라도 선수를 스카웃할 방침이다。

流星의 賊 <277>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⑧

홍계남이 안내되어 간 곳은 강변의 이층집이었다. 사위에 유명한 사포(紗布)로 된 모기장을 둘렀다. 검은 테에 붉은 바탕을 한 식선(食膳)위엔 구운 은어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언저리에 채물(菜物)이 보기 좋게 배합되어 있었다.

모기장을 통해서도 만월을 볼 수가 있었고 만월이 비치고 있는 강줄기를 감상할 수가 있었다.

「제 이름은 꼬이(鯉)라고 합니다. 앞으로 각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미녀는 잔에 술을따르곤 무릎을 꿇어 앉은 자세로 눈을 아래로 깔고 있었다. 일어서면 작약(芍藥), 앉아있으면 모란(牡丹)이란 정취였다.

계남은 여자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 시선을 히라또에게 돌리며 물었다.

「저 강 이름이 뭡니까」

「가모가와(鴨川)라고 합니다」

「가모가와에 비친 명월, 나쁘지 않군요」

하고 계남이 잔을 들었다.

「귀국의 경도에도 강이 있읍니까」

히라또의 질문이었다.

「있읍니다. 한강(漢江)이라고 하오. 아마 이가모가와보단 세배나 넓을 것이오. 수심도 깊지요. 지금쯤 그 한강에도 저 달이 모습을 비추고 있을 것이외다」

계남의 말이 향수에 서려있었다.

그러자 히라또가 잔을 건네며 말했다.

「절색의 미녀를 두고 향수를 말하다니, 홍공, 그처럼 무정한 사람이 되어선 아니되오. 오꼬이에게도

말씀이 있어야지」

「천하의 미녀를 만나게 되니 반갑기 그지 없소. 그러나…」

「반갑고 기쁘면 그만이지, 그러나가 무슨 소용 있소」

하더니 히라또가 오꼬이 쪽을 보고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홍공은 가히 삼국제일(三國第一)의 위장부(偉丈夫)이오. 삼국이라고 말해도 우리 일본에서의 삼국이 아니라, 명나라·조선나라·일본나라를 쳐서 삼국 제일이란 말이오. 그러니 이 위장부를 위해 노래나 한가락 부르시오.」

오꼬이는 사전에 단단히 지시를 받고 있었던 까닭인지 미리 준비해 놓은 장금(長琴)을 끌어당겨 튕기며 다음과 같이 노래 불렀다.

「낙화(落花)의 눈보라에 길을 잃었던, 가따노(片野)의 봄철, 그 황혼(黃昏)이 그립고녀. 단풍빛 비단 옷이 황홀하였던 아라시야마(嵐山)의 가을철, 그 황혼이 그립고녀…」

오꼬이 [illegible] 가슴을 치는 정감(情感)이 있었다.

그러나 계[illegible] 까닭으로 황혼만을 들먹여 노래부르는가를 [illegible]었다. 그래 그 뜻을 물었더니 오꼬이의 대답이 있었다.

「이것은 경도의 사계절의 황혼을 부른 노래입니다. 황혼이 되면 사람이 그리워지지 않소이까. 그러하오니 사계절 황혼의 경관에 붙인 상사곡(相思曲)이라고 할 수 있지요.」

「상사의 노래는 어느 나라에도 있는가 보죠?」

하고 홍계남은 고향에 두고 온 처에게 마음을 보냈다.

貸出, 銀行別 자금能力대로

金通委의결 與信限度制 전면 철폐

金融 自律경쟁體制로
通貨간접規制 방식전환

시중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관리방식이 바뀌었다. 은행별로 매달 대출할수 있는 금액을 일일이 정해줘서 그이상은 대출할수 없도록했던 이른바 貸出限度制가 철폐되고 은행들이 자금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대출 할수 있는 자율적 통화관리제도가 새로 시행됐다.

한국은행은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金融機關의 對民間信用限度管理規程』을 폐지키로 의결, 이날짜로 은행에대한 대출한도제를 없애버렸다.

再割引·公開市場 조작방식으로 조절
「便他貸出」등 금융계痼疾해소도 기대

이에따라 과도한 통화팽창을 억제하기위해 지난78년부터 시행돼오던 은행별 與信限度(대출한도) 설정에 의한 직접적 창구규제방식의 통화관리가 앞으로는 재할인(韓銀대출), 공개시장조작등 정통적 통화조절수단에의한 間接規制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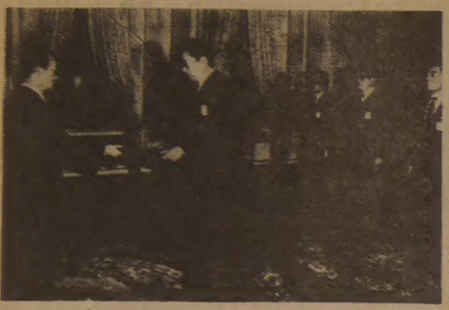
통화관리방식이 바뀜에따라 ①은행대출의 획일적규제로 파생됐던 便他貸出등 고질적금융부조리의 소지가 없어지게됐고 ②은행별 여신규모가 자체자금조달능력에 의해 좌우됨에따라 은행의 자율성과 은행간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③시중금융수요에 부응한 탄력적인 통화공급이 가능해지게 됐다.

한국은행은 대출한도제에 의한 직접적통화규제를 없앤 대신 앞으로는 은행지급준비율의 조정, 은행의 對韓銀借入金 조정, 통화안정증권및 국공채발행에의한 공개시장조작등 간접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시중통화량을 조절해 나가기로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의 직접규제는 韓銀法에 규정된 임시수단으로서 통화및 물가가 변칙적으로 상승하는 긴급한시기에 사용하도록 돼있는것인데 그동안 경제전반에 걸친 안정화노력에힘입어 77년39·7%, 78년35·0%에 이르렀던 총통화증가율이 81년에는 25%로 안정되고 물가도 당초예상의 절반에 불과한 12%로 안정되는등 경제의안정기반이 정착됐으므로 직접규제방식을 풀고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케된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韓日 高位實務접촉 14~16일에

兩國동시발표 早期外相회담 日程등 조정



기우찌 亞洲局長등 3명派韓

韓日양국은 7일 60억달러의 經協문제를 타결키위해 빠른시일내에 外相회담을 개최키로하고 이회담의 준비를 위해 오는14일부터 3일간서울에서 양측 高位책임자간의 예비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韓日양국은 이날하오4시 서울과 東京에서 동시발표한 합의내용을통해 『兩國은 韓國이 요청한 經協문제를 早期에 타결키위해 雙方의 사정이 허락하는 가능한한 빠른시기에 盧信永외무장관과 사꾸라우찌·요시오(櫻內義雄)日외상간의 外相會談을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를위해 기우찌·아끼다네(木內昭胤)日외무성 아시아국장, 나까무라·쥰이찌(中村順一)경제협력국참사관, 오구라·가즈오(小倉和夫)아시아국 北東亞과장등 3명의 실무진이 訪韓키로했다고 밝혔다.

◇盧信永외무

◇사꾸라우찌外相

이로써 지난8월의 韓日외상회담이후 5개월간에 걸쳐 難航을 거듭해온 韓日두나라간의 經協문제는 양측의 예비접촉을 통해 해결의 轉機를 맞을것으로 보인다.

외무부관계소식통들은 日側실무진의 訪韓은 兩國외상회담의 再開를위한 日程조정에 불과하며 관심사항이 되고있는 經協額數타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 이번접촉이 앞으로있을 外相회담과 정상회담에 이르는 첫과정임을 시사했다.

이번 접촉은 日側경제협력국의 관계직원이 포함된점으로 미루어 한국측이 제시한 60억달러에관한 日側의 代案이 제시될것으로 관측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주장해온 「先總額 妥結」위주의 정치적 접근방식에대해 日側은 「先프로젝트別」접근을 제시할것으로 보인다.

日側실무진들과 절충을 벌일 우리측 실무진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청와대 首席비서관 任命
政務제2 金泰鎬·교육文化 孫製錫씨

全斗煥대통령은 7일 공석중인 대통령비서실 政務제2수석비서관(次官級)에 金泰鎬내무부지방행정차관보, 敎育文化수석비서관에 孫製錫서울大사회과학대학장을 각각 임명, 이날 상오 임명장을 주었다.〈사진〉

이로써 대통령비서실 개편은 일단락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는 金容休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金政務2수석略歷 ▲慶南 晋州출신·47세 ▲서울大法大卒 ▲내무부 행정관리담당관·行政부국장 ▲仁川시장 ▲청와대政務비서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장·지방행정차관보

◇孫교육문화수석 ▲慶北 浦項출신·51세 ▲서울大文理大정치학과·대학원卒(정치학박사) ▲서울大교수 ▲美하버드大·시카고大서 연구 ▲南北赤회담대표단 자문위원 ▲國保委자문위원 ▲서울大사회과학대학장 ☆얼굴2면

民正총재 秘書室長 李漢東의원을 任命

民正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7일 空席중인 黨총재비서실장에 李漢東의원(漣川·抱川·加平출신)을 임명했다.

民正黨은 또 政策委부의장에 朴權欽의원을 임명하고 국회내무위 民正黨간사에는 梁利植의원을 內定했다. ★얼굴2면

◇李비서실장略歷 ▲京畿抱川출신·48세 ▲서울法大卒 ▲高試10회 사법과합격 ▲육군법무관 ▲서울地法판사 ▲서울地檢검사 ▲법무부연수원부원장 ▲서울地檢부장검사 ▲변호사 ▲11代의원

◇朴政策委부의장 ▲慶北淸道출신·50세 ▲서울大신문대학원수료 ▲京鄕新聞정치부차장 ▲國際新聞정치부장 ▲新民黨총재비서실장 ▲新民黨10代국회의원 ▲同대변인 ▲11代의원

退任국무위원 招致
全대통령, 勞苦치하

全斗煥대통령은 7일하오 1·3改閣으로 退任한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치, 만찬을 베풀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全대통령은 만찬에앞서 南惠祐전총리에게는 修交勳章光化大章, 申秉鉉전부총리를 비롯한 李承潤 朴鳳煥 金周南씨등 前閣僚들에게는 靑條勤政훈장을 주었다.

임시國會 27·28日열어

民正·民韓合意 정부施政연설 청취·총리任命동의

국회는 정부측 요청에의해 오는27·28일 이틀동안 제109회 임시국회를열고 정부의 施政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李鍾贊民正黨총무와 高在淸民韓黨총무는 7일하오 국회에서만나 제109회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논의, 오는27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첫날은 정부측의 施政연설을 듣고 다음날인 28일에는 劉彰順국무총리서리의 임명동의안과 禹炳奎국회사무총장서리의 임명동의안을 각각처리한뒤 議員職을承繼한 金裕祥의원(民正)의 의원선서를 받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高총무는 『제109회 임시국회를 오는22·23일 이틀동안 열자는 제1案과 27·28일 이틀간 열자는 제2案이 논의됐으나 舊正(25일)이 지난후 국회를 여는것이 좋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히고 『오는15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국회소집 요구가 의결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시국회전 까지는 常任委활동이 없을것이며 임시국회가 끝나 필요하다면 常任委를 여는것이 좋다』고 밝혔다.

精神文化硏 새院長 鄭在覺씨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7일 상오10시 제6차 임시이사회(이사장鄭壽昌)를 열고 공석중인 원장에 東國大총장 鄭在覺박사(69)를 선임했다.

3대원장으로 선임된 鄭박사의 취임식은 9일 상오10시30분에 거행된다.

◇鄭원장약력 ▲1913년 慶北尙州郡外西面우상리에서 출생 ▲1932년 京城第一高普卒 ▲1937년 京城帝大法文學部史學科卒(東洋史전공) ▲1946년 國學專門교수 ▲1947~1978년 高大교수·학생처장·문과대학장·대학원장 ▲1978년 東國大총장

黨政협조 强化
實務협의회도구성

정부와 民正黨은 內閣개편을계기로 「黨政實務협의회」를 구성하는등 黨政협조窓口를 多元化, 黨政협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民正黨의 한관계자는 7일 현재의 黨政협조기구인 黨政정책회의, 黨政정책조정회의, 黨政기획회의등 3개기구외에 各部處의차관, 차관보및 실무차원의 人士와 民正黨의 정책조정실장, 정책관계자들로 구성되는 『黨政실무협의회』를 새로구성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무총리실등 정부의 각부처에 차관보나 기획관리실장급으로 民正黨에대한 협조專擔部署를 설치, 黨政협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民正黨은 이달말께 黨政정책조정회의를 열어 黨政협조활동을 본격화 시키기로했다.

社會漫評

질서를찾기위해 今年엔…

北韓근로자 歸順

國防部발표 7일 暴雪때 休戰線넘어

咸北태생 化學공장근무 20代
"經濟파탄에 自由가 그리웠다"

◇귀순자 김용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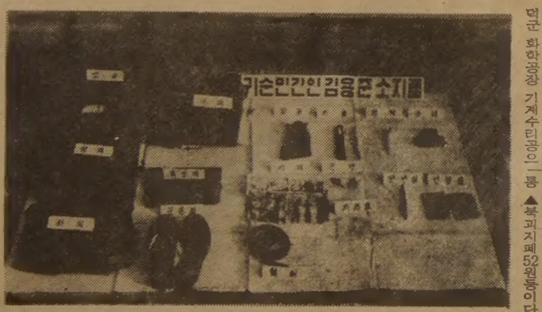
북한의 20대 노동자 1명이 7일 상오 9시30분께 鐵原동북방15km지점의 아군 초소를 통해 자유를 찾아 귀순해 왔다고 국방부가 7일 발표했다.

국방부 朴鍾植대변인의 발표에따르면 귀순자는 함경북도 온성군온관면 노동자구에 주소를둔 김용준씨(28·함북 강원도 금강군현리)로 金씨는 평소 자유대한을 동경해 오다 지난 6일밤 눈이 내려 『계기가 불량하고 북괴군의경비가 소홀한 야음을이용, 휴전선을 넘어 7일 아침 아군 초소로 탈출해 왔다는 것이다.

이날 자유대한의품으로 귀순한 김용준씨는 함경북도온성군 화학공장 기계수리공으로 『폐쇄된 金日成족벌체제의 학정과 비당원에 대한 차별대우, 그리고 경제파탄으로 인한 빈곤과 특히 「金日成의 70회 생일선물로 통일된 공산조국을 선사하자」는 구호아래 전주민을 전쟁준비에 내몰고 있는 북한사회의 처참한 현실에 염증을 느껴 오던 끝에 탈출해 왔다』고 귀순 동기를 밝혔다.

김용준씨의 귀순당시 소지품은 다음과같다.

▲방한외투·작업복 상하각1점·털도리·속옷각1점·잠옷1벌 ▲공민증 ▲노동수첩 ▲사로청원이동증1장 ▲金日成배지1개 ▲수청~원산간 기차표1장 ▲만년필1개 ▲은단1통 ▲북괴지폐52원등이다.



◇귀순당시 김씨의 소지품。

美스탠퍼드大

DNA자체增殖

遺傳工學개가 癌억제 가능

【스탠퍼드(캘리포니아州)6日UPI=聯】미국스탠퍼드대학 과학자들은 5일 유전자(DNA)를 실험실에서 자체증식시킬수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힘으로써 유전공학에 획기적인 신기원을이룩하는 개가를 올렸다.

사상 최초로 DNA합성법을 발견, 1959년 노벨상을 수상한 아더·코른버그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날 美국립과학원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 이번 DNA자체증식방법발전으로 번식력이 큰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크게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코른버그박사는 그러나 DNA의 자체증식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연구가 암과의 투쟁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는 외에 상처를 입은 간과 다른장기들이 재생되는원인규명에도 기여할것 이라고 전망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地平線

自由는 「身體의自由」가 기본이다。기본권 조항을 전진시킨 새憲法이 「身體의自由」규정을 강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憲法이 신설한조문(제11조⑤)은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서 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이에 따라 재작년 12월18일 구속적부심이 되살아났다. 그뒤 1년, 작년 11월까지의 집계는 적부심의 석방결정률이 44·9%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聯合通信 7일字1面)。實例로는 심사신청이 6천4백7건에 석방결정이 2천9백6건。

피의자 人權을 위해 다한 일이나, 작년 한햇동안의 구속피의자를 대충 12만명으로 잡으면, 적부심신청자는 그중의 5%, 석방결정은 2%선에 머문다는 추산이 나온다. 모처럼의 제도가 활용되지 않는 느낌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대개의 피의자는 제도를 모른다. 아니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반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날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법으로 정해진 默秘權의 告知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니 당연한 짐작이다.

게다가 검찰은 電擊起訴란 편법으로 적부심 신청을 막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제도자체의 제약이 더 크다. 새憲法을 받아 개정한 형사소송법이 검사 認知사건, 內亂·外患罪와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그리고 사형·무기 또는 단기 5년 이상의 중범은 적부심의 신청을 못하게 한것이다. 이 예외규정이 憲法에 말한 「누구든지…」에 합당한지가 의문이지만, 특히 검사 認知사건의 제외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內亂罪등에서와 같은 형사정책적인 배려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경찰이 수사했거나 검찰이 수사했거나, 구속영장을 요구하는 주체는 언제나 검사이며, 검사가 요구하는 영장은 90%이상이 그대로 발부된다. 그러나 구속피의자의 25%정도는 불구속기소로 풀려나고, 기소된 피의자의 30%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다. 많은 경우에 구속영장의 요구와 발부가 신중치 못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해서 구속적부심을 부활한 것인데, 검사認知사건이라고 심사에서 제외할까닭은 없다.

「누구든지…」의 憲法정신을 새겨, 영장事後심사의 본뜻을 생각할 때가 된것 같다.

한국일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생활정보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융자,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illegible]

SunLife OF CANADA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439-8885(R)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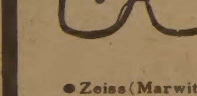
謹賀新年

지난해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부디 여러분과 온가정이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보다 밝고 행복된 새해 되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리 옵니다.

황용현 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블루어안경



● Zeiss (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안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소 : 629 BLOOR ST. W. TOR.
전화 : 531-2236(B), 282-2369(R)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한대의 기계로 한글과 영문을 마음대로 칠수있는
공병우 한영 타자기

$129.00

* 누구나 1분 설명듣고, 5분간 연습으로 한글을 칠수 있읍니다.
* 교본으로 하루 한시간씩 6일간 연습으로 누구나 초급 전문 타이피스트가 될수 있읍니다.
* 사무실마다 가정마다 구비하고, 사무능률을 올리고, 어린이들의 IQ 도 올립시다.
* 타이프라이터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상징하는 최신 과학 문명의 이기입니다.
* 타자기의 사용 목적은 시간 절약에 있고 타자기의 생명은 배우기 쉽고, 빠른속도에 있읍니다.

판매처
(IL) ALBANY OFFC. SUPLY. CO. (312) 267-6000
(CA) SOKWANG INTERNATIONAL (213) 570-8288
(PA) SUNJUNG KONG (215) 527-1132
(NY) KIM'S CALCULATOR CO. (212) 937-8670

美、對蘇무역 全面凍結 검토

레이건 波사태 최후의 報復조치로

선별적 禁輸등은 排除

"介入확대할 경우 즉각 斷行한다"

【워싱턴6日AP AFP=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 폴란드사태에 따른 마지막 對蘇보복조치로 美·蘇무역전면동결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6일 알려졌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美최대의 농민연맹회장인 로버트·딜라노씨와 회담했는데 딜라노씨는 회담이 끝난후 기자들에게 『對蘇곡물금수가 아닌 전면적인 무역동결가능성이 논의됐다』고 밝히고 『美농민들이 홀로 그결과를 감수하지만 않게된다면 그같은 조치에 반대하지 않을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對蘇무역전면동결조치가 소련이 폴란드사태개입을 확대할 경우에대한 마지막 대응조치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동석한 존·블록농무장관도 레이건행정부가 소련에 대해 선별적으로 곡물금수조치를 시하는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래리·스피크스백안관 부대변인도 선별적인 금수조치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것이 레이건대통령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딜라노씨는 對蘇곡물선적이 앞으로 3개월이내에 중단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것으로 본다』고 답변하면서 『레이건대통령과 전면적인 對蘇무역동결가능성에 관해 협의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이 사용할 마지막代案中 하나』라고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에 항의, 카터前대통령이 80년 봄에 단행한 對蘇곡물금수조치를 지난해 4월 해제한바 있다.

◇헤이그 "東西대화 通路 열려있다"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이 6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폴란드 국내사태에 蘇聯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에 美國과 西獨양국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에도 불구, 東西간의 대화의 통로는 계속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 7 日UPI=聯合】

"美·蘇外相회담은 豫定대로"

헤이그會見 頂上회담 취소可能性도 否認

【워싱턴6日AP=聯合】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은 6일 최근 폴란드사태로 인한 미·소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달말로 계획된 양국간의 외상회담이 예정대로개최될것임을 시사했다.

헤이그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또 레이건 미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간의 정상회담방침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했다.

헤이그장관은 전략핵무기 감축을 위한 협상의 기반을 다지기위해 이달말로 계획된 안드레이·그로미코소련외상과의 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고싶다고 말하고 그러나 회담개최에 대한 최종결정은 지금부터 그때까지 발생하는사건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헤이그、中東순방

【워싱턴6日外信=聯合】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은 이스라엘및 이집트 지도자들과 팔레스타인 자치협상문제를 비롯한 中東현안을 토의하기 위해 오는12일부터3일간 中東을 방문한다고 미국무성이 6일 발표했다.

헤이그장관은 오는 11일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폴란드위기에 관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특별외상회담에 참석한후 이스라엘과 이집트양국 방문길에 오른다.

국무성은 헤이그장관이 이스라엘 이집트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팔레스타인 자치협상및 그밖의 中東현안을 토의한다고 밝혔다.

波강경파서 勞組 완전파멸하면

야루젤스키 "自殺"위협

오스트리아 放送

【빈6日UPI=聯合】수상겸 공산당제1서기인 보이체흐·야루젤스키장군은 계엄정부내 강경파지도자들이 자유노조를 완전히 파멸시켜야한다고 고집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끊어 이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오스트리아방송이 6일 보도했다.

이방송은 폴란드로부터 스웨덴에 도착한 여행자들의 말을 인용, 야루젤스키장군은 현 자유노조가 완전히 파괴될 운명에 처할 경우 자살하거나 사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自由主義的」태도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야루젤스키장군은 강경파가 인물인 당중앙위 서기 스테판·올조프스키를 포함한 정부지도자들과 자유노조의 장래문제에 관해 격렬한 토의를 벌이면서 이같은 위협을 했다고 말했다.

蘇、對波 34억弗차관提供

82년에…무역赤字 보전위해

【런던·모스크바6日UPI·AP=聯合】소련은 6일 폴란드의 對蘇무역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82년도에 유리한 조건의 차관27억루블(美貨 약34억달러)을 폴란드에 제공키로 하는 한편, 폴란드가 소련산 가스·석유·원자재및 여타상품을 계속 구입할수 있도록 허용하는등 일련의 대대적인 對波경제 원조를 단행했다.

소련측의 이같은 對波경제원조는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타데우즈·네스토로비츠 폴란드무역상과 니콜라이·파톨리체프소련무역상이 이날 체결한 82년도 양국간 무역및 지불의정서에 따른 것으로 모스크바의 폴란드소식통들은 폴란드가 소련으로부터의 이같은 경제원조를 對西方채무상환에 충당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전했다.

駐美大使소환

멕시코政府

【멕시코시티7日UPI=聯合】멕시코정부는 수천명의 미국내 멕시코인 노동자들의 추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미행정부의 임시방문허가취소 결정에대한 대응책을 협의하기위해 워싱턴 주재대사를 소환했다고 6일 발표했다.

미국무성은 멕시코정부의 이같은조치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으나 미국내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에게 발급된 임시방문허가증이 무효화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뒤 우고·마르가인 駐美멕시코대사가 디에고·아센시오 미국무성 영사담당차관보와 만나 이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美의회, 통제법改正

對外무기 輸出통제

【워싱턴6日UPI=聯合】美의회는 최근 對外무기수출 통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美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의회에 통고해야하는 對外무기및 군사장비판매액 上限線을 현재의 2배로 上向조정했다고 美국방성이 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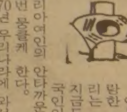
外信 알며나

▲대처英首相, 9월말中共 방문=마거리트·대처 영국수상은 오는 9월말 중공을 공식방문한다고 험프리·애트킨즈 영국부외상이 6일 밝혔다.

중공을 방문중인 애트킨즈부외상은 이날 중공수상 趙紫陽과 1시간에 걸친 회담을 가진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처수상의 정확한 중공방문일자는 아직결정되지 않았으나 9월16일부터 20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京=聯】

메아리

韓國愛



우리나라에 근대식학교가 처음 세워진것은 1886년이었다. 배재·이화학당이 차례로 등장했고 이보다 좀 뒤늦게 育英公院이 설치되었다. 당시 우리 정부가 세운 유일한 신식학교다.

서양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 문을 연 이학교엔 미국에서 초빙되어온 3명의 교사가 있었다. 그중 한사람이 우리 근대사에서 지울수 없는 호머·B·헐버트박사였다. 그의 한국이름은 「轄甫」。

처음 영어교사로부임했지만 선교사, 언어학자, 사학자로 또한 독립운동의 후원자로 명성을 이나라에 바쳤다. 그가 남긴 「한국사」등의저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을 이해하는데 귀중한자료가 되었다.

건국후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온 헐버트박사는 이땅에서 숨을 거두고 「영원한 한국인」이 되었다.

한국을 자기조국보다 더 사랑한 외국인 가운데 우리가 또 잊지 못할 사람은 스코필드박사다. 3·1운동 「제34인」으로 추앙받는 그의 「한국사랑」은 너무 유명해서 새삼 소개하기 쑥스럽다. 그도 「위대한 한국인」으로 이땅에 묻혔다.

지난 77년초 미국에 사는 우리동포가 한국일보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 우리 음악계에 기여한 플로렌스·부츠여사의 공로를 알려오면서 그의 유언을 전했다. 1921년 치과의사인 남편과함께 우리나라에와서 음악교육에헌신했다. 80세를 일기로 미국에서 숨진 그는 자기를 화장해서 그 재를 태평양에 뿌려달라고 당부했다. 비록 죽어서라도 한국의 해변에 닿겠다는 뜻이었다.

아름다운 한국을이해하고 사랑한 이런 외국인들에게서 우리는 동포애마저 느낀것 같다. 지금도 「韓國愛」를 지닌 외국인이 많은줄 안다. 한 오스트리아여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가슴을 또 한번 뭉클케 한다.

70년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인의 아내가 된 밀리아여사。 異域의 山河와 인정을 극진히 사랑하고 고아원보모로 봉사했다. 불치의 병으로 고국에 돌아가 내국기에 덮여 이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한마디는 「한국을 사랑한다」— 인정이 넘치는 한국인의 마음엔 이런 은인들의 애정을 두고 두고 간직해 갈것이다.

中共、上海에 특별經濟지역設置

【홍콩7日AP=聯合】중공은 외국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위해 上海에 특별경제지역을 설치할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誌가 7일 보도했다.

美、83년 國防예산 15%增額

【워싱턴6日UPI=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 올해對比15%가 증가한 총2천4백50억달러를 오는83회계연도 美국방예산으로 의회에 신청하기로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紙가 6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정부관리들의 말을인용, 레이건 대통령이 몇해에걸쳐 돈을 지출할수 있는「의무권한」으로 2천4백50억달러규모의 국방예산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신문은 83회계연도 국방예산 실제지출규모가 올해對比 18%늘어난 2천1백50억달러가 될것이라고 전했다.

금년도 美국방예산은 美사상최고수준인 2천1백30억달러(실제지출규모는 1천8백20억달러)에 달하고있다.

◇돌고래들의 집단 자살기도(?) 지난6일 약1백50마리의 돌고래들이 日本남부 규우슈(九州)현 아오지마 해변에 상륙, 1천여명의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부와 관광객들이 이들을 바다로 돌려보냈으나 자꾸만 되돌아오는 바람에 대부분 죽고 말았다. 【미야자끼 6 日UPI=聯合】

外貨대출규정 改正

融資비율 1百%로

金融通貨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7일 외화대출취급규정을 일부 개정, 현재90%로돼있는 외화대출융자비율을 1백%로 인상하고 해외에서 사용되는 시설재의 수입대금을 외화대출융자대상에서 제외시켜 이날부터 시행토록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나는 당신들이 要求하는 것을 알지못한다

붉은旅團、도지어將軍 신문내용 公開

【로마7日UPI=聯合】제임즈·도지어 미육군준장을 납치한 이탈리아의 도시게릴라단체 「붉은여단」은 6일 성명을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에인용된 도지어장군의 신문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붉은여단=동지들이여 양키의 돼지 도지어 장군은 신문과정에서 살인자로서 그의 죄상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붉은여단=당신은 왜 우리가 당신을 납치했는지 아는가.

▲도지어=알지못한다.

▲붉은여단=붉은여단을 아는가.

▲도지어=게릴라단체로 알고있다. 내가 납치되기 전에는 붉은여단이 이탈리아만의 문제인줄 알고있었으나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붉은여단=당신에게납치이유를 설명해주겠다。우리는 당신을 통해 군사점령조직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이탈리아인에 대한 美國의 제국주의정치를 알아내려고 한다.

미국은 중앙정보국(CIA)을 이용, 國家테러를 일삼고있다. 당신의 군경력은 동남아시아의 해방투쟁과 혁명및 유럽의 프롤레타리아 투쟁에대한 미국의 방해공작사와 같은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제국주의를 수호한 공범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믿고있다.

▲도지어=공범이라고? 나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정말이다. 나는 알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붉은 여단은 도지어장군에게 베트남전에 참가한 미군사단의 이름, 그의 과거상관들의 이름, 베트남전에서 사용된암호등을 물었으며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4백50만톤의 폭탄을 퍼부었다』고비난하기도 했다.

세후首相 자살이후 알바니아、暗鬪絶頂

國葬하지않고 著書도 모두收去

호자 黨1書記측 自派세력강화

【베오그라드6日UPI=聯合】알바니아수상 메흐메트·셰후의 자살은 셰후의 지지자들과 공산권최후의 스탈린주의 지도자인黨제1서기 엔베르·호자간에 치열한 권력투쟁을 야기시켰다.

알바니아로부터 6일 들어온 보도들은 알바니아당국이 셰후의 사진들을 철거, 그에대한 格下작업이 시작됐다고 전했으며 그의 저서들도 서점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27년간 수상직을 맡았던 셰후에게 國葬의 예우도취해지지않았고 고위관리들을 위해 마련된 묘역에 그의 유해가 매장되지도 않았다.

베오그라드 주재 알바니아대사관의 한 외교관은 2차대전이후 알바니아의 최고권력자인 黨제1서기 호자가 지난해 12월18일 셰후가 사망하던날 역시 살해졌다는 거짓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파면됐다.

외교관들은 셰후 지지세력과 호자간의 권력항쟁이 지난해 12월17일자정쯤 셰후가 자살하기 불과수시간전 알바니아공산당 대회가 폐막할때 절정에 달했을것으로 믿고있다.

외교관들은 두사람의 견해차가 對內外 정책변화의 필요성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있는데 알바니아는 소련, 중공, 미국및 이웃 유고등을 모두 敵對視 하여 사실상 세계에서 고립돼있다.

셰후가 사망한 12월18일에는 수도 티라나의 공산당본부와 정부청사 주변에 군경 증원병력이 배치됐었으며 12월22일에는 티라나의 리아스공항에 알바니아가 보유하고있는 蘇製 미그17機 3대가 목격됐고 이번주들어 소규모 병력이동이 있었던것으로 외교관들이 전했다.

티라나의 외교가에서는 셰후가 죽기전에 마지막남긴 말이 『쏘지마라, 동지여』라는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돌고있다. 한 외교관은 이같은 말들이 사실은 아니겠지만 알바니아 권력층 내부의 권력투쟁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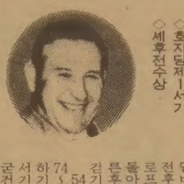
알바니아의회는 앞으로 1주일내에 의회를 소집, 새수상을 선출해야 하는데 신임수상후보로는 아딜·카르카니부수상과 공산당이론가인 라미즈·알리아가유력한 물망에 오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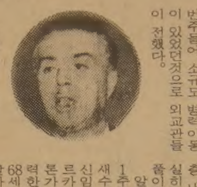
68세로 숨진 셰후는 남부알바니아출생으로 2차대전후 소련에 유학, 보로칠로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 48년 내무상에 오른후부터 일약 출세가도를 걷기 시작했다.

54년 수상에 취임한그는 74~80년에 국방상을 겸임하기도 하는등 호자黨제1서기에 이은 제2인자로서 굳건한 위치를 다져왔다。

국내외 정치노선에 있어서는 호자黨제1서기와 마찬가지로 정통공산주의이념추종을 주장하는 극단주의 고립노선을 걸어왔다。

알바니아는 61년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에 반발, 소련과 관계를 끊고 中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나 중공이 서방과 가까와지자 이에반발,중공과의 관계마저 단절했었다。





◇호자당제1서기 ◇세후전수상

인사이드

「政治和解」3개월

무바라크의 이집트

사다트政敵들 거의 풀려나

野黨도 공공연히 政府지지

【카이로6日外信=聯合】호스니·무바라크이집트 대통령은 국가원수취임후 지난3개월동안 선임사다트재임시에 빚어진 국내의 대립적분위기를 진정시켜왔다.

사다트치하에서 구금됐던 정치인과 문인들이 이제 TV대담프로에 모습을 나타내고있고 야당은 무바라크에게 정치적 휴식시간을 마련해주겠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故사다트최후의 연설내용처럼 좌파정치인과 우파회교도를 신랄히 매도하던소리는 이젠 거의 숨이죽었다。

신임 무바라크는 화해책을 써 국민적단합을 호소하고있다.

취임후 수일만에 무바라크는 이브라힘·슈크리와 칼리드·모히에딘등 야당지도자를 초치, 장차 모든주요정책결정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바라크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12월의 보궐선거 운동기간중 좌파노선의 사회노동당(SLP)지도자인 슈크리가 정부당국 보다도 오히려 더욱 친정부적인 발언을 했다는 정치업저버들의 논평이 나올 정도로 수확을 거두었다。

SLP는 백중세의 2개선거구에서 의석을 상실했지만 슈크리는 『선거운동이 수년내 가장 공명했다』고 말했다.

SLP는 신임 무바라크에 대한 예우로 이집트, 이스라엘간 캠프데이비드 평화협정을 반대해온 입장을 유보해왔다。수십년간 회교정통파의 핵심세력이 돼온 불법화된 회교형제단조차도 지도자의 교체로 이득을 얻었다고 느끼고 있다.

작년9월 기독교일파인 콥트교도와 회교과격파간에 카이로교외 자와·알 하마에서 벌였던 시가전당시 사다트가 배후조종자로 낙인찍었던 회교형제단지도자 오마르·텔베사니는 지난12월 출옥, 폭력사용을 배격 하면서 이제는 과거의 파쟁을 잊어야할때라고 언명했다.

무바라크는 작년9월 종파분쟁으로 검거됐던 1천5백35명중 저명인사급만 이미 86명을 석방조치했다. 대표적인사를 꼽으면 아랍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언론인인 모하메드·헤이칼, 혁명전 와프드당 소속 정치인인 푸아드·세라게딘, 그리고 10여명의 회교형제단소속 멤버들이 있다.

또한 무바라크는 이번주초 대통령령을 발표, 작년9월 사태때 정치적 경제적 소신때문에 실직당했던 언론인및 대학교수 59명을 복직 시켰다.

관영보도기관에 소속된 언론인들은 과거 수년간 어느때 보다 현재 더많은 자유를 향유하고있으며 신문들은 논평을 더욱 폭넓게 보도하게 됐다고 증언한다.

◇反사다트선봉에섰던 중진언론인 헤이칼⑥등 재야인사들이 작년 9월 사태때 구속됐다가 최근 무바라크에 의해 석방됐다.

◇무바라크

世界의 社說

中共、親蘇旋回는 못할것

●월·스트리트·저널(美·5일자)

중공은 레이건美행정부의 對대만무기판매를 저지하기위한 위협을 또 밝히면서 미국과의 수교 3주년을 맞이했다.

레이건행정부로서는 중공의 위협으로 야기되는 우려에 對臺灣무기판매승인여부를 맡겨두는것이 위험한 일이자 불법적인 일이다。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여부결정에 적용되는 법규는 대만관계법이다。이법은 대통령이나 의회가 대만에 판매할수있는 무기를 결정짓는데있어 명확한 근거가된다。

미국이 중공과의 관계개선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美외교정책당국자들은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야 한다。현재로서 美·中共관계에 있어 더욱 절실한쪽은 中共이다。

왜냐하면 중공은 아직 경치·경제적으로 큰 문제점을 가진 취약한 나라이다。

協商만이 經濟회생방법

●뉴욕·타임즈(美·3일자)

폴란드의 보이체흐·야루젤스키장군이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무엇을 얻으려하는지 아직 불분명하다。

총칼을 앞세워 생산능률을 올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것이며 충격으로 정치적시위를 억제하고 기왕에 얻은 자유를 지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실패할 것이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폴란드경제를 회생시킬 유일한 방법은 자유노조와 정부당국의 협상뿐이다。

자유노조 저항세력의 대부분은 공산당의 명목적인 「우위」를 인정하고 공산당과 軍은 자유노조의 세력을 인정해야만 할것이다。또한 야루젤스키는 중대한 과오를 시인、自由勞組지도자들을 석방하고 자유노조분쇄를 요구하는 黨內강경파를 오히려억제시켜야 한다。

벡커 프렌차이스 협회 신년파티

존경하시는 회원 여러분, 본 협회에서는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해의 묵은 피로를 풀고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위하여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고 회원과 회원가족 여러분을초청 하오니 부디 많이 왕림하셔서 모처럼의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4인조 악단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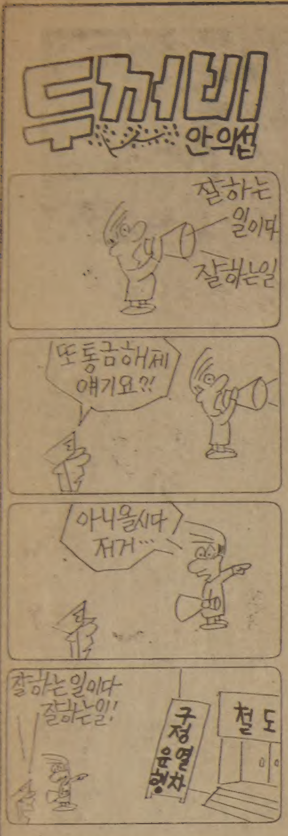
경품 : COLOUR T.V, STEREO, RADIO.
전기밥솥, 전기 후라이팬, 칼가는 기계등
$4,000상당의 경품

장소 : 900 YORK MILLS RD. (프린스호텔)

때 : 1982년1월29일(금)오후6시

회비 : 1인당 $25(부부 : $40)

벡커 프렌차이스 협회장 김 병 진



家計수표 담보 高利私債

서울서 번져 4~6부暴利 先利子떼고

쪼들리는 봉급자들 울려…

가계수표를 이용한 고리사채가 생겼다.

지난해 7월부터실시된 가계수표제도가 뿌리도 내리기전에 변칙활용되기시작한것.

가계수표 고리사채는 급한 돈이필요하거나 또는 목돈이 필요한 봉급생활자들로 부터 1~2개월짜리 가계수표를 먼저 받은뒤 4부에서 최고 6부(이자5%,수수료1%)까지를 선이자로떼어 사채금리(3~3.5부)보다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있다는것.

가계수표는 은행지불보증이 돼있어 부도가날염려가없기 때문에 사채업자들 사이에 큰인기를 끌고있다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퍼지기시작 최근에는 신문에 광고까지 내면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고있다.

이같은 사채업자들은 서울의 新門路, 淸溪川, 鍾路5街、南營洞, 汝矣島등 서울에서만 30여명이 영업을 하고있으며 단골손님은 대부분 봉급생활자 또는 가정주부들。빌수있는돈은 최고2백만원까지로 보통 수표1장당 10만원씩으로해서 10장(1백만원)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수표를 할인해줄때 수표보증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임을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만으로 돈을 내준다.

가계수표가입자들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높은 이자인데도 돈을 빌어쓰고 있는것은 은행대월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돼있어 목돈이 필요할때 제대로 빌어쓸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가계수표가 변칙고리채로 활용되고 있는데 대해 월6%씩이나 되는 엄청난 고리를 뜯어내는데 문제가있으나 현재로서는 마땅한 법적규제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11월26일 가계수표용자의 발급에서 20장으로 늘어나면서 변칙활용하는 사람도 늘어 西大門P상사의 경우 하루7~8명이 찾아오고있다.

상업은행 당좌계 中光一대리(40)는 이같은 현상에대해『은행 피해는 없지만 가입자들이 자기돈을 깎아먹는 만큼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안전한 상거래를 이룩하자는 종합가계예금의 당초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말했다.

82년의 国際気流 本社特派員들 告界의 碩学들과 対話

南北韓은 결국「잘살기競爭」 韓·日協力해야 東北亞안정

慶應大學 神谷교수가 보는 極東정세

정부는 改憲할 힘이없고 國民은 싸울意志없어 日本이 軍國主義化될 염려는 없다

80년대는 不確實性의 연대다。소련의 끊임없는 팽창주의와 군사력증강으로 긴장이 고조되고있다.

격동과 위기의 연대를 맞아 오호츠크海에서 말래카海峽에 이르기까지 極東정세 전반에 관해 慶應대학 국제정치학교수인 가미야·후지(神谷不二)박사에게 물는다.

—소련은 세계적 규모로 급격히 군사력을 증강하고있다。특히 IRBM SS20과 고속장거리폭격기 백파이어가 極東에 배치되는등 소련의 極東군사력의 증강은 눈에띈다。이런상황속에서의 東北亞정세전반에 대해서.

▼소련의 覇權主義에 입각한군사력증강은 세계平和安定에 위협이 되고 있다.

極東소련군은 2개軍管區에 34개師團 35만명의 지상군과 1백52만톤 7백85척의 군함, 2천60대의 전투기를 배치하고있다.

이에反해 美極東軍은 육군 3만4천명, 해군 65만톤 60척, 해병대 2만3천, 전투기 2백30대다.

일본의 GNP와맞먹는 소련의 군사비지출은 GNP대비 14%로서、일본의 방위비의15배나된다。

소련極東軍의 증강과 소련해군력의 우세로 西太平洋에 대한미국의 制海權이 크게 위협을 받고있다.

특히 긴박한 中東사태로 제7함대의 일부가 장기간 印度洋으로 이전함으로써 西太平洋에 힘의 공백이 생겼다.

—말래카海峽에 떠다니는 石油탱커의 90%가 일본의것이며, 이런관점에서 석유수송로에대한 방위책임이 있지않은가.

▼석유수송로는 일본 산업의생명선이다。平和헌법의 테두리안에서 석유수송로의 안전확보에주력해야한다。더우기 소련이 시꼬단(色丹)島등 北方4개 도서에 군사시설을 증강하고 있음은 명백한 일본에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있다.

제7함대의 中東이전에 따른 힘의 공백을 메우기위해 해군력과 공군력을 점차로 증강해야한다.

—미국이 연간1천2백여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겨우 1백억달러 내외의 방위비 밖에 지출하지 않고 있다。일본은「공짜安保」속에수출만하는 편협한 이기주의라는비난을 면하기 어렵지 않은가.

▼일본 방위비가 GNP의 0.9%로 限定돼 있지만, GNP의 상승에 따라 방위비도 증가하여 방위비의 금액으로 보면, 세계 제8위다.

급진적인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東南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것이다.

—야스쿠니(靖國)신사의 국가관리와 평화헌법의 개정문제가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다。일본은 軍事大國으로 치닫을 가능성은없는가.

▼전혀없다. 그 어느정권도 지금의 平和憲法을 개정할 힘이 없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파병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軍國主義가 부활할 염려는없다。무엇보다 국민이 싸울의지가 없다.

일본의 방위력증강도 주로 한공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강화문제가 논의되고 있다。지상군의증강없는 海·空의 증강은 방위의 목적에 쓰일뿐이다.

—韓半島는 세계의 화약고다. 북괴는 게릴라활동을 목적으로한 10만여명의 특수8군단을 편성、훈련시키는등 武力赤化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하에서의 한반도정세는?

▼북한은 60년대 후반부터 70

東京에서 宋孝彬특파원 會見

◇가미야·후지(神谷不二)博士略歷=▲54세 愛知縣출신 ▲東京大學法學部졸업 同大學法學박사▲東大講師 ▲大阪市立大學助教授 ▲콜럼비아大學교환교수 ▲慶應大學教授
◇著書=▲朝鮮戰爭 ▲現代國際政治의 視角 ▲美日協助와 對立關係의 構造 ▲朝鮮問題戰後資料(全3卷) ▲日本의 安全保障政策

군사비에 투입、北韓은 현재 중·소의지원없이 단독으로 남침할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北韓의 남침을 용허하지 않고 있다。중·소가 대립、반목하고 있는 한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쟁은 일어나지않을 것이다。美·蘇·中·日 등 주변국가들이 모두 한반도에서의 분란을 원치 않고있다고본다.

다만 北韓은 한국 내정의 불안에 의한 내부 봉기를 부채질하고 국지전의 불장난은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北韓의 불장난은 경제적파탄등 進退兩難의 궁지에몰렸을때, 저질러질 가능성이 높다.

—韓半島의 통일에대한 의견은.

▼6·25동란으로武力統一은불

大命題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文化및人的교류를 넓혀 가야한다.

이런관점에서 한국의 통일방안이 북한보다 더 현실적이며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본다.

全대통령이 내놓은 南北수뇌가 무조건 만나자는「1·12」제의와「6·5」제의는 획기적인것이며 평화통일에대한 결의의 표시다.

한국이 어느체제가 국민을 더 잘살게 할것인가의 경쟁에서 勝利할때 북한은 남북대화에 대해 유연성을 보일것이다.

—北傀의 고려연방제 통일안에 대해서.

▼북한이 고려연방제 통일안을 강력히 들고 나오고있는것은、한국이 제의한「1·12」「6·5」제의를 거부하기위한 代打인것이다.

81년 10월 조선노동당 6차대회에서 고려연방제를 협의하는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①駐韓美軍의 철수와 ②全정권의 교체를 들고나왔다。이는 南北對話를 하지않겠다는뜻이며 고려연방제의 허구성을 드러낸것이다.

—北傀의 世襲王朝에 대해서.

▼제6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金日成의 아들인 金正日이 후계자로서의 지위를굳혔다。공산국가에서 보기드문 世襲王朝의 탄생이 실현되는셈이나 그전도는순탄하지 못할것이다。역사는 후퇴시킬수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金正日체제의 구축을위한 內治에 바빠 당분간 外侵에는 눈돌릴새가 없을것이다.

—세계전략으로서의 한국의위치는?

▼한국은 東西대결의 최전초기지로서 한국의 안전과평화가 東北亞의 안전과평화에 직결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안정은 중요하다。全정권이 81년 레이건정권이 들어서자마자 韓美정상회담을 갖고 駐韓美軍의 不撤收와 한국방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시킨것은 큰 外交的성과다。이어 全대통령은 아시안순방의 성공으로 東南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이는 외교적 훌런이다.

정부차원의 외교는 아니지만、88년의 서울올림픽유치와 86년의 아세아경기대회의 개최결정은 한국민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안겨줄것이다.

문제는 경제다.

—韓日關係에 대해서.

▼韓日양국은 그 어느쪽에서보든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自由民主主義를 견지하는 反共國家로서 공동운명체이다.

한일양국이 상호협력하여 東北亞의 안정에 基軸이 돼야한다。도미노理論을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과 일본이 무너졌을때 東北아시아의 평화는 기대하기어렵다.

이런 관점에서도 교착된 한일관계는 새해를 맞아 하루속히 정상화돼야한다.

—對韓經協과 한국의 對日貿易赤字문제는?

▼韓日經協문제는 총론은 찬성하지만、액수와 명목에 대한 各論부문에는 異論이 많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일정상화를 위해 경협문제가 타결돼야 한다.

—이유야 어쨌든 2백억달러에 이르는 對日貿易적자를 시현하고있다는것은 방치할수없는 문제다.

국제水平分業으로 점차 해소해야한다.

—神谷박사는 81년5월 中共을 방문、鄧小平부주석을 만나는등 中共내부를 상세히 파악하고 돌아왔다。中共近代化의 향방은?

▼中共은 文化革命의 과오를 청산하고 4大近代化에 매진하고 있다。1백80도의 방향전환을 기도하고있다。그렇다고 中共을 실제이상으로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서기 2천년에 GNP1천달러를 목표로 근대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 현재의 중공생활상을 상상할 수 있을것이다.

北京에서 鄧부주석을 만났을때 그는『中共은 21세기를 향해 커가고 있는 나라다。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실 그대로의 중공을 봐달라』고 말했다.

上海의 寶山製鐵등 대형프로젝트의 계약파기소동이 일어난것도 중공을 과대평가한 결과다.

중공의 근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공업제품이 양산되어 中進國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할것이라는 우려가 없지않으나 당분간 중공은、수출증대보다 內需가 더급할것이다。설사 중공의 수출이 증대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세계적인 무역확대에 좋은 영향을 줄것임에 틀림없다.

—中共의 공산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원리인 이윤추구경제가 잘 調和될것인가.

▼개방체제로 점차 변질해 갈것이다。이윤추구 경제원리가 실사회에 확산되기는 좀처럼 어려울것이다。10억의 인구를 잘 살게하기위한 중공의 近代化에 어려운점은 여기에 있다.

—中共이 近代化를 달성한뒤 중·소가合作할 가능성은 없는가.

▼없다。중·소의국경분쟁의 뿌리는 너무길고 깊다。이데올로기를넘어선 感情대립으로발전했다。중공은 이미 共産陣營에서 西方陣營으로 기울어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美·中·日의 友好協力은 東北亞 平和안정과 나아가서는세계평화에 크게 기여 하고있다。그런 의미에서 중공의 근대화는 성취돼야한다.

中共이 臺灣문제에 대해서 유연성을보이고 있는것은 4인방및 林彪추종자의 追放등, 內治의 효율성에서 비롯한것이라고 볼수있다.

—베트남의 무력침공과 인도지나 문제에 관해서.

▼공산월맹이 소련의 지원을받아 캄보디아에 무력침공, 東南亞에 不安要因을 안겨주고있다。자유서방진영은 단결하여 覇權主의는 반드시 실패한다는것을 입증해야한다。80년대 중반은 소련을 비롯하여 北韓등 共産陣營의 군사력증강으로 東北아시아에 불안요인이 계속 도사릴것이나 韓日의 우호협력과 集團綜合安保및 國際水平分業으로 이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해야한다.

貿易적자 放置못할 문제

「金正日세습」앞길險難…內治에묶여 밖엔 눈돗돌릴듯

開放체제로 轉換하는 中共, 貿易등 誇大평가는 禁物

蘇 軍事力증강 최대變數

勤勞시간연장 勞使협의로

노동부 通禁철폐 따른 手當등 시비없게

노동부는 야간통행금지 이후 각 생산업체의 공장가동 시간과 영세운수업체나 관광·서비스업체의 영업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임금이나 수당을 둘러싼 새로운 노사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근로감독을 강화、근로형태의 변화에 대처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7일 마련한 근로감독 근무강화지침에 따르면 사업체가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노사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하고 연장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교대제를 활용토록 권장한다는것이다.

노동부는 또 야간안전수칙 및 안전작업 요령도 제정、근로자들을 교육하고 야간 산재환자및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자진료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앙및 지방사무소의 노동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외에 야간근무조를 편성、노동동향을 파악하고 민원접수 및 경미한 사안은 전화로 처리해줄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야간근무근로자의 생활보호를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우범지대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고 변두리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는한편 귀가시간이 늦어지는데따른 교통수단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통금해제로 ▲운수업은 7만명▲건설·하역2만7천명▲제조업은2만2천명등 모두 12만명의고용증대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昨年 2만6천4백건 審議

公倫、국내歌謠改作·반려 3백여건

지난 한해 공연윤리위원회(公倫)의 심의를거친 각종 작품은 총2만6천4백30건에 달하며 이가운데 외국가요가 7천4백3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국내가요 악보(7천20건)와 가사(5천9백56건)、영화광고、쇼·음악회등 무대물、연극、영화등의 순이다.

公倫의 집계에 따르면 외국가요심의 7천4백30건중 팝송이 5천3백56건으로 클래식 2천74건에비해 갑절이 넘으며 반려된 외국가요곡 1백60건은거의(1백58건)팝송이다。반려이유는퇴폐가 40건으로 가장많고 다음이 외설28、불온24、저속8의 순이다.

주간女性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㉚

文化的 쇼크

7年만에 渡美…風俗달라 당황

아버지는 1933년 安息年을맞이했다。우리가족은 7년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이때 나는 서울 외국인학교 11학년이었다.

미국에 도착해 뉴욕시에 있는 한 사립고등학교에 편입했다。이곳에서 2년을 공부한뒤 뉴욕 헤밀턴대학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16세가되면 자동차면허증을 얻을 수 있다。나는 미국에 가자마자 면허증을 얻어 자동차를 운전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자동차로 운전연습을 했다。차를몰고 밖으로 나가는것이 허락되지않아 延禧전문학교 구내를 빙빙돌았다。한번은 동생들을 태우고 운전을하다 그만 한쪽 뒷바퀴가 개천에빠지고말았다。그날 저녁기도시간에 당시 여섯살이었던 세째동생 得漢은『하느님 아버지 형님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개천에 빠지면 하느님께서 끌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밀어주시어 쉽게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소서』하고 빌었다.

아버지는 이기도문이 가장진실된 내용이었다고 두고두고 칭찬했다。아뭏든 학교구내에서 가까스로배운 운전실력으로 면허증을 얻을수 있었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도착해서 나는 몇가지「문화적쇼크」라고 표현할수있는 체험을 했다.

여섯살때 처음 샌프란시스코에도착해서도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에게 구벅구벅 절을 한일이있는데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그버릇이 되살아났다.

아무에게나 인사하는 일은 금방 그만뒀지만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인 가정에는 어느집이나 요강등 소변기가 있지만 한국내 외국인 주택에는 양변기만 있을뿐 오줌만 볼수있는 소변기가 따로 없었다.

◇서울외국인학교 11학년시절에 앨범편집위원들과 함께. 앞줄 맨왼쪽이 필자다.

小便器 처음보고 옷살땐 別室서 입어보게해 놀라움

나는 소변기란 동양에만 있는것으로 단정하고 있었다。그런데 미국에 도착해서 호텔같은데에 소변기가 따로설치돼있는것을 보고 적이 놀랐다。서양에도 이런게 있었구나하고.

나는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간일이있다。그옷이 맞나 입어보기위해 나는 그자리에서 옷을 벗으려다 점원의 제지를받았다.

옷을 입어보는 별실로 가란는것이었다.

별실이없던 한국 백화점에서 하던 버릇이 그만「문화적쇼크」가 되고만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는 대륙횡단기차를 탔다。우리가 탔던 침대차의 차장이 흑인이었다.

나의동생은 한국에서는 못보던피부가검은 이사람이 누구냐고물었다。아버지는 인종차별의 거슬림을받을까봐 흑인이라는 말을 피하고『저분은 차장이다』하고 일러주었다.

그뒤 흑인이 트럭운전을하고있는것을 본 동생은『저 트럭운전사좀봐、차장이야』하고 소리쳤다.

우리가족이 뉴욕에서 살던 집은 그전 安息年때와 똑같이 브루클린에 있는 존·티·언더우드할아버지네 집이었다.

아버지는 그전 安息年때는 뉴욕대학에서 석사·박사학위를받고 延禧전문학교일로 에비슨박사와 미국내를 순회하는 일정까지 합쳐 3년을 머물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安息年이 1년으로 끝났다。모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도 나 혼자만이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미국에 남아야했다.

거 구 장

쇼 쇼 쇼

"거구장이 교민에게 드리는 구정 특별선물"

＊매력의 저음가수 **남일해**씨 토론토에 오다!!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일시 : 1월21, 22, 23, 24일(목, 금, 토, 일)오후9시~새벽2시까지
장소 : 거 구 장
주소 : 5 BETHRIDGE RD. (키프링×HWY 401 1블럭 북쪽)

전화 : 742―1618 이 한 영

新春文藝당선 戲曲

撞球놀이

李炫錫

<등장인물> 연 출
배 우 1
배 우 2
관 객

<장소> 이 극이 상연되는 극장
<시간> 이 극이 상연되는 바로 그 시간

극의 상연에 있어 [illegible] 극중의 여러 사건들이 현실 그대로인 것이 좋다는 사실이며, 예를들어 TV의 화면은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실재의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든가 혹은 대사에 나오는 배우의 이름이라든가 극단의 명칭, 극장의 위치따위가 사실상의 그것과 똑같이 이야기된다든가하는 것들이다. <연출>의 역할은 정작 공연날밤은 연출가가 한다든가 배우들의 발성은 관객들이 알아들을 수있으면 일상적인 대화체와 비슷하게 한다든가하는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될것이다. 따라서 대본에 등장하는 여러상황설명도 공연현장에 맞춰 그때 그때 변화할수있는 것이고, 관객의 현실적반응과 만나 배우의 판단에따라 여러가지 사실이 가미될수도 있다. [illegible] 것은 이곳이든지 공연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그것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이지, 대본의 [illegible]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막이 오르기전, 무대 前面에 연출이 등장하여 두손을 앞에모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연출: 여러분, 저녁들 드셨는지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現代劇團>의 첫번째 시리즈공연에 협조해주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실로 연극을 사랑하시며, 따분한 日常속에서 무언가 살맛나는 일을 이루어보겠다고 분투하시는 이 나라의 의식있는 일꾼들임에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현실극단>은 항상 관객여러분과 이시대의 고민을 함께하고, 같이 그 타개책을 모색해보며,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문제를 방관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동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뤄보려고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 저희 극단은 결코 외면하거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가장 첨예한 상처의 부위를, 정정당당하게 정공법으로 접근해가는 저희의 정신은 그러나 외롭다면 외로운 것이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상업적인 성공따위를 염두에 두고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의 작업을 일종의 사명감을 지니고 해왔던 것이며 거기에는 추호라도 불순한 상업적 의도따위는 개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희들의 작업이 비상업적인 것이라고해도 관객이 필요없지는 않은 것입니다.

아니 그럴수록 관객여러분은 더욱 귀중한 분들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시대를 개선해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저희들의 소박한 희망이 만족될수 있으려면, 보다 많은 관객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의 작업을 지켜봐주시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관객여러분들에 갈증을 느끼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저희들과 함께 고민하고, 저희들의 사고의 궤적을 좇으면서 희로애락을 함께 해주신, 적지않은 관객여러분들이 계심을 또한 잘 알고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내드릴 저희극단의 창작극 시리즈 여섯번째 작품인 이 <당구놀이>는 저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광스럽게도 만나뵈올수 있었던, 저희 극단의 말없는 후원자이신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저희들이 특별히 마련한 새로운 형식의 무대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태껏의 저희 작품들과 그 분위기의 氷脈는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이를테면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느끼고 호흡할수 있는 공동의 場을 형성해보자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여태껏 저희가 보여드렸던 작품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파악한 현실을 임의로 재구성하여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다소 일방적인 형식의 것이었읍니다. 그러므로 관객여러분께서는 어디까지나 한사람의 <구경꾼>에 불과하게되는 것이었죠. 물론 상연되는 작품이 실무대보다 훨씬 더 아프고, 생생한 내용이긴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잠시 말을 멈추고 관객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본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게될 이 <당구놀이>는 여러분을 관객의 위치로부터 진정한 동참자의 위치로 변화시키고자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이것이야말로 저희들이 그동안 부르짖어왔던 <올바른 공감대 형성>의 초석이 되는 길인 것이며, <시대의 아픔을 같이한다>는 저희들의 구호에 진정으로 부합되는 방식이 아닌가합니다. 따라서… 말이 너무 장황해지는 감이 있지만, 이제 한마디만 더하고 물러가겠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 숱한 서양의 액자식 무대가 그러했듯이, 무대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위화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illegible] 무대와 자유롭게 [illegible], 언제든지 무대위로 뛰어올라 여러분 나름대로 연극을 꾸미는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극은 따라서 저희들에 의해 [illegible]되는 그런 식의 일정한 줄거리가 없읍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무대위에서 만난다…는 기본골격이 있을 뿐이지요. 자유로이 무대위로 올라오시어 배우들과 함께 여러분의 세계를 표현해주시면, 그것이 곧 저희가 의도하는 연극이 되는 셈이 아니겠읍니까? 각설하고 오늘 저녁 누추한 작품이나마 잠시 부담없이 즐기실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연출의 소임은 다하게되는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럼…(인사를 하려다 멈칫한다) 참! 서둘다 보니 제소개하는것을 깜박 잊었군요. 용서해주십시오. 저는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은 이 아무개 올시다. (인사를 한다. 연출이 손뼉을 치면 막이 오른다. 연출 퇴장)

막이 오르면 무대의 가운데에 당구대가 놓여있고, 그 주위로 보통 당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구장 기구, 예를들면 다사라든가, 큐대라든가 [illegible] 같은 것들이 적당히 흩어져있는 것이 보인다. 당구대 곁에 TV가 놓여있고, 배우1과 배우2가 관객에게 등을 돌린채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있다. TV에선 조그맣게 소리가 흘러나온다. 배우1 의자에서 일어나 무대 앞으로 걸어나온다. 관객에게 배우1이 말하는 동안, 배우2는 여전히 등을 돌린채 앉아 TV를 보고있다.

배우1: 안녕하세요? (인사한다) 난 [illegible] 배우 소봇입니다. 방금 연출선생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이번 연극은 그야말로 아무런 가식없이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만나는데 목적이 있는 분이므로 저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두리대고 [illegible] 섰읍니다. (어색하게 손을 움직여 본다) 대본도 없고, 연출선생의 주문이 그냥 즉흥적으로 여러분과 공동의 장면을 만들어보라는 거뿐이기에 저희는 저희가 늘 하는대로 저녁을 먹고 이렇게 (TV를 가리킨다) 쓰잘데없는 TV를 보고있었지요. TV란 놈은 의례 그렇듯이 오늘도 그저 그런 [illegible]가 될 고 까불고 그러는군요. 사방도 저렇게 듣는 사람이야 아랑곳하든 말든 천방지축으로 열심히 떠들고있지않습니까? 참으로 건방지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놈이지요. 저는 TV 탤런트로 빠져나가는 몇몇 연기자들은 볼 때마다 참 한심하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어떤땐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까지하답니다. 도대체 아무런 반응도 들진 못하고 차갑고 무표정한 카메라 따위나 상대해서 무슨 감흥이 있을는지… (어깨를 치켜올린다) 글쎄요, 돈이나 벌자는 거라면 몰라도, 작자들 떼에는 그래도 큰자속은 남아있어서 무슨 예술적 의도가 어떻고, 보다 많은 시청자들을 접할 수있고 어떻고 지껄입니다만… 웃기는 이야기죠. 여하튼 이런저런 일로 낙담하고 세상사는 것이 점점 지겹고 삭막한 것으로 느껴지던 차에 이처럼 모든 가식의 의복을 훌훌 벗어던지고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저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는다. 다소 어색하게 보인다) 솔직히 두렵기도하구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던 끝에 연출선생의 허락을 얻어, 우선 이렇게 당구대를 하나 갖다놓았읍니다. 그래서 연극의 제목이 <당구놀이>가 된 것이지요. 이 당구대는 저 길건너 <특실당구장>에서 하루 만원씩 주고 빌어왔어요.

무턱대고 무대에 중뿔나게 혼자 서서 대화한[illegible]하고 지껄여대는 것 보다는, 그래도 무언가 분위기를 잡을만한 도구를 사용하며 서로 자연스럽게 만남을 터나가는 것이 좋지않겠어요? 그런데 미리 여러분의 양해를 얻어야할 것이 있는데…(소리를 낮추며 TV를 보고있는 배우2를 가리킨다) 저기 앉아있는 저 친구있죠? 지난번 <양산박>공연 때 도척역할을 했던 친구 말입니다. 저 친구가 문제예요. 저 친군 당구를 칠줄 모른다는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저 친구 이번공연의 발상자체를 우습게 보고있어요. 저 친구 말에 의하면, 뭐 우리가 하는것이 <기만적>인 사기에 불과하다나요? 차라리 그냥 무대 위에서 관객여러분과 같이 TV나 조용히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계속 연출선생과 다투고, 저와도 술 마시면서 격렬하게 싸운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 친구를 무대 위에 등장시키는 것을 상당히 걱정했는데, 연출선생 말씀은 저 친구의 얘기까지도 하나의 현실적인 발언인 것이니까 오히려 충분히 등장시킬 의미가 있다는것이었어요. 놓고 보니까 또 그도 그럴듯하더군요. 저희들이 관객여러분과 대화를 하자는 것도 뭐 반드시 [illegible]만을 기대하는것은 아니니까요. [illegible] (다소 [illegible] 바꾸며) 어때요, 거기분, 저랑 당구 한게임 하시지 않겠읍니까?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웃으며) 물론 그러실테죠. 참 [illegible] 하실테고 이서 무슨 미친 지랄인가 하고 짜증도 나시겠죠. 그러나 저희들의 저의는 이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여러분과 함께 무대위에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으로 하나의 연극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니까 너무 개념치마시고…(관객석의 한쪽을 막연히 바라보며) 어떠세요? 당구 얼마나 치세요? 어디 한번…이니, 뭐 그리칩니까? (또 다른 쪽을 쳐다보며) 이쪽분은 어떠십니까? 싸지 않은 입장료를 내시고 들어오셨으니, 아닌 말로 본전을 뽑고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저랑 한 게임 하실 분 안계십니까? (두리번거리며 관객들에게 계속 권유를한다. 이때 TV에서 눈을 돌려 그를 쳐다보는 배우2와 마주친다)

배우2: (냉랭하게) 그자들은 결코 그런 짓은 하려들지 않을걸.

배우1: 또 시작인가?

배우2: 내가 뭐랬는 말야? 저자들은 결국 TV를 보고싶어할 뿐이야.

배우1: 뭐라구? (관객들을 돌아보면서) 아무도 TV를 보지는 않잖아. 모두들 우리를 관심깊게 주시하시고 계신데…

배우2: (한층 냉소적으로) 글쎄. 그러니까, 내가 TV를 보고있듯이 저자들은 우리를 구경하고 있을 뿐이란 말야. 저자들은 보다 더 지리하고 초라한 우리의 TV드라마를 보며 그들의 안락한 지적 허영심을 만족시키기위하여 여기에 와있는거야. 그들이 무엇때문에 고생하며 이렇게 후미진 무대에까지 올라오겠어?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저렇게 도사리고 앉아 눈을 요렇게 뜨고 구경만하려들겠지.

배우1: (관객을 보며 그렇다는듯 어깨를 으쓱해보인다. 다시 배우2에게) 그래, 너는 정말 그렇단 말이야? TV만 봐야겠어?

배우2: 오늘만은 시청자로 머물고싶어. 그래서 이 너절한 드라마를 느긋하게 감상하고 싶을 뿐이야. 난 탤런트가 아니니까.

배우1: (조금 화가 나서) 뭐? 흥, 그럼 지금 네가 하고있는 이 짓거리가 연극이 아니란 소리야?

배우2: 난 내가 하고싶은 소리를 하고있을 뿐이야.

배우1: 웃기고 앉았네. (배우2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난 내가 하고싶은 소리를 하고있을 뿐」이란 소릴 그처럼 연극적으로 읊어대지말란 말야. 연출선생이 뭐라그랬어. 이번 연극은 대본이…

배우2: (냉소적으로) 없다.

배우1: 당구를 치며

배우2: TV프로그램을 진짜로

배우1: 관람하며

배우2: 구경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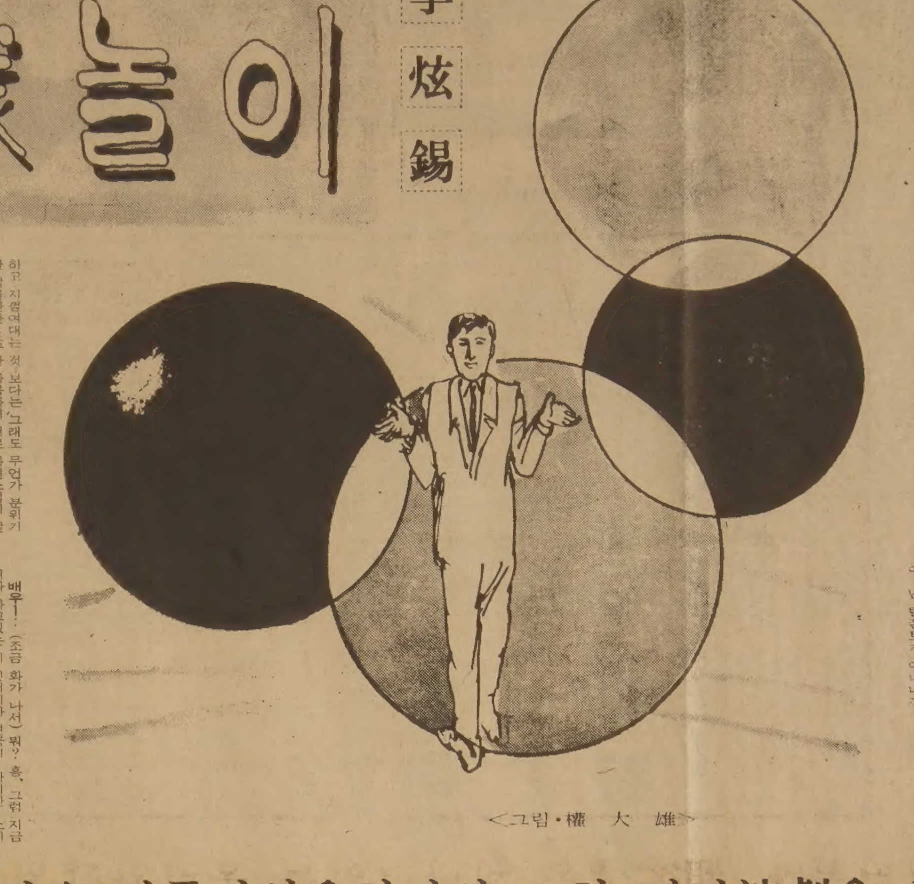
배우1: 그러는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배우2: 가능한한 관객들을 피해서

배우1: 가능하면 관객의 참여를 유발시켜

배우2: 같이 연극을 하고

배우1: 같이 당구를 치고



<그림·權大雄>

"平時와 똑같은 당구게임을하면서 또한 멋진演劇을 하는 兩手兼將놀이를 하는거죠"

배우2: (어조를 바꾸어 [illegible]) 어쨌든 저자들은 당구를 치지않을걸! [illegible] …울거야. 저들은 돈을내고 들어와서 흥미진진한 [illegible] 연극을 감상하고 무언가 의미를 캐보기 위해서 여태껏 모든 연극관객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렇게 무게를 잡고 앉아있는 것이야.

배우1: (단호하게) 저분들은 당구를 치실거야, 두고봐.

배우2: 우리처럼 늘 거짓된 표정과 목소리로 밥을 벌어먹는 저분들이 왜 구태여 여기까지 와서 또 한번 거짓된 연기를 하려들겠어?

배우1: 내기를 걸까?

배우2: (다시 TV를 보며) 마음대로.

배우1: (관객을 보면)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지요? (배우2에게) 더 나중에 딴 소리하기 없다. 그래 뭐 내기할까?

배우2: (무관심하게) 아무거나.

배우1: 자신만만하시구만. 이것 좀 봐. 저분들은 무엇보다 연극관객이시란 사실을 알아야돼. 그러니까 연극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자신을 그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분들이란 말야.

배우2: 흐름이라구? (혼잣소리로 중얼거리듯) 그 따위 달콤한 소리에 속아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지. 무엇보다 저사람들은 生活人이니까.

배우1: 그래, 생활인이시지. 너랑 나랑이 다 생활인인 것처럼.

배우2: 또한 간사하기도하고.

배우1: (관객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소리를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목소리로)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친구와 내기를 한 것입니다. (배우2에게) 참, 무슨 내기였지?

(배우2 대답없이 TV만 쳐다본다)

이놈은 내기를 한 것입니다. 저 친구는 여러분의 인식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않고 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친구의 저 오만불손한 언동을 시원하게 쳐부셔 주실 분은 안계십니까? (객석에 앉아있는 한관객을 가리키며) 어떠세요? 협조 좀 해주시겠어요?

관객: (놀랐다는듯) 저요?

배우1: (안도의 목소리로) 그럼요. 보아하니 근골이 좋으시고 아주 호걸같이 생기신 분인데, 어떠세요? 당구치세요?

관객: (얼떨떨해서) 당구라면 저도 조금 칩니다만…

배우1: (좋아서 어쩔줄 모르겠다는듯) 아이구, 이것 정말 이제 되었군요. 그럼 제발 (절을 꾸뻑 한다) 이리 좀 올라와 주세요.

관객: (주위를 돌아보다가) 이거, 참…

배우1: (다시 서둘러 절을 한다) 어서…(관객석으로 통한 계단을 거의 내려갈듯 부산을 떤다)

관객: (어색하게 일어나서 멈칫거리며) 이거, 참…

이때 배우2 TV를 보고있던 고개를 돌려 <관객>의 얼굴을 쳐다보고 다소 놀란듯한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의자를 고쳐 배우1과 <관객>쪽을 보고 앉는다. <관객>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 배우1과 <관객>은 어색한 악수를 교환한다. 여전히 <관객>은 어색한 모습이다.

배우1: (반가와서 손을 잡은채) 저는 이미 많이 들으셨지만 김도라는 삼류배우입니다.

관객: (뭐라고 웅얼거리며 자기 소개를 한다)

배우1: (당구대 근처의 점수판으로 가며) 얼마나 치세요?

관객: (무대 한구석에 어색하게 서있다가 무대 위쪽에 설치된 조명시설을 신기한듯이 바라본다) 한… 서른점… 좋습니다만…

배우1: 점수판에다 서른점을 올린다.

관객: (당구대를 만져보며) 이거… 참… 똑같군요.

배우1: (열광적으로) 그럼요! 바로 진짜 보통 당구대인걸요! 지금 여기서 저희는 평상시 우리가 흔히 치는것과 똑같은, 그러한 撞球게임을하면서 또한 멋진 한편의 연극을 연출하게 되는, 그야말로 양수겸장의 놀이를 벌이게되는 것입니다.

관객: 멋진… 연극… 이라. 이렇게 (두손을 내보인다) 어색한… 몸짓으로…

배우1: 그렇요, 얼마나 리얼합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계신것은 무대에 처음으로, 그것도 느닷없이 올라오게된 관객의 어리석고 계면쩍어하는 몸짓 바로 그대로가 아닙니까?

관객: (항변조로, 그러나 힘없이) 사실… 바로 그대로…가 아니겠지요. 저는 지금 무슨… 흉내를 내고있는 것이…아닌걸요.

배우1: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명연기가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연기를 의식하지않고 현실 그대로 행하는 자연스러운 연기, 이거 정말 멋있는 일대 명연기가 아니겠어요? 자, 이것 받으세요. (큐대를 건네준다)

관객: (큐대를 받아 자세를 취해본다. 점수판을 보며) 서른…점… 놓으시는군요.

배우1: 네, 이번 연극을 위하여…(장난스럽게) 당구장 출입을 자주하다보니까 늘더군요.

관객: (자세를 풀고 관객석을 본다. 망설이는 기색) 이것, 아무래도 (웃으며) 우스꽝스러워서…

배우1: 바로 그 우스꽝스러운 감정! 그것이 진짜인거예요! 훌륭합니다! 이건 바로 현실 그 자체예요! (객석을 보며) 여러분 어떠십니까? 훌륭하지않아요? (동작을 하면서 말하기 시작한다)

<9面으로 계속>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4>

朴婉緖 作
金光培 畵

한 옛날에 ④

수지는 은행원 한남석씨의 일남이녀중 가운데였다. 오빠 수철(秀哲)이는 한참 위였지만 동생 수인(秀仁)과는 두살 터울이었다. 수인은 수인이란 이름보다는 「오목이」란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었다. 삼대독자인 한남석씨는 맞선 볼때 여자의 얼굴보다는 엉덩이에 먼저 눈독을 들일 정도로 다산성(多産性)의 아내를 원했던 만큼 자기대에서 자손을 크게 번창시켜야 한다는 특별한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첫아들을 낳고 팔년만에 겨우 수지는 그런대로 반가왔지만 한해 걸러 또 딸인데는 실망이 컸다. 이름도 안짓고 출생신고도 안하고 내버려두면서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둘을 함께 신고하면 된다고만 말했다. 이름 없는 딸은 오목조목 예쁘게 자라 엄마가 먼저 오목이라고 불렀고 어느 틈에 식구들이 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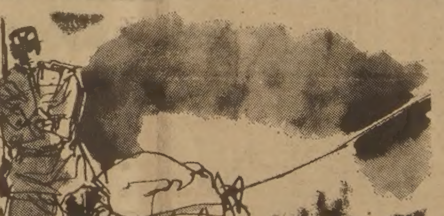
오목이는 네살때 비로소 수인이란 이름을 얻어가지고 한남석씨의 이녀로 호적에 올랐다. 한남석씨가 그의 호적에 이남 대신 이녀를 올리는 치욕을 감수할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목이가 네살이 되도록 아우를 못 본 까닭도 있었지만 가족수당이 빠져 그만큼 봉급에서 손해를 보기때문이었다. 대대로 검약한 가풍에 이재(理財)에도 밝아 한남석씨는 알부자로 소문나 있었다. 한남석씨는 이런 소문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서 남보기에 어렵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러나 그럴수록 알부자란 소문은 번져가고 구두쇠 알부자라는 극단적으로 강조된 소문이 오르내릴 뿐이었다.

한남석씨가 자신이 알부자로 소문 나는데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 6·25가 나서 세상이 살벌해지면서 알부자가 반동분자로 둔갑하는 것에도 속수무책이었다. 그 [illegible] 은행대리라면 사회적 지위로 봐서 결코 남을 앞질렀다고는 볼수 없었다. 한남석씨로서는 오히려 남에게 어려던 양보하고 밀려왔다는 남모르는 열등감마저 품고 있었다. 그러나 알부자라는 건 그 세상에선 곧 악질적인 착취 행위의 결과임을 면할수 없었다. 그는 그들이 부드러운 미소의 가면을 쓰고있던 동란초기에 이미 악질반동의 낙인이 찍혀 붙들려가서 매맞고 풀려나기를 여러번 되풀이 당했다. 다만 연명만이 기적같은 나날이었다. 그러다가 전세가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불리해지고 그들이 드러내놓고 그악스러워지면서 또 다시 붙들려간 한남석씨는 돌아오지않았다. 알아볼 만한 그들의 기관은 이미 불타거나 철수해서 없어진 뒤였다. 한남석씨는 감쪽같이 없어졌다. 세상의 종말처럼 시뻘겋게 물티는 하늘을 우러러 고단식하는 게 남은 식구들이 할수 있는 일이었다.

한남석씨가 맞선 보고 첫 눈에 다산성이라고 점 찍은 한씨댁은 남 보기엔 다산성이면서 실상은 그렇지도 못한 여자가 한용 그럴듯이 무던하기만하고 뱃힌데도 모진데도 없는 여자였다. 올망졸망한 어린 것들을 데리고 혼자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저절로 죽어지기 전에 목숨을 끊을 만한 열녀적인 독기가 있는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석달동안에 겪은 일을 도무지 이해할수 없었으므로 그저 꿈이었으면 하면서 꿈결처럼 몽롱하게 꿈속처럼 책임 없이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그들의 세상이 끝났건만 한씨댁의 악몽은 끝나지않았다. 그녀의 악몽은 그녀의 자구책(自救策)같은 거였다.



컨트리뮤직 人氣폭발 힙입어 歌手들 출연신청쇄도로 비명

◇돌리·파튼

로큰롤에 눌려 침체일로에 있던 컨트리뮤직이 80년대에 접어들어 그 인기가 폭발하자 컨트리가수는 쇄도하는 출연신청에 즐거운 비명인가하면 레코드계도 신나게 디스크를 찍어내고 있다.

지난 5년간 컨트리레코드 판매실적은 거의 배로 늘어 80년 한해에만 5억2천6백만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는 미국내에서 팔리는 매7개의 앨범중 하나는 컨트리뮤직인 셈. 따라서 대표적인 컨트리가수 윌리·넬슨, 돌리·파튼, 케니·로저즈등은 TV, 영화, 라스베이가스의 쇼룸에 출연하느라 눈코 뜰새가 없고 컨트리의 메카 내시빌을 찾는 순례자들의 수가 연간 7백50만명에 이르고있다.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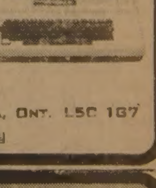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특별세일(매출)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8面에서 계속〉

어떤 관객이 망설이다가 무대 위를 쳐다보고, 쳐다보는 시늉)이윽고 마음을 굳힙니다. 그리고 엉거주춤 일어섭니다. (〈관객〉이 했던 동작을 그대로 흉내내며) 배우가 서있는 무대를 봅니다. 무언가 겸연쩍은 기분과 호기심이 가슴속에 물결칩니다. 결국 무대로 올라갑니다. 이윽고 (〈관객〉을 가리키면) 무대에 올라섰읍니다. 그러나 결국 달라진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냥 평상적인 그의몸짓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연극적인 연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큐대를 가지고 당구공을 밀어봅니다.

늘 하던 그대로 말입니다. (〈관객〉에게 당구를 치라고 손짓한다. 〈관객〉당구공을 가볍게 밀어보낸다) 자! (만족하여 관객들에게 두팔을 벌려보이며) 이제 남은 것은 게임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 그리고 두런두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아…이 완벽한 연기와…그에 못지않은 멋있는 연출…연극이 그대로현실이 되고 현실이 그대로 연기가 되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공간의 아슬아슬한 가운데에서 서로서로 몸을 섞는…연기가…현실이고…현실이…연극이고…

관객: (조금 대담해져서) 이제 치시야죠.

배우1: (깜짝 놀라서) 네? 아, 아 이거 제가 너무 흥분했군요. 선생님께서 너무나 멋있는 장면을 연출해주셔서 그만 나도 모르게…그런데…참…몇점치셨어요?

관객: (웃으며) 한점도 못쳤어요. 초구를 못맞했어요.

배우1: 그렇군요. 이거… 그럼… (당구치는 자세를 취한다)

관객: 저…그런데…

배우1: (잔뜩 자세를 취하다가, 자세를 풀며) 네? 무슨…

관객: 이렇게…계속…당구를 치는 겁니까?

배우1: 그럼요. 우린는 지금 〈세모〉洞의 〈네모〉劇場의 무대에서 撞球를 치는 연극을 하면서 계속 진짜 당구를 쳐나가게되는 것이지요.

관객: 그러나…아무래도…

배우1: (자세를 완전히 풀고, 답답하다는듯이) 아무래도?

관객: 관객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 하실지…

배우1: (웃으며) 아따, 선생님. 이제보니 의외로 숫기가 없으시구만. 말씀드렸듯이 우린 지금 초유의 명연기를 하고있는 것이니, 관객여러분께서 불만스러울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관객: (멍청하게) 그러면…계속…

배우1: 1구를 친다. 게임의 구칙에 맞춰 배우1과 〈관객〉은 번갈아 당구를 쳐나간다. 쳐나가는 도중 게임의 방향에 따라 적당한 얘기를 주고받는다. 예를 들면 〈저런 쫏쫏…〉〈나이스 큐〉〈몇점 쳤어요?〉등등. 게임은 배우2가 갑자기일어나며 고함을 지를 때까지 적당한 시간 계속된다.

배우2: (자리에서 일어나며 격렬하게 무언가를 발견했다는듯)이제 알았다! 알어먹음, 이제 알았어! (관객석을 보며 폭로하듯) 아시겠어요? 아, 들튼 눈치빠른 분들은 이미 알았겠지. 그런데 나는 여태껏 뭘 쳐다보고 있었는지 모르겠군. 거짓말장이들 같으니라구.

배우1: (게임을 중단하고 화가 나서) 왜 또 그래? 연극이 너무 잘되어가니 화가 났어?

배우2: (듣은채도 않고 관객들에게) 내가 속았던것은 저 관객석에 앉아있다 뛰어나온 친구가 생판 처음보는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지. 적어도 우리 극단 주변에 얼씬거리는 거라면 비루먹은 강아지새끼라도 다 낯이익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저친군 도대체 본적이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친구가 진짜 관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그렇지만 저친구, 어딘지 모르게 냄새가 좀 나지않아요…?

배우1: (당황하여) 자네…어쩌자고 이러는거야…

배우2: 시끄러워! 할말은 해야겠어. 이제 네놈은 더 지껄일것이 없을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짓거린가말야. (다시 관객들을 보며) 저 낯선 친구의 동작이 너무 능숙해보이지않아요? 물론 신출내기 티가 보이기도 합니다만…그러나 어딘가 무대물을 좀 먹어본듯한 느낌이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작자들은…(분연히 소리친다) 나를 속이고, 여러분들을 속인거예요. 어쩐지 그동안 쑥덕공론이 많다했더니…저친구 보나마나 어느 대학극이나 워크샵공연같은데서 빼내왔겠지.

관객: (놀라서) 내가?

배우2: 그러고선 내가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려고… 아니 관객들까지 싸잡아서… (관객들에게 호소하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하고있는 짓이라는 것은… 현실적이고 연극적이고 공간대가 어떻고 아무리 나불거려봐야 다 작가의 대본에 써진 것을 복창할 뿐인 어릿광대짓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진짜 당구게임과 똑같이, 아무리 당구를친구 법석을 떤다고해도… 역시… 그들이하는 짓은 작가가 써놓은… 그대로…의 흉내에 지나지않는 것입니다.

관객: (참을수 없다는듯, 기가막혀) 뭐라고요? 내가 뭐 배우라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있다고? 기가 막혀서.

배우1: 참으세요. 저 친구 말이 거짓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겁니다. (관객들에게) 여러분, 아무래도 저 친구를 무대에 내세운 것이 잘못인것 같아요.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젠 또 저렇게 되지않은 소리를 하는군요. 우리가 해온것이 대본에 있는 그대로라면 도대체 지난번 낮공연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내일 모레 공연을 해갈수 있겠읍니까? 아마 다음 공연 때 모르긴해도 이분은 오시지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 친군…

배우2: (말을 가로막으며) 저 뻔뻔한 얼굴들을 보세요. 답답하다는듯 주장하고있는 저 친구들의 얼굴들을 좀 보세요. 그러나 실상은 굉장히 초조한겁니다. 사실 저친구들의계획은 이러했을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무대한쪽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연출이 그럴싸하게 연극의 취지를 늘어놓아 당신들에게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관객석에앉아있던 배우가 〈관객〉을 가리킨다) 무대위로 올라갈때 전혀새롭고 현실적인 연극이 벌어지는듯한 착각을 갖게합니다. 그 착각은 같은 배우인 내가 어리둥절해하는 꼴을 보게되면 더욱 심화됩니다. 그래서 무대위에서 벌어진 이런짓거리가 바로 현실자체라는것을 여러분께 〈주지〉시킵니다. 아마 대강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저들이 하고있는 짓거리란 잘해야 정통적인 현장극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배우1: (당황한 채로) 연설하고 있네.

배우2: (절실하게) 나는 이러한 짓거리들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흉내를 내기싫다 이겁니다. 무대 위에서 아무리 이런 지랄을 해봤자, 그것은 하나의…아아…흉내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이…나를…얼마나 절망시키는지…(머리를 움켜쥐며 무대를 왔다갔다 한다)나는 저 저잣거리의 푸주간 주인이 부르는 노랫소리라든가, 절필한 詩人의 고뇌, 혹은 밤무대에 서는 쭉팔이 가수의 거칠은 육성이라든가…양산박 도적들의 남자다운 몸짓…아아…진정으로 절실한 생활을 하고 싶은거예요…(팔을 내리고 관객들을 보며 외치듯이)그러나 여러분, 어디서건 나는 그저 연극배우의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흉내만 내다 그칠거라는 생각이 밤낮으로 나를 괴롭히는군요. 그렇다고 뭐 나를 동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화가나서) 당신들이 도대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당신들은 늘 극장에 와서 거짓스럽게 연기하는 자들에게 돈을 보태주며 짐짓 감동하는 체하곤 하지 않았나 말야?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당신들 자신이 바로 그처럼 위선적인 연기로써 세상에서 벌어 먹기 때문이지. 제기랄!

배우1: 배우2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잡는다. 〈관객〉은 그동안 놀란듯이 서있다.

배우1: (속삭이듯) 자네 왜 이러나?

배우2: (듣지않고) 지금 내가 하고있는 이런 하소연까지도 연극쟁이의 흉내외에 아무 것도 아닌지 모릅니다. (어깨에 놓인 배우1의 손을 뿌리친다) 〈세모〉洞의 〈네모〉劇場에서 1980년 ×月×日에 이러한 연기를 하고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연기일 뿐일까요? 이렇게 연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현실속에서 벌어지는 나의 진짜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배우1: (안되겠다는듯이 서둘러서 관객들에게) 선생님들, 이것 참못하다가 저희들의 진의가 완전히 왜곡되어버리겠는데요.

저 친구가 너무나 능숙하게 연기한 나머지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우리의 이모든 짓거리가 대본에 적혀있고, 우리는 그것을 글자하나 틀리지않고 연습하여 반복해내는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하시고계실지도 모르겠군요. (뭐라고 말하려는 배우2를 제지시키며)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대본따윈 가지고있지 않아요. 저 친구가 말하는 것은 진짜 자기가 여기서 독창적으로 지껄여대는 것이지, 애당초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없이 있는 그대로, 이러한 연기를 보여드리는것인데…

배우2: (배우1을 밀치며) 나는 지금 연기하고있는 것이 아냐! 이건 농담이 아니란말야, 빌어먹을! 도대체 이게 무슨 노릇이람! (의자로 가서 절망적으로 주저앉는다. 그때까지 혼자서 방영되고있던 TV를 거칠게 끈다. 그리고 머리를 싸쥐고 절망적인 포즈를 취한다)

관객: (무대 전면에 서있는 배우1 쪽으로 걸어나오며) 괜찮을까요?

배우1: (생각에 잠겨서 건성으로) 뭐말이요?

관객: (배우2를 힐끗 보며) 저분 말입니다.

배우1: 괜찮을거예요. 어차피…연극인데요 뭐.

관객: 연극이라구요?

배우1: (정신을 차리며) 아, 아니… 저 친구가 그러니까 지금 엄살을 부리고있다는 말입니다.

관객: 그래도 저분 말씀은 꽤 절실하게 들리던데요.

배우1: 아, 물론 절실한 이야기였죠. 그러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 친구도 지금 연극을 하고있는 것이니까…

관객: (의심스럽게) 연극…을…요?

배우1: 그렇죠. 저 친군 절실한 얘길 하고싶어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하나의 흉내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올라오면 결국 모든 것이 흉내에 불과한 것이 되죠.

관객: 그렇다면…나도…연극을 하고있다 이겁니까? 예? (잠시 멍하니 서있다가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다)

배우1: (답답하다는듯) 글쎄 그렇다고 벌써 몇번을 말씀드렸어요?

관객: 그렇지만 (자신을 보며) 지금 저는 이렇게 당황하여 어쩔줄 모르고있는데…

배우1: 글쎄, 그게 그렇다니까요.

관객: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도 안돼!

배우1: (여유있게 웃으며) 왜 말이 되지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연극을 하고있는 사람이 우리뿐일까요? (〈관객〉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저 관객여러분들을 좀 보시지요. 저 구석의 붉은색 양복 입은 남자분과 그 옆의 여자분, 또 행여 뭔가를 놓칠까 눈을 반짝이며 주간잡지 읽듯이 우리를 읽고있는 저 여대생아가씨들을 좀 보세요.

戲曲 審査評

◇한국新春文藝 戲曲부문 심사를맡은 韓相喆씨(右)와 吳泰錫씨。

豫選통과작 10편 모두 말浪費 심한편
「撞球놀이」무리없고 재미있게 劇유도

말로 만들어지는것이 희곡이다。따라서 극작을 하려는 정신가운데에 말을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정확한 말을 골라쓰는 노력이 많이 요청된다。活字로 머물러있는 말이아니고 肉聲을통해서 움직이는말이기 때문에 자칫 소홀히여서 크게 뜻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을것이다。

예선을거친 10편의 작품이 대체로 말의 낭비, 부정확, 구어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바른말로 의견을 제시해야 될줄로 안다。

10편 작품가운데 「맹인들」은 상황제시가 무난했으나, 결말에 이르러 작위성이 지나쳤고 「우물안 개구리」는 상당히 연극을아는 듯 해보였지만 기교에치우쳐 내용이 비어버렸고 「유세차 모년 모월」도 말의 낭비가 심하다는 점이지적되어 선에 들지 못했다。

위3편에 비해 「당구놀이」는 공간、시간을 처리하는 솜씨가 무리가 없고 보여지는 劇과 숨겨져있는 劇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면서 劇이 만들어지는 재미를 얻고 있다。

공연이 될 경우 두 배우의 성격을 좀더 띄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韓 相 喆
吳 泰 錫

當選所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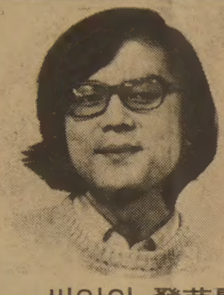
〈航海日誌〉

분도기를 들고 심전도측정기에 나타난 파동의 각도를 재었을 때
갑자기 공식이 떠오르지 않았다
世上의 끝을 보고오라하신
항해왕페하의 尊顔이 떠오르지 않았다
오늘도 좋은 날씨
늙은 노예 둘이 굶어죽었고
水夫 조썹이 삼각돛을 고치다 바다에떨어졌다
김교수는 「세계醫工學저널」에 보낼 논문을 재축했고
靑고래는 등판에서 물줄기를고요히 뿜어대고있었을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않았다.

새 한마리가 하루의 마자막 날개짓을 향하여 날아오를 때
나는 時間의 움직이는 무덤인 태양을따라 갔다
쓰레기처럼 그립자를 만들며 가다가
손수건을 가슴에 단 꼬마들을 만났다
시작이 좋아야된다고 그러지만
그들의 幼年은 내게도 있었다
十字砲火를 익힌 무렵, 매앞매얼이 달라져보이던
그러한 幼年은 내게도 있었다
요절이나 속환을 위해 걸어가던
菩石사이의 步行은 내게도 있었다

農夫여, 조금 늦거나 이룰 뿐인 每年의 발아를위하여 씨앗 곁에서 잠아먹은 그대의 時間을 허망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아 그러나 農夫여 그대는 이제 안다,
그대의 영토는 쌀알까지뿐이고 저 아른거리는 언덕의 너머에는 밀알 먹는 紅毛人들의 都市가 웅성대고있음을

보살펴주신 盧灵植선생님과 뽑아주신 심사위원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씨앗의 發芽를 기다리는 農夫처럼…

〈李炫錫 약력〉
▲1959년=釜山影島出生
▲1971년=釜山 影島國民學校卒業
▲1981년=서울大學校 人文大學 英文學科卒業
현재 동 大學院 在學中

"劇을 열심히 鑑賞하고 있는 여러분도 觀客役을 해내고있는 우리와같은 俳優일뿐"

(손가락질하며 관객들을 이리저리 가리킨다) 저분들은 어디 연극을하시고있지않는줄아세요. 아니에요. 저분들은 저분들 나름대로 저렇게 아무말없이 관객석에 앉아 충실한 관객의 역할을 해내고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얼마나 진짜 관객 같습니까? 선생님께서이리로 올라오셔서 어리둥절한 관객의 모습을 충실히 연기해주신 것과 같이, 저분들은 함부로 무대위에 뛰어올라가지않고 얌전하게 자리에 앉아있는 관객의 연기를 해주시고있는 겁니다.

관객: (어리벙벙하여) 그렇다면 저들이 다 배우란 말인가요?

배우1: (당연하다는듯이) 그렇죠, 배우죠.

관객: 네? 저사람들이 모두 배우라구요?

배우1: 그럼요. 우리가 배우인 것처럼 저분들도 모두 배우인 것이죠. (관객을보며) 네? 배우가 아니라구요? (웃으며서) 천만에요. 선생님들께선 지금 저희현실극단의 연극에 자신도 모르게 참가하셔서 충실한 관객의 역할을 해내시고 계신겁니다. (관객석의 한쪽을 바라보며) 뭐? 싫으시다구요? (웃으며 느긋하게)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일어서서 한번 퇴장해보시지요. 그리고 컴컴한 골목을 지나 종로네거리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연극을 보다가 중간에 퇴장하여 집으로 가고있는 성난 관객의 역할을 하고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퇴장하시지않고 연극을 끝까지 다보았다고해도 일은 마찬가지겠지요. (어깨를 으쓱해보인다) 그때도 선생님은 역시 연극을 끝까지 다보고 귀가하는 관객의역할로 우리를 도와주시는것이 되는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관객: (멍청하게)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저는…여하튼 이제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이미 당구 칠 시간은 지난 것 같으니까…(멈칫거린다)

배우1: (득의만만하게) 네。어쨌든 우리는 훌륭한 한편의 연극을 완성한 셈이니까요… 저친구(배우2를 가리키면)가 중간에 방해를 하지않았으면 더 좋은 연극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나저나 중간에 갈등도 있고, 격렬하게 부딪치는 장면도있고 하였으니 오히려 저 친구에게 감사를 드려야할지도 모르겠군…

배우2: (쪼그린채로) 그래. 감사를 드린다고?

배우1: (부드럽게) 그래. 감사를 드리고싶다.

이때 〈관객〉, 눈치를 살피면서 하단하여, 원래 그가 앉았던 자리에 가 앉는다. 배우2 머리를 들어 배우1을 본다. 배우1 씩 웃어보인다.

배우2: (천천히)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배우1: 그래. 너는 썩 훌륭히 해낸거야.

배우2: (비꼬듯이) 해낸거라고? 잘 해낸거라고? 이래도? 자, 이래도? (품속에서 〈당구놀이〉라고적힌 대본을 끄집어 낸다) 이래도 해낸거라고 말할텐가?

배우1: 낯빛이 변한다. 배우2 대본을 관객들에게 보여준다.

배우2: 여러분。어차피 이판사판입니다. 나는 배우노릇에 질려 이제 작파해야겠어요. 진짜 잘할수도 있었는데… 저 친구가… 자꾸 약을 올리는군요.

사실 여태껏 제가 한 말이라든가 저 친구 (관객석의 〈관객〉을 가리킨다) 가 했던 짓이라든가 이친구 (돌아서 서있는 배우1을 가리킨다) 가 지껄인 쓰잘머리없는 소리라든가 다…이 현석이라는 작가의 〈당구놀이〉란 대본에 쓰여있는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하기싫어 이겁니다. 이 대본에 적힌 그대로, 또 내가 아까 지껄였던 그대로 나는 푸주간주인의 노랫소리라든가 절필한 시인의고뇌라든가 도적들의 앤국층청 따위를 진정으로 생활하고 싶은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그러므로 진짜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연기를 하는것이 아니에요. (배우1에게 능글하게 웃어보인다)

배우1: 거짓말하지마. 너의 그이야기까지도 다 대본 속에서 지시된 것일지도 모른다는걸 관객들은 다 아실걸。

배우2: (웃으며) 후후, 말하자면 나의 칼로 나를 치는것인가? 웃기지 좀 말게. 그나저나 이제 나는미련없네. 어때, 그래도 내게 감사할건가.

배우1: (평정을 회복하여) 물론이지. 자네의 그 느닷없는 헛소리가 연극의 마지막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으니까. (뒤를 보며) 야! 막내려. (배우1 관객에게 인사한다. 막이 재빨리 내린다)

연출: 막을 들추며 등장.

연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미있게 감상하셨는지요. 하, 감상이라면 어폐가 있군요. 뭐랄까… 같이 흥분하고 즐기시고하셨는지요? 어때요? (앉아있는 〈관객〉을 보고) 흥분하셨어요?

관객: (뭉땅스럽게) 모르겠소. 어쨌든 이거 너무 심하지않소?

연출: (웃으며) 아니, 정말 배우가 아니시오?

관객: 아니라니까 왜 말이 이렇게 많소?

연출: 그런데 배우 한사람은 당신이 대학극 출신인지 모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관객: 미친 소리요. 또 한사람은 아니라고 그러진 않았소. 어쨌거나…

연출: (계속 추궁하듯) 어허…그 사람도 끝에는 모든게 다 대사에 나와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듯했잖아요…그러니…

관객: 난 모르겠소. 아니라면 아니랄밖에.

연출: 그좀 해둡시다. (관객에게) 하여간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재미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덕분에 충실한 관객의 연기들도 해보시고…귀가하셔서는 연극보고 돌아온 남편과 아내 혹은 아들과딸의 역할을 계속해서 연기하셔야죠。자, 여러분의 현실적연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저희 극단의정기공연〈당구놀이〉를 마감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연극의 대본이 어디까지인지 잘모르겠군요. 단지, (웃으며) 이것 하나만은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대본에 없다는것, 바로 이사실 말입니다.

연출 인사하고 퇴장. 불 켜진다. 〈관객〉은 관객과함께 섞여 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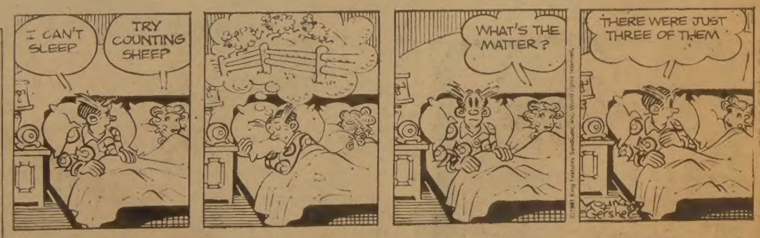
구독신청은 533-2361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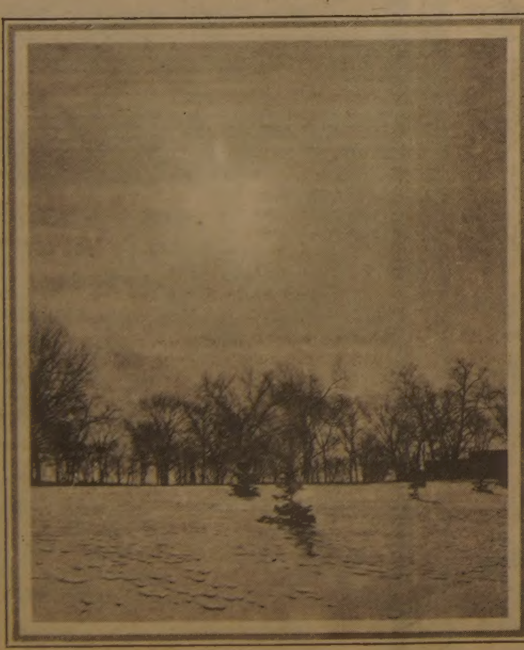
"마누라들이란 이렇게 하찮은것도고마와 하거든"
"당신은 어째서꽃을사다줘도 고맙다는 말을 안하지?" "무슨꽃 말예요?"
"내가모자하고 코트를 걸면서 이걸마루벽장에 두고왔죠"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잠이 오지 않아" "양을 세어 보도록 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양이 세마리 밖에 없어"



謹賀新年

TO ALL OUR CUSTOMERS
Wishing you good hearth,
happiness and prosprity for 1982
Happy new year!

中國良藥·大量供應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977—8858～9

우리의理想은●全한新聞

企業활동 規制규정 풀겠다

劉總理서리 經濟단체代表에 밝혀

經濟의 民間주도移行 지원

기업經營 自由분위기 保障

劉彰順국무총리서리는 6일하오 鄭壽昌대한商議회장등 경제단체대표들로부터 취임인사를받고『앞으로 정부는 현재기업활동을 규제하고있는 모든규정을 검토、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劉총리서리는 또『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정부의통제도 주는등 경제활동이 民間主導로 빨리 移行될수있도록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앞으로는 기업이 기업활동에 대한 모든책임을지고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자율적으로 기업운영을 해나가도록 정부가 적극지원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4단체대표들은 금년에도 물가가 10%線을넘지않을것으로 전망하고『業界의 실정을 잘아는분이 총리직을 맡아 기대가크다』며『앞으로도 자주 만날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劉총리서리와 경제단체대표들과의 대담은 약40분동안 진행됐다。

企劃院에 黨政협조機構설치
金副總理밝혀

金埈成부총리는 6일『경제기획원 안에 黨政협조專擔기구를 만들어 民正黨의 실무책임자와 빈번한 접촉을갖고 黨의 의사를 수렴、국가정책에 반영시키겠다』고말했다。

金부총리는 이날 신임인사차 民正黨을 방문한자리에서 李載灐 民正黨대표위원이『黨政협의는 경제기획원과의 관계가 가장많은만큼 긴밀한협조가 있어야한다』고 당부한데 대해 이같이말하고『주요문제는 정책立案과정에서 사전에 黨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金부총리는 또『작년에는 국내경기가 기대만큼 좋지않았으나 수출경기는 좋았다』면서『금년에는 수출경기가 국내경기에 영향을 주어 국내경기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작년 상반기의 물가상승률은 9%이상이었지만 하반기는 2%밖에되지않았다』고 지적하고『금년물가는 국내외 요인으로봐서 10%이내로 억제할수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民社·新政黨통합 빠르면 週內발표

통합작업을 벌이고있는 民社黨과 新政黨은 兩黨고위층간에 구체적인통합원칙에 합의를 보는대로 빠르면 금주중、늦으면 내주초께 合黨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民社黨의 高貞勳당수와 白璨基부당수、新政黨의 金甲洙총재와 李沅衡사무총장은 6일 접촉을갖고 절차와통합후 새黨名、黨憲등에관해 논의했다。

高貞勳 民社黨 당수는 이날 금주중 新政黨의 李沅衡사무총장과 民社黨의 白璨基부당수가 다시 만나 구체적인 실무협상을 벌인뒤 자신이 주말께 金甲洙新政黨총재와 만나 매듭을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輸出入구조 전면再檢討 國際收支안정내서 景氣활성화"
羅財務

羅雄培 신임재무장관은 6일『우리경제의 당면과제는 국제收支 개선이며 국제收支 赤字폭의 축소를위해서는 급격한 국내경제 활성화조치를 취할수 없다』고 말하고『국제수지에 영향을 주지않는범위내에서 국내경기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羅장관은 이날 신임인사차 柳致松 民韓黨총재를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를 이같이 설명하고『현재의 5차5개년계획을보면 86년에 가서도 국제수지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있으므로 금년부터 국제수지의 赤字幅을 더욱 축소하는 방향으로 輸出入구조를 전면재검토、5차5개년계획기간중 국제수지적자를 흑자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상황을 볼때 금년1·4分期중에는 景氣가 크게 好轉될 가능성은 없는것같으나 2·4분기부터는 수출이上昇勢로 돌아서면서 內需가 회복될것으로 전망했다。

羅장관은 또『1·2家口 주택에 대해 讓渡所得稅制上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주택경기부양책을 추진할경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여건이 더욱어려워질것』이라고지적、『庶民住宅이나 長期低利융자주택을 많이지어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수 있도록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

韓·日實務회담 11일 開幕

【東京5日=宋孝彬특파원】 韓日양국은 11일부터 3일동안 서울에서 고차적인 실무회담을 갖고 3월에 열릴 한일외상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기우찌(木內)외무성 아시아국장을 서울에 파견、한국측이 요구한 60억달러의 경협에대해 일본측이 제공할수있는 총액에대한 윤곽을 밝힐 예정이며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제5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양국은 지난해 9월 한일각료회담을 가진이래 60억달러의 경협을에워싸고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4개월만에 한일간의 고차실무회담을 갖고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을것으로 보인다。

金利 2%線 곧 또引下

賃金10%引上 철폐 不動産 稅부담 완화

金埈成부총리 겸경제기획원장관을 팀長으로 새陣容을갖춘 정부의 경제팀은 지난가을부터 다시 下降국면으로 곤두박질치고있는 국내경기를 떠받혀주기위해 시급한 경제活力化시책의 강구가 불가피하다고판단、물가안정기조를 흐트리지않는 제한된 범위에서 경기浮揚대책을 마련、실시키로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새로운 종합대책은 빠르면 내주중 발표될예정인데 새경제팀에의해 검토되는 당면 경기활성화대책은 2%포인트내외폭의 金利금명간인하、침체된 內需喚起를 자극하기 위한 주택경기부양및 정부公共土木工事의 연초집중發注착공、수출금융융자 單價및 융자비율의인상등이다。

최근 合板製材등 건축관련內需에 숨통을열고 輸入유발없이 경기전반의 活力化실마리를 풀기위해 주택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인데 금년9월말로 끝나는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적용時限을 87년까지연기、분양가를 과세표준으로하는 현행아파트의 재산세 취득세부과방법을 內務部싯가표준으로 바꿔 세부담완화、주택자금리 현행 연15%를 10%(국민주택기준)로인하、주택금융융자비율확대、주택건설업체에 대한등록세 2重부과 철폐、기업의 종업원住宅마련지원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수출금융의 융자단가를 현행5백30원에서 5백80원선으로 인상하고 달러당융자비율을 현행77%에서 臺灣수준인 85%선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협의되고 있다。

그러나 새경제팀은 금년도 물가를 10%선이내로 억제하는 한편 금년44억달러로 계획된 經常수지적자폭의 더이상 확대는 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賃金정책도 지금까지의 10%획일안정계획을 일부수정、實質賃金이 플러스가 되는선에서 기업의 自律的인 결정에 맡기기로했다。

金부총리도 최근 정부가 지난해 賃金억제선을 10%로 잡았지만 결과는 17%선까지 올랐다고 지적、새해에는 물가를 10%이내선에 안정시키는 대신 賃金수준10%를 약간 넘는수준으로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賃金을 플러스수준으로 보장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한바있다。

政府、경기浮揚策 금명간發表

정부는 지난연말 15%수준의 리보(런던은행간금리)레이트가 지난4일 다시14·5%로 떨어지는등 국제금리의 하향세가 새해들어서도 계속되고있고 연말까지도 14%선으로 예상했던 국내물가는12%선으로 더욱안정되어 2%내외의 금리추가인하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하고있다。

이와함께 영세민生計지원과 內需확산을 동시에기대할수있는 예산상의 정부公共사업조기발주를 본격추진、예산사업의 60%이상을 연초1·4분기중에 집중發注、착공토록 서두르기로했다。

정부의 계획은 1·4분기중에 집행될 예산사업은 금년一般會計예산사업 1조2천9백억원의 60·9%인 7천8백67억원、특별會計사업 2천2백47억원중 55·4%인 1천2백44억원、外上공사(國庫債務부담) 1천6백24억원중 72·7%인 1천1백억원등이다。

또 不況이 심각한 시멘트

商議 新年人事會 全대통령이 참석

全斗煥 대통령은 6일하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가 新羅호텔에 마련한 新年人事會에 참석、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날 新年人事會에는 3府요인、政黨·금융계·언론계대표、경제단체任員、駐韓외교사절등 1천4백여명이 참석했다。

民正黨 政策연구소 運營방안 報告받아

民正黨 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6일 상오 청와대에서 民正黨의 權正達사무총장、羅雄煥정책위의장、黃炳泰정책연구소 이사장 등으로부터 黨정책연구소 운영방안등에관해 보고 받았다。

低硫黃油사용지역을 擴大

3월부터 首都圈 7개市郡도 포함

환경청은 6일 지난해부터 서울지역만을 상대로 적용해 온 저유황유 사용대상지역을 서울을 중심한 수도권의 7개시군지역에도 확대 적용하고、차량의 저유황경유(0·4%이하) 사용의무화대상지역도 현재 서울지역외에 부산、인천및 경기도일원으로 각각 대상지역을 확대고시하고 준비기간을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환경청은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높은지역에서 환경기준(0·05PPM)을 유지하기위해 저유황연료유를 확대공급한다는 방침아래 지난해 7월1일부터 1차로 서울지역만을 대상지역으로 고시、연간액체연료 사용량이 1백kl를 넘는 4층이상 사업장과 차량에 대해 저유황유및경유사용을 의무화 시킨바 있다。

환경청은 이번 고시에서 서울을중심、같은 대기영향권에 속하는 수도권의 ▲仁川 ▲富川 ▲光明 ▲安養 ▲城南 ▲議政府 ▲始興지역등 7개시군지역을 추가시키고 대상업소도 종전의 4층이상만에서 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얻은 1~5종까지 고시지역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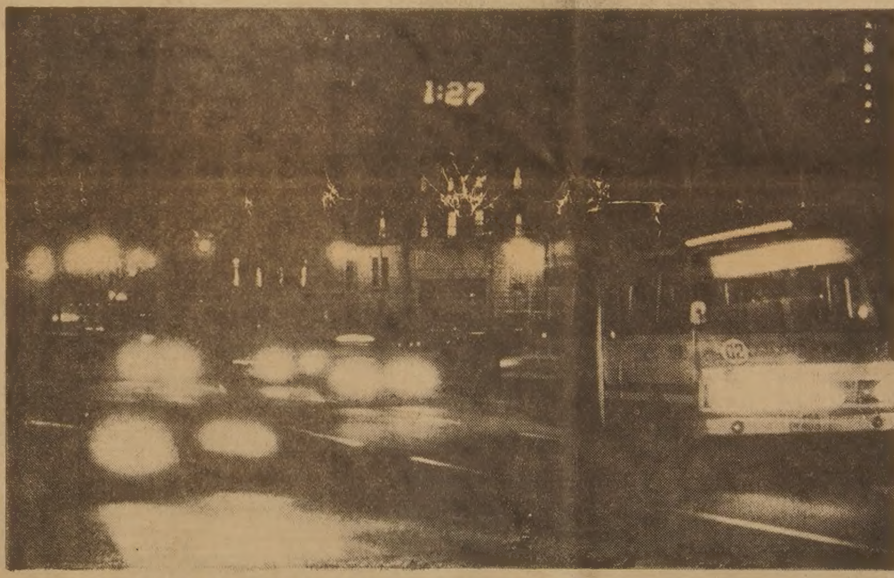
한편 환경청은 仁川및 蔚山지역의 4개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저유황유사용을 의무화시켜 오는 2월1일부터 유황분2·5%이하의 벙커C유를 공급키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美·日海上훈련 해마다열도록
日、美에要請방침

【東京6日=聯】 일본방위청은 소련의 극동해군력 강화와 관련、동해지역에서의 美7함대와 일해상자위대간의 합동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美國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일방위청의 이같은 방침은 동해가 중요전략적 지역이라는점에서 미7함대가 정기적으로 시위행동을 벌이는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서 오는8일 도오꾜(東京)에서 열리는 미일안보협의회에서 로버트·롱 美태평양주둔군사령관에게 정식 요구하게 될것이라고 이신문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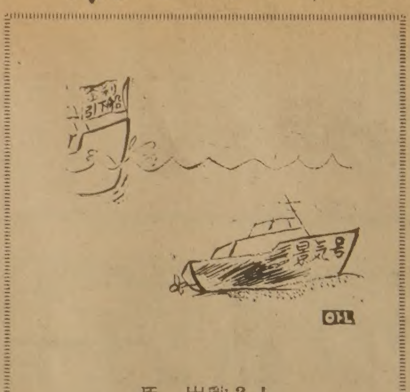
美日간의 한동해상훈련은 지난57년이후 매년2회정도 실시되어 왔으나 동해에서의 훈련은71년을 마지막으로 지난해5월까지 중단돼왔는데 그이후는 미7함대가 인도양으로 주력을 옮김으로써 함정운영의 여유가 없게된것도 있지만 소련극동해군력의 대폭적인 증강으로 동해가 이미 소련의 내해화했다는 미국의 태도에도 이유가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활짝열린「自由의 밤」…通禁없는 서울은 조용했다

서울시민들은 37년된「통금」이 사라지는 역사적인 첫밤을 소란함도 환호성도없이 자연스럽게 보냈다。1시27분을 알리는 시청전광시계판아래 시민들은 한결같이 느긋한 표정으로 거리를 활보했고 택시들도 한가롭게 움직였다。

社會漫評



또 出動?!

地平線

37년만에 야간통금이 없어지자 서울시민들은 시계보는 버릇이 사라졌다고 UPI통신은 보도하였다。歸家전쟁이 끝나고 24시간시대의 막이 올랐다는 본지의 주먹만한 활자가 눈에뜨인 어젯밤은 1년중 가장 춥다는 小寒날인데도 자유를 만끽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입김탓인지 눈발이 날렸을뿐、포근한 기온이었다。▼올해 小寒은 매운겨울이 맥을못추고 이상난동속에 맞았으나 절기상으로 보면 기러기가 북녘으로떠나고、까치가 둥지를 짓기시작하며、꿩이 짝을찾아 꿕꿕우는 계절이다。보름뒤에 大寒이오면 닭이 알을 품기 시작하며 독수리나 매가 신나게 먹이를찾아 하늘을 날고 높이나 연못의 물이 속까지 꽁꽁언다고한다。물론 요즘 닭은 1년내내 알을낳고、三寒四溫도 깨어져 겨울인지 봄인지 모를 날씨가계속되지만 추운 한겨울이기때문에 언제 무서운寒波가 또 닥쳐올지모른다。옛적엔가장추운 한겨울인 81일동안을 九九라고불렀다。한해가운데 가장더운 30일동안을 三伏이라고 하는것과 대조적인말이다。冬至날九九消寒圖를 그려 梅花한가지에 81개꽃을마련하고 하루 꽃한송이씩彩色해나간다。81일이되면 모든꽃이 붉게물들어 봄이 무르익는 것이다。冬至가 지난 다음 九九가운데서도 19일째 이후부터 27일째까지가 제일 춥다는데 이때를 三九라고했다。三九라는것은 冬至부터 九日마다 一九、二九、三九라고 부르는것에 따른것이다。올해는 양력 1월10일부터 18일까지가 된다。▼冬至인 一九(작년 12월22일)날은 一陽來復이라고 陽氣가 처음 생기는날이다。이날부터 三九까지의 27일동안에 결빙이 단단하기때문에 漢江의 얼음도 이때 잘라내서 西氷庫에 저장했던 것이다。가장 추울때에 더울때 생각을 해야되는것이 인생이다。楊貴妃가 氷魚(얼음치가락)를 갖고놀면서 玄宗에게 교태를 보이고、그 오라비 楊國忠이 시녀들을 앞뒤로세워 겨울의 모진바람을 막았다는 肉陣、肉屛이 병풍처럼세운 妓女들을 말한 故事는 九九때의 추위와 얽힌 이야기다。이처럼 모진 추위가 올해는 덜하니 자연의 축복을 받고있음이 분명하다。▼"一年之計는 在春"이라 하니 凡事를 미리하라는 말이 있듯이 새봄은 희망과 의욕에 찬 출발점이다。야간통금해제、유니폼 없애기등 모처럼 열린 自律化시대의 느긋함을 오래누리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돕고 질서를 지키는 기풍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하겠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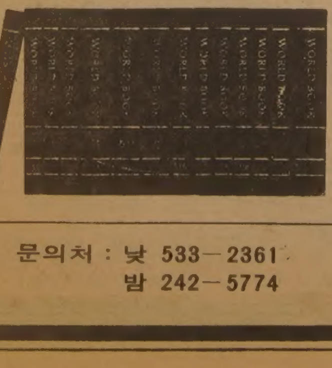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P
922-3111(B)
439-8885(R)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WORLD BOOK —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익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밤 242-5774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30~6:00 월, 화, 수, 토
9:30~9: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종합보험

김 홍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對蘇 공동制裁에 美·西獨 큰見解差

레이건-슈미트 白堊館會談

【워싱턴6日=曹淳煥특파원】 폴란드군부의 자유탄압은 미·소관계보다 미·서독간에 잠재했던 이해대립을 더 심각하게 노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폴란드탄압과 관련한 對소제재조치를 놓고 서독은 소련정책에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면서 서방보다 소련에 더욱 호의적중립을 지키는 북구의 나라 핀란드처럼 서독이 되어간다는 비난화에 우려 있다고 했다.

◇白堊館서 만난 레이건과 슈미트 레이건 美 대통령이 5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訪美중인 헬무트·슈미트西獨수상과 정상회담을갖고 폴란드사태등 세계정세전반에관해 협의하고있다. 【워싱턴 5일AP電送=聯合】

「베를린 安保」 눈치 作戰

美보다는 蘇에 더 好意

美紙 "道義가 타락된 指導路線" 혹평

미국보다 소련에 한발짝더 가까이 서있는것같다.

미국의 경제권위지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모스크바를 향한 슈미트서독수상의 자세는 도의가 탈락된 지도노선이며 그미래상을 전체주의 帝國(소련)의 공업화된 속국이 되는」 …

레이건은 5일 슈미트수상을 맞아 미·서독간에 對소제재문제에 거리를 좁혀 공동보조를 향해 한발짝 전진하려고 했다. 두시간동안의 레이건-슈미트백악관회담후 나온 공동성명에서 슈미트는 對 …

核공격받으면 「暗黑」초래

美과학개발전協 「假想核戰」공개토론

人命 피해만 1억2천만명

전염병·癌등 疾病도 유발

太陽자외선直射 視力장애도

◇핵폭탄의 버섯구름

【워싱턴5日聯合=본사】 미국이 대규모 핵공격을 받을 경우 수천만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것은 물론 나머지 생존자도 무수한 질병에 감염되는 암흑시대로 빠져들게 될것이라고 미국과학자들이 말했다.

최근 미과학개발전협회가 연례행사로 주최한 핵전쟁의 피해상황에 관한공개토론에 참석한 일부 과학자들은 또 세계2차대전중 최초로 일본에 투하된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야기된 참상은 현재 미소가 보유하고있는 훨씬 강력한 핵무기에 …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끼(長崎)의 원폭생존자들을 대상으로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방사능노출에 의한 큰 피해는 암외에 백혈병 …

인사이드

「大統領사위」를 찾아라

比青年실종、政治문제로 번져

家族 "마르코스 背後서 조종"

경찰 "붉은旅團테러 可能性"

이멜다女史 "政治反對者들의 음모다"

【마닐라5日AP聯合=본사】 최근 필리핀에서는 페르디난드·마르코스 대통령의 잠재적 사위가 될 비밀결혼한 필리핀아나운서의 청년이 실종된 사건의 발단은 필리핀아 …

◇마노톡군과 마르코스양 【UPI】

인사이드

第2의 루빅큐브 만든다

헝가리、頭腦개발 새장난감 製造계획

◇루빅·큐브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자 해설서와 유사한 게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수께끼 영원히 안풀려"

둘이상 큐브게임도 考案

輸出업자들 앞다퉈 販賣전략

【부다페스트(헝가리)聯合=본사】 루빅·큐브를 고안한 헝가리는 루빅·큐브 교수 에르뇌·루빅(38)씨는 최소한 다섯가지이상의 새로운 수수께끼장난감을 …

◇그때의 그아파트 폴란드軍이 지난 12월16일 그다니스크의 레닌 조선소입구를 지키고 있다. 앞쪽 고층건물은 지난 70년 노동자소요때 軍이 포진, 총탄을 발사했던 아파트. 【그다니스크 5日AP電送=聯合】

中共、"美에 對應조치"경고

對 自由中國무기판매 결정에

鄧小平、美·蘇패권주의 규탄

【베오그라드5日聯合=본사】 중공의 실권자인 당부주석 鄧小平은 5일 공개된 한 회견에서 미·소양국의 패권주의를 규탄하고 …

中共黨 總書記制채택

黨최고指導者로…黨구조개편 검토

主席·副主席制폐지

【東京5日CNA=본사】 중공은 현재의 당주석과 부주석직을 폐지하고 대신 당총서기를 당최고지도자로 …

先進國서 失業타개方案 합의못하면

"世界不況직면가능성"

슈미트、레이건會談서 밝혀

【워싱턴5日聯合=본사】 헬무트·슈미트서독수상은 레이건 美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선진국들이 失業의 타개방안에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세계는 심각한 불황과 중대한 정치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5일 강조했다.

야루젤스키、레이건에 書翰

美의 對波制裁문제에 언급

"兩國間의견對立 反映"

【워싱턴5日AP=본사】 …

자由勞組 강경파

波當局 會談시작

怠業·잦은病暇등

음성적 鬪爭돌입

【뉴욕5日聯合=본사】 폴란드당국은 …

바웬사 격리保護

교회、軍部제의로

【런던5日AP=본사】 폴란드가 …

무역收支 赤字

작년 53億달러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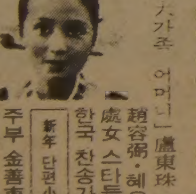
神秘와 安全

人間이 달에 처음 착륙한것은 1969년7월21일이었다. 아폴로11호를 타고 달까지 갔다가 돌아온 닐·암스트롱등 3명의 우주인들은 달에 발을 내려놓은탓으로해서 지구에 돌아와서도 근 3주일동안이나 「격리수용」되었다. …

주간여성

인기절찬 판매중!

1월 3일자



新年 특대호 주간女性

우리집 개들 중엔 영국 紳士가 있어

「大가족 어머니」盧東珠 여사의 「개들」

趙容弼·혜은이의 新年 대담

處女 스타들의 「結婚 조건」

한국 찬송가 만든 羅運榮씨

新年 단편小說 새해 아침

주부 金善東씨의 「書道세계」

김진희씨의 文壇 지각 데뷔

女子배구 3총사, 靑春 고백

世紀的 스캔들의 女主 엘리자베드·테일러 評傳

미모 國樂人 安香蓮씨의 「죽도록 사랑해」 全部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반광고 : 최성조

●매매구인광고 : 박경옥

533-2361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佛光寺 법회안내

장소 : 불광사

지도법사 : 석광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화 : 223-9152

대학별 成績분포 極秘보안

文敎部·각大學 超非常

오늘부터 願書교부

文敎部 직원 常駐감독·願書관리職員합숙

7일부터 전기대학 입학원서교부가 시작됨에따라 문교부와 각대학들은 대학별성적 분포가 새나가지않게 하는 보안대책을 마련하는등 입학 전형비상체제에돌입했다。

문교부는 이날 서울大등전국72개전기대학(11개교육대 포함)에 대해『이번 입시의 성패가 대학별 지원자성적분포의 보안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입학원서관리직원의 전원합숙을포함한 보안 대책을 세우라』고 긴급지시했다。

문교부는 또 전국 주요대학에대해 입학원서 접수일부터 전형일까지 문교부직원을 직접 파견、상주시키면서 입학원서 관리를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 당국자는 이날『대학별 성적분포가 전형일인오는 22일까지 외부로 유출되는일을 막기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책들을 마련하고있다』고 말하고『각 대학들은 이를위해 철저한 대비책을세워 시행해 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밖에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각대학이 수시로 공개할 모집단위별지원상황은 제1지망자만을 계산해 공개하는 것이고 제2、제3지망은 공개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제2、제3지망까지 공개할경우 이렇다할 실익이 없으며 지원상황이 극도로 복잡해져 학교선택을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

한편 문교부의 이같은 지시에따라 전국37개 종합대등 주요대학들은 교무처실무자들로 입학원서관리자를 확정하는한편 접수창구의일원화、교대근무、합숙등 지원자의 성적분포의 기밀을 지키게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해 놓고있다。

서울大는 단과대학별로 입학원서 접수 창구를 분리하되、접수직원을 1일마다 교대시키고 오는13일 접수가마감되는것과 동시에 입학원서관리자전원이 전형일까지 전원합숙하기로했다。

지원자 성적분포는 지난해 각대학별로 공개했다가 이른바 미달사태를 초래해 올해 비공개로 바뀌었는데 올입시의 경우에는 대학지원이 2개대학으로 제한돼있어 지원자 성적분포만 알면 거의 합격을 보장받게 된다。

전기대 전형일정은 다음과 같다。

▲원서교부＝1월7일～1월13일 ▲원서접수＝1월11일～1월13일 ▲예비소집＝1월21일 ▲1차전형실시＝1월22일 ▲1차전형발표＝1월28일 ▲2차전형(1차전형미달대학)＝2월2일 ▲실기공통관리원서교부및접수＝1월7일～1월13일 ▲예비소집＝1월14일 ▲1차실기고사＝1월15일～1월21일 ▲1차실기고사발표＝1월28일

태평양화학
꽃그림 기침약을 찾으세요.
브론지콤
정찰가 : 1,200원

休日制 없앤다

목욕탕·茶房·理美容업소

오늘부터 사실상 廢止

목욕탕 다방 이·미용업소등 접객유흥업소의 정기휴일제가 7일부터 각업소 자율에 맡겨져 사실상폐지된다。

보사부는 6일 에너지절약과 종업원근로문제등을 이유로 지난77년9월1일부터 실시해온 각종접객업소의 월1～4회씩의 정기휴일제를 업주의 재량으로 자율화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로 정기휴일을 정해 목욕탕、전문·유흥음식점、이·미용업소、당구장등 유기장은 매주1회씩、대중음식점 제과점 다방 정육점등은 월2회씩 정기휴일을 정해 휴업해왔었다。

교통부도 이날 전국관광호텔의 사우나탕、터키탕、이·미용실의 휴일제를 해제하도록각시도에 시달했다。

교통부의 이같은조치는 동자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따라 지금까지 관광호텔의사우나탕 터키탕에는 주2일제휴업、이·미용실에는 주1일제휴업을 실시해왔으나 통금해제에따라 동자부에서 해제한으로써 이뤄진것이다。

「夜間 민원실」운영

安養 通禁해제따라

【安養＝聯】경기安養市는야간통금해제에따른 야간민원봉사활동의일환으로6일부터「야간민원실」을운영한다。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인 하오5시부터 8시까지 3시간동안 운영되는 야간민원실은 시청과 산하 14개 동사무소에 설치돼 민원담당공무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illegible]원증명▲매·화장신고▲주민등록전입▲출생신고▲호적등초본▲신고등록전환등의 민원처리와 민원상담을 실시하고있다。

鎭海灣일대 漁獲高격감

魚族줄어 최근엔 3～5척만 조업

【馬山＝聯】공장폐수로 인한 오염과 부정어업등으로 경남鎭海灣일대의 어족이 격감하고 이일대 소형어선들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6일 馬山수협 제2위판소(연안어종 위판장)에 따르면 2년전까지만해도 巨濟와 바다를 기점으로 鎭海、義昌郡龜山面 앞바다를 잇는 鎭海灣일대에 하루평균 30～50척의 어선들이 조업에 나서 도다리·꼼치·낙지등을 잡아 하루 1천만원이상의 위판실적을 올렸으나 지난해부터 어획량이 격감하기 시작、최근에는 3～5척정도가 조업에나서 하루 5만원정도의 위판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馬山위판장의 위판고는 80년도까지 하루평균 1천만원을 웃돌았으나 지난해에는 7백만원선으로 줄어들어 馬山시내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馬山시내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자 忠武·三千浦지방에서 잡은 생선이 육·해상으로 馬山까지 운반되고 있는데 이물량이 전체 위판고의 40%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연안어업의 부진으로 한국어선협회 慶南지부에 등록된 馬山·鎭海·義昌관내 5톤이상(무동력선 포함) 어선수는 80년말의 1천5백여척에서 1천3백여척으로 2백여척이 줄어들었으며 지난해의 어선 건조도 20여척에 불과했다。

南原 11개事業 20일着工

1億여원投入

【南原＝聯】南原市는 5일 올해 1억7천6백만원을 들여 88고속도로주변정비등 11개사업을 조기완공키로 하고 오는20일 일제히 착공키로했다。

시는 지방사업 조기착공계획에따라 義壞路 인도개설을 비롯、광석 소하천 준설등모두 11개사업을 오는5월까지 완공키로했다。

표주박

옛날女高때 친구 찾습니다

美이민간 許惠子씨가 호소

○…미국에 이민간 許惠子씨가 6일 春川여고시절 다정한 친구였던 李영순씨와 당시 春川은하수합창단원(특히 春川교대출신 李순희씨)들의 소식을 알아달라고 한국일보社에 호소해 왔다。

○…許씨가 기억하는 李영순씨의 마지막 주소는「서울 恩平區 佛光洞 291의58 김용식씨댁」이었으며 한창단시절 許씨는「許마리아」로 불렸다고…。

○…許씨의 현재 주소는 Hyecha,Heo 36. Mt·Morris Ra. Leicester N·Y 14481 USA.

嚴冬에 주택가 道路축대 붕괴

4세대 正初「외박」

흙더미에 보금자리 폭삭

지붕서 돌소리… 미리待避

14명사는집… 韓電 전주工事 부실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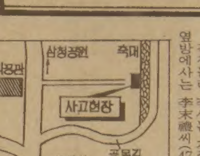
독자告發 取材

서울三淸洞62—1이창수씨집

◇떼죽음을 모면한 現場

축대붕괴사고로 주민들이 떼죽음을할뻔했던 三淸洞사고현장。붕괴원인이된 전신주(왼쪽)가 보인다(上)。한밤 난데없이 가정집을 덮친 사고로 기둥이 부러지고 흙더미가 안방을 가득채운 李씨집。사고시간대인 9시24분을 가리킨채 벽시계가 흙더미위에 나뒹굴고있다(下)。

해빙기도아닌 엄동설한에 난데없이 축대가 무너져내려 4세대 14명의 주민이 사는 집을 덮치는사고가 났다。다행히 사고를 미리 예상한 가족들이 대피、인명피해는없었다。사고뒤 피해자들은 이사고가 한전의 전신주공사때 전주주위의 흙을 어설프게 다져놓았기때문에 생긴것임을 지적、이를 한국일보사회부에 고발해왔다。5일밤 9시24분께 서울鍾路區三淸洞62의1 이창수씨(31)집 뒤편에있는 축대가운데 가로30여m、세로10여m가 무너져내려 李씨집을덮쳐 집이 완전히 부숴졌다。그러나 축대붕괴30여분전부터 돌멩이가 떨어지기시작、지붕을때리는 소리를들은 집사람들이 미리 대피했기때문에 다친사람은 없었다。4개월전부터 李씨집에 세들어사는 李玉順씨(51·여)에 의하면 이날밤 8시50분께 일가족4명이TV를보고있는데 갑자기 주먹만한 돌멩이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를듣고 나와보니 집뒤 축대의 일부가 불룩 튀어나와 붕괴위험성이 보이더라는것。



깜짝놀란 李씨는 가족들과 옆방에사는 李末禮씨(47·여)—가족5명등 세든 4세대14명을 재빨리 대피시켰다。

가족들이 대피한뒤 李씨는 곧바로 구청에 신고、구청직원과 동회직원2명이 현장에 나왔는데 밤9시24분께 가재도구도 꺼낼틈도 주지않고 축대는 요란한소리와함께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축대가 무너져내린 李씨집은 거의 집전부가 흙더미에 깔렸고 흙무게를 이기지못해 기둥이 반쯤기울어져있어 미리피하지 않았으면 큰인명피해가 날뻔했다。

이재민들은 이날밤 인근문화장여관으로 대피했는데여관비를 댈 길이 막연하다며 구청측이 한시바삐 보수공사를 해줄것을 요구했다。

사고현장일대는 경사 70도가넘는곳이어서 주민들은 혹시나 제2의 붕괴사고가나지 않을까 초조해하고있다。

한편 관할鍾路구청은 6일 관계관이나와 우선 접근금지 표지판을 설치해놨는데 6일하오까지 보수공사를 시작하지 않고있다。

주민들은 이날 사고가 나기 5년전 축대위에 전주를 매설한뒤 전주주위에 흙을 완전히 메우지않아 이사이로 빗물이 새들어축대가 무너지게된것 같다고주장했다。

失明비관 7旬노인

석유뿌려 焚身자살

5일 하오7시55분께 서울 恩平區應岩洞281의24 金東鎬씨(36·회사원)집 마당에서 金씨의어머니 李順女씨(75)가 20ℓ들이 석유통을 온몸에 뿌리고 분신자살했다。

가족들에 의하면 李씨는 경남河東에서 장남과함께 살다가 6개월전 장남이 병으로 사망한뒤 차남인 金씨집으로 옮겨 살아왔는데 평소 장남을 잃은것과 지병인 녹내장이 악화돼 양쪽눈이 모두 안보이게된것을 비관해 왔다는 것이다。

高大 불법示威주동

2명 1년6월宣告

서울형사지법 5단독 金在晉판사는 6일 지난해10월 高大시위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趙顯賢군(22·법학과3년)、郭乃赫군(21·철학과3년)등 2명의 피고인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趙군등은 지난해 10월29일낮12시50분께 高大구내 서관앞에서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3년씩을 구형받았었다。

울릉도·獨島지방 大雪주의보 解除

중앙기상대는 6일상오 울릉도·독도지방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를 이날낮12시를 기해 해제했다。

道警察국장 人事

慶北大邱	李永昶씨
京畿	崔永德씨
江原	權福慶씨
忠北	鄭龍得씨
忠南	咸澤森씨
全北	金士櫻씨
全南	尹奇老씨
慶南	柳九桓씨
濟州	全鍾千씨

내무부는 치안감급인사에 이어 6일 전국도경찰국장과 본부과장등 경무관급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경무관급인사에서 경북도경국장겸 大邱시경국장에 李永昶 치안본부 수사2과장、경기도경국장에 崔永德 서울101경비단장、강원도경국장에 權福慶 서울시경제1부국장、충북도경국장에 鄭龍得 치안본부감사담당관이 발령됐다。또 충남도경국장에 咸澤森 치안본부경비과장、전북도경국장에 金士櫻 치안본부수사1과장、전남도경국장에 尹奇老 치안본부 장비과장、경남도경국장에 柳九桓 충남도경국장、제주도경국장에 全鍾千 치안본부 해상보안과장이 각각 발령됐다。

이번인사는 본부과장급등 일선지휘관과 참모진에 대한 인사에 국한됐는데 경무관승진인사도 곧단행될예정이다。

★인사명단2면

택시強盜 미수

10代3명 잡혀

통금해제첫날인 6일상오1시20분께 서울東大門區中和2洞210 새서울극장앞길에서 영진운수소속 서울4바6606호 한시택시(운전사 申洙成·35)를 타고 가던 柳모군(17·무직)등 10대 3명이 申씨를 칼로위협、돈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사 申씨에 의하면 이들은 이날상오1시께 서울道峰區中溪洞에서 택시에탄후 범행장소에 이르러 柳군이 申씨의 목에 과도를 들이 대며『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것。

申씨가 재빨리 차의시동을 끄며 밖으로 뛰어 나와 소리치자 이들은 그대로 달아 났는데 柳군은 순찰중이던 경찰에의해 붙잡히고 나머지 2명은 집에 숨어있다 붙잡혔다。

流星의 賦

<276>

李炳注作 李友範畵

風雅와 策謀 ⑦

통사 히라또는 계남의 심정을 알아차렸는지 사뿐히 옆에 와서 섰다。

『부끄러워』

계남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부끄러울 것 없어요』

히라또의 대응이었다。

『아뭏든 나는 부끄러워』

계남이 거듭 말하자 히라또는

『부끄러워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일본인이오』

했다。

『어째서』

『사신들이 수행한 악사들을 빌어달라는 자가 뻔뻔스럽지 않소。타국에서 명절을 보내는 손님들에게 악사들을 보내주어야 할 처지에 말이오』

히라또의 말을 듣고보니 그럴싸 했다。그렇다고 기분이 석연하게 된 건 아니다。

『어젯밤 대문자산(大文字山)의 불무늬(北紋)를 보셨죠?』

히라또가 물었다。

『보았소』

대문자산의 불 무늬란 산 한쪽 꽉차게 등을 만자형(卍字型)으로 단 것을 말한다。미상불 그것은 장관이었다。불교를 숭상하는 나라 답게 일본의 추석은 불식(佛式)으로 성대하고 화려했다。

『오늘의 달은 팔월기망(八月旣望)의 달이 되겠죠?』

히라또의 이 말에 계남은 빙그레 웃었다。지난 7월 자기가 가르쳐 준「기망」이란 말이 히라또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홍공、오늘은 나하고 기원(祇園)에 나가봅시다』

『글쎄』

기원이란 기도하는 곳의 이름일텐데 경도의 기원은 예기(藝妓)와 무기(舞妓)가 있는 곳이다。

계남이 망설이자

『기생놀이를 하러 가자는 건 아닙니다。그들이 떼지어 춤 추는 구경을 하자는 겁니다。기원의 이른바 추석춤은 일년 가운데 유명한 행사(行事)이죠』

하고 히라또가 설명했다。

『가봅시다。혹시 얘기거리가 될테니』

계남이 히라또를 따라 기원으로 갔다。가는 도중 놀란 것은 경도란 곳이 말할 수 없이 화미(華美)하다는 사실이었다。금은(金銀)과 금수(錦繡)와 기라(綺羅)로써 장식된·일본의 추석과、기껏 황포(黃布)나 저포(苧布)의 옷이 특징일뿐인 고국의 추석이 비교되어 서글펐다。

기원에 도착했을 무렵、16일의 달이 동산 위에 솟았다。그러나 그 달빛은 만등(萬燈)을 헤아리는 등불에 그늘려 무색한 느낌이었다。

월광과 등화 아래 펼쳐진 무희들의 춤!긴 소매가 나비처럼·생동하고 머리에 꽂은 화잠(花簪)의 금빛이 황홀한 무늬를 놓는데 북소리와 삼미선(三味線) 소리가 그윽하기만 했다。

계남이 넋을 잃고 보고 섰는데 살금 팔을 건드리는 촉감이 있었다。계남이 그리로 눈을 돌렸다。

소복을 닮은 일본의상을 곱게 입고 오이씨 모양의 얼굴을 한 아름다운 여자의 흑요석(黑燿石)을 닮은 눈동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계남이 가슴을 떨었다。여자의 말이 있었다。

『같이 가자는 겁니다』

하는 히라또의 통역이 있었다。

한국일보 가두 판매처

본사는 주3회 각식품점에 신문을 배달 판매하고 있음.

〈본보 취급 식품점〉

● 서울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 동양식품 : 1662 JANE ST. 248—5131
● 한국식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 단풍식품 : 712 BLOOR ST. W. 532—1054
● 고려식품 : 680 BLOOR ST. W. 531—2242
● 삼복식품 : 2437 FINCH AVE. W. 743—8270

현재 주3일 배달. 1부당 30¢
※〈주간여성〉도 판매함 $2.00

한국일보 · 발송부

謹賀新年

지난한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DD—K
권순근악단일동

리더 : 권순근 기타 : 이덕만
올갠 : 김중복 베이스 : 김대근

BRITANNICA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 교인. 학교. 각 단체 회원에게 특별할인
*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이상의 각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제공함.

신용목

신용목
전화 : B)536—9082,
R)245—7522

82 國際氣流

本社 특파원들 世界 碩學과의 對話

오늘의 世界 무엇이 問題인가

國際關係史의 權威 뒤로젤敎授는 말한다

파리-金聖佑특파원

大·小國 平等원리가 새不平等 만든셈

1 飢餓의 해결없인 安寧있을수없고
2 蘇의過武裝底意가 當面한 큰의문
3 文明변천따른 價値혼란으로 不安
4 民族國家로 多分化가 危機더조성

中共·브라질·加등이 強國浮上 가능성

地球는 到處에 불붙은 커다란숲

힘의均衡·局地戰억제가 平和조건、紛爭줄일 機構필요

蘇、데탕트를 膨脹수단으로 惡用

—오늘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네가지가 있다. 첫째는 飢餓의 문제다. 수10억 인구가 아직 가난에 허덕이고있다. 식량이 남아돌아가는 나라가 있는가하면 국민들이 굶어죽어가는 나라가 있다. 이것을 南北문제라고 부른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地球上이 안녕할수 없다. 전쟁도 평화도 여기에서 나온다. 절대적인 飢餓이란 어떤 전쟁을 유발하지않고는 10년이상 못견디는 법이다.

두번째 문제는 소련의 過武裝이다. 소련은 자신의 안전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장을 하고있다. 그리고 그 무력을 계속 증강시키고있다. 이것은 결국 미국으로하여금 대항감을 불러일으키게하여 소련의 우월성은 소용이 없게 되었다. 1985년내지 1990년까지는 미국이 소련을 앞지르게될 것이다. 소련은 너무 멀리 가있다.

문제는 소련이 왜 그렇게 앞서가느냐 하는것이다. 소련이 정말 재난을 촉발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미국이 뒤에 있는줄알기때문에 유럽이나 中共에 대해 挑發을하려고 하지는 않을것인지, 이것이 우리시대에 있어서 큰 의문의 하나다.

세번째문제는 文明변천의 心理社會的인것이다. 유럽의 오래된 나라들은—유럽뿐 아니라 韓國같이 오랜 문명을 가진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현재 價値의 혼란이 일어나고있다. 유럽의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면서 인간생활에 큰 顚倒를 가져오게 되었다. 사람들은 지금 어찌할줄을 모르고있다. 새文明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그래서 현재 세계의 큰 부분이 우울감속에 휩싸여있다.

네번째 문제는 政治的관점에서 볼때 세계는 민족국가로 자꾸분할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1백70여개의 국가중 1백개국이상이 최근 40년동안에 독립했다. 1939년 2차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65개국밖에 없었다. 그가운데 몇몇나라들은 강대한 植民帝國이었다. 그러던것이 지금은 거의 식민지가 없어진 상태다.

새로 생긴 1백여개국가의 이념은 민족주의다. 그들의투쟁은 외국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었다. 우리는 지금 민족국가의 세계에 살고있고 이것이 위험하다. 한나라는 다른나라에 소속된 영토가 자기나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민족이므로. 소말리아와 오가덴, 西部사하라와 모로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등, 例는 얼마든지 있다. 이민족국가들은 세계도처에서 위기를 조성하고 전쟁상태를 야기시킨다. 세계는 도처에 불이붙은 커다란 숲과같다.

이런 쌍방간의 분쟁을 제한할 어떤 단합기구—가령 OAU(아프리카단결기구)같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것이 숙제다.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과거에 비해 특색이 무엇이라고 규정지을수 있는가.

▼현재의 국제관계는 서로상반되는 두가지 원리가 서로 겹쳐져 있다. 한가지는 이론적으로 平等한것, 다른 한가지는 사실상 不平等한 것이다. 1914년 1차대전이전까지는 세계에 8개의강대국이있었다. 유럽에 6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이강대국들은小國보다 큰권리를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던것이 미국의 윌슨대통령이래, 그리고 國際聯盟과 國際聯合이 생기면서 각국간에는 平等의 원칙이 채택되었다. 옛날에는 나라에따라 大使館, 公使館의 구별이 있었지만 모두 大使館으로 균등해졌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平等이 선포되면서 不平等이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不平等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한 군사원조제도— 이것이 나중에 트루먼·독트린이되고 마샬계획이 되고 低開發國에 대한 원조로 발전했지만—에 의해 나타났다. 이때부터 원조외교가 시작되었고 부자나라는 가난한 나라를 도왔고 그래서 强國은 당연히 受援國에 대해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들의 의사를 강요했다. 이것이 不平等의 외교를 낳았다. 1941년의 루스벨트의 武器貸與法이전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법이 없었다. 이제 大國과 小國간의 不平等은 없어졌지만 그대신 원조를 주는 大國과 받는 小國간의 不平等이 생겼다. 이것이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특징이다.

—현대의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主要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슨 힘에 의해 국제관계가 좌우되는가.

▼마르크시스트에게 물으면 經濟라고 대답할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요인은 單元的인것이 아니고 多元的인 것이다.

예를들자면 가장 무서운 싸움중의 하나가 이스라엘과 아랍세계의 싸움이다. 물론 이 싸움에 경제적요인이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적인것이 전쟁의 주원인이냐하면 그렇지는 않다. 民族主義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같은 셈族이지만 셈—아랍, 셈—회교도, 셈—유태교인, 셈—이스라엘인으로 갈라져 있다. 종교적인 대립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또 반드시 종교적인것만은 아니다. 이스라엘人가운데는 신자도 있고 신자아닌 사람도 있다. 아랍세계도 마찬가지다. 國家主義의 문제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 국가창설이란 문제는 2차대전직후까지만해도 거론되지 않았던문제다. 팔레스타인 피난민문제가 생김으로써 이문제가 등장했다. 또 다른예로는 비아프라가 있다. 비아프라는 독립국이 되려고 애써왔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이곳은 나이지리아의 石油지역이다. 그러나 비아프라의 분쟁은 이런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다. 비아프라에 사는 종족은 이보族이고 한편으로 이部族은 가톨릭이다. 나이지리아의 다른 대부분의 종족은 회교도다. 이렇게 보아오면 한분쟁은 한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 經濟외에 民族主義, 그리고 民族主義와는 별개로 새로 국가를 건설하려는 國家主義등이 겹쳐 오늘의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이데올로기는 앞으로의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역할이 중요한가.

▼서방의 자유세계란 각시민이 자기 이데올로기를 선택한 권리가 있는 나라를 말한다. 오늘의 세계는 全體主義的인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선택을 허용하는 寬容정신과의 싸움이다.

지금 지배적인 이념은 아직도 民族主義라할수 있다. 프랑스인은 프랑스를 좋아하고 한국인은 한국을 좋아하지만 프랑스나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고 말할수없고 그것을 강요할수도없다. 우리는 모두 크게 봐서 民族主義者지만 아량이있는 民族主義者이지 全體主義的인 民族主義者는 아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작용이 더 강하냐 경제적利害가 더 강하냐하면 때로는 이쪽이고 때로는 저쪽이다.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해, 게다가 외부적인 사건, 인구의 문제등이 겹쳐 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는 소련문제전문가인 당코스女史의 말을 빌면 소련내에서도 믿는사람이 극소수다. 대부분의 소련국민들은 공산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냥 종교일뿐이다. 종교란 믿지않으면서 맹종하는 경우가 많다. 솔제니친의 收容所群島이후 공산주의는 화산의 힘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종교가 되었으므로 신자는 적지만 오래 계속은 할것이다.

—世界平和의 조건은 무엇이겠는가.

▼세계평화라고 하면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수있다. 제3차세계대전을 막는 평화와 세계 각지의 국지적인 평화다.

첫째번의 평화는 소련의 過武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차대전은 일어나지 않고있다. 힘의균형때문이다. 소련의 西歐공격을 막을만큼 미국의 방어력이 강한가에 일부에서 의심을 갖지만 나는 믿는다. 대전을 막는 평화는 이 힘의 균형이 지킨다.

둘째번의 平和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을 막는 평화, 아프가니스탄의 싸움을 막는 평화, 이란과이라크간의 전쟁이나 사라위와 모로코간의 싸움을 중지시키는평화, 이런 평화들은 불행히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방법이라면 유엔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유엔군을 보내 양국사이를 완충시키는 수뿐이다. 이렇게해서 조금씩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킬수 있다. 局地戰은 항상 세계대전의 위협을 내포하고 있는것이지만 세계대전은 앞에서 말했듯이 힘의 균형으로 유지될수 있다.

—東西間의데탕트는 아직도 신뢰할만한것인가.

▼소련은 항상 데탕트에 특별한 생각을 가져왔다. 그들이 생각하는 데탕트란 「우리가 가진것에는 손대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전진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소련은 데탕트를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세력을 전세계에 팽창시켜왔다.

카터는 4년동안 소련으로하여금 보다 빨리 앞지르게 내버려두었다. 소련은 「우리는 전진을 계속한것이니 너희는 움직이지말고가만히 있어야한다」는 그들의 데탕트를 실증했다. 헬싱키협정이란 것도소련으로서는 「우리는 일정한 지역의 지배자다. 그밖에 지역에대해 우리는 뻗어나갈 권리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내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의 데탕트는 없었다. 소련이 원하는 형태의 데탕트가 있었을뿐이다. 칵테일파티를 열고 미소를 짓고 연설을하고 하는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실제로 소련이 공산주의제도를 팽창시키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세계는 언제까지 美蘇양대국이 지배하는 체제로 존속할 것인가.

▼20년내에 中共이 제3의 강대국이 될것이다. 中共은 많은인구가 있고 기술을 개발한 많은 학자가 있고 강국이 되려는 의지가있다. 하나로 뭉치기만 한다면 西歐도 강대세력이 될수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西歐聯合이 아직 멀다. 강대국이 될 요소를 가진 나라로는 넓은 영토를 가진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가있다. 세계는 두나라가 지배하는것보다는 세강대국이 낫고 셋보다는 네강대국이 낫다.

소련은 언제까지 세계의 지배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작년 연말에 나온 나의 新著「모든 帝國은 亡한다」에 이론적인 해답이 들어있다. 인간은 4만년이래 항상 모순된 두가지길을 밟아왔다. 한편으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기 위해 한권위밑에서 규율을 강화하여 독재를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는 全體主義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노예가 된 대중은 참을수 없어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위해 반항하고 결국은 帝國을 멸망시킨다. 로마제국은 멸망했고 앞으로 언제까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련이라는 제국도 멸망할 것이다. 과거의 역사는 어떤 제국도 한권위밑에서 무한정으로 영속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련제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非러시아的인 공화국, 예컨대 에스토니아같은데서 무슨 일이 생길수 있다. 위성국안에서도 동요가 있을 것이다.

폴란드의 自由勞組운동은 아마 2차대전이래 가장 중요한 움직임의 하나다. 소련제국이 기반을 둔 敎義가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는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따라 생기는 한가지 흥미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상상할수 있다.

소련에서는 외국의 라디오나 TV를 시청할수없다. 그런데 비디오의 출현으로 서방의 사상이 소련에 얼마든지 유입될수있다. 소련국민들은 국영방송을 듣느니 미국이나 프랑스의 비디오·카세트를 틀게된다. 이것이 소련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없지않은 것이다.

—국제관계에있어서 유럽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15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유럽은 世界史의 主役노릇을 해왔다. 이 역할은 나침반, 화약등의 기술상의 우위에서 비롯된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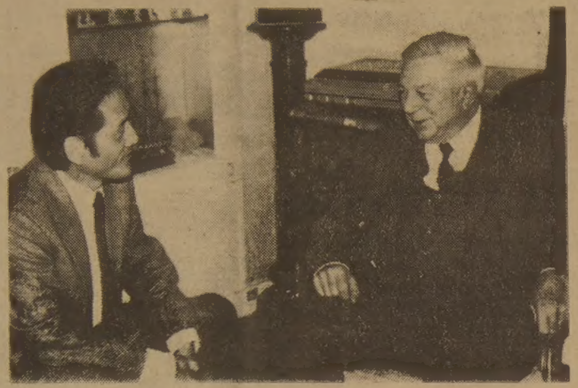
유럽은 거의 전세계를 정복했다. 나의 저서 「역사상에 있어서의 유럽의 思想」의 서문에서 장·모네(EEC의 창안자)는 유럽의 우위는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기때문에 나빴다고 말했다.

이 우위는 1900년 미국이 석탄 생산량에 있어서 영국을 앞지르면서 기울기 시작했다. 1차대전과 2차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은 붕괴했다. 1945년 유럽은 無로 돌아와 있었다. 남은것은 소련의 커다란 무기뿐이고 다치지않은 나라는 美國뿐이었다. 이래서 美國과 소련이 양대강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그후 경제발전이라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유럽의 경제력은 컸고 현재 세계의 5대산업국에는 미국, 일본외에 西獨, 프랑스, 영국등 유럽 3개국이 들어간다. 원자탄의 보유국중 2개국 (프랑스, 영국)이 유럽이다. 구식민지에는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유럽의장래는유럽聯合의가능성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단합의 길을 가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멀다.

—새해들어 국제관계에 어떤큰 변화가 예상되는가.

▼학생시절에 어떤 교수가 말하기를 누가 예상을 말하라거든 백년후에 일어날 일은 말해도 당장 내년 일은 말하지 말라고 했다.

현재로서 사태가 가장 심각한 것은 폴란드다.



◆장·밥티스트·뒤로젤(Jean-Baptiste Duroselle) ▲1917년파리生(64세) ▼파리高等師範學校卒 ▼1949년 文學博士▼1958년 프랑스國際關係研究所長 ▼1967년「現代史」誌主幹 ▼1971년 國際關係史研究所長 ▼1974년「國際關係」誌主幹 ▼1964년부터 현재까지 파리第1大學교수 ▼政治學아카데미會員 ◇主要著書「外交史·1919~現在」(53)「윌슨부터 루스벨트까지— 美國의 外交政策」(60)「歷史上에 있어서의 유럽의 思想」(64)「1815년부터 現在까지의 유럽」(64)「國際關係史入門」(65)「갈라진世界」(2卷·70)「美佛關係2世紀」(76)「모든 帝國은 亡한다」(81)

주니어 排球 한국서 開催

國際排球聯、15일까지 수락요청

"經驗·訓鍊쌓을 좋은機會" 協議거쳐 承諾 통보할듯

【파리6日=金仁奎특파원】국제배구연맹(FIVB)은 83년에 개최될 세계남녀 주니어배구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 이의 수락을 대한배구협회에 요청중임이 밝혀졌다. 이곳 배구계에 따르면 FIVB 폴·리보회장(프랑스)은 최근 대한배구협회 趙錫來회장앞으로 공문을 발송, 내년에있을 2개 세계주니어대회 개최권부여의 용의가 있음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배구협회는 이달15일까지 관계당국과의 협의를거쳐 결과를 회신케 되는데, 유럽배구계에서는 이미 한국개최수락이 낙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있다.

이번에 발송된공문은 지난해11월 월드컵대회기간중 日本서 리보회장및 趙회장이만난직후 이루어져 한국측의 수락여시 낙관적인것으로 보인다. 리보회장은 이공문에서 한국의 올림픽유치를 축하하고 『세계로부터 인정받게된 한국으로서도 주니어선수권개최는 경험배양과 인적자원훈련의 좋은기회가 될것』이란 견해를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81년 세계주니어선수권서 우승(여자)및 3위(남자)를 차지、이미 7위까지 주어지는 차기대회 출전권을 확보하고있다. 출전 16개국중 8개국에 주어지는 지역별 출전권은 남북미주남녀각4팀、유럽4팀、아시아3팀、아프리카1팀이나 아시아지역은 한국이 차기대회를 주최할경우 4개국으로 늘어나게된다.

한국등 12國참가 아시안컵 테니스

【콸라룸푸르5日=聯】韓國을 비롯한 日本·中共등 12개국이 오는 2월14일부터 21일까지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총상금 6만7천달러의 제1회 아시안컵 테니스선수권대회 참가를 확인해왔다고 아시아테니스연맹(ATF)이 5일 밝혔다.

ATF는 이날 현재 韓國·日本·中共·印度·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스리랑카·臺灣·타이등 12개국이 참가의사를 확실히 밝혀오고 방글라데시·쿠웨이트·파키스탄·아랍 에미리트등 4개국은 아직 회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 참가국은 오는 15일까지 선수명단을 보내야하며 대전표는 대회개막3일전에 추첨으로 결정할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대회의 우승팀은 2만5천달러, 준우승팀은 1만달러의 상금을 각각 받게된다.

世界 주니어테니스 李辰珠 3회 진출

81~82년도 세계주니어서키트테니스대회에 출전한 李辰珠(군산영광여고)는 4일 개막된 첫날경기 2회전에서 미국의 수배드나볼 6—0、7—5로제압、3회전에 진출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미국 플로리다州 니크·볼레티에리에서열린 이 대회는 10일까지 계속된다.

金喆鎬등 韓國11명 WBC 12월랭킹

【멕시코시티5日=聯】세계권투평의회(WBC)는 5일 슈퍼 플라이급 챔피언인 金喆鎬를 비롯, 11명의 한국선수가 포함된 12월의 랭킹을 발표했다.

WBC는 또 이날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이었던 美國의 매튜·사드·무하마드를 물리치고 타이틀을 획득한 美國의 드와이트·브랙스턴을 12월의 최우수선수로 선정, 발표했다.

◇각 체급 챔피언과 한국의 랭커

▲헤비급=래리·홈즈(미국) ▲크루저 급=카를로스·데·레온(푸에르토리코) ▲라이트 헤비급=드와이트·브랙스턴(미국) ▲미들급=마빈·해글러(미국) ▲슈퍼 웰터급=윌프레도·베니테스(푸에르토리코) ▲웰터급=슈거레이·레너드(미국) 4위 黃忠載 ▲슈퍼 라이트급=사울·맘비(미국) 3위 金相賢 ▲라이트급=알렉시스·아르게요(니카라과) 10위 金光玟 ▲슈퍼·페더급=란롤도·나바레테(필리핀) 1위 崔忠日, 8위 李日福 ▲페더급=살바도르·산체스(멕시코) ▲슈퍼 밴텀급=윌프레도·고메스(푸에르토리코) 5위 鄭順鉉 ▲밴텀급=루페·핀토르(멕시코) 1위 李承勳 ▲슈퍼 플라이급=金喆鎬(한국) 9위 權純川 ▲플라이급=안토니오·아벨라(멕시코) 8위 [illegible] ▲라이트 플라이급=일라리오·사파타(파나마) 8— 1위 金煥珍

北傀、한국近代史까지 날조

金正日後繼者 合理化위해 안간힘

【홍콩6日=聯】오는4월70회 생일을 맞는 북괴 金日成은 그의 아들 金正日을 후계자로 삼기위해 한국의 근대사를 날조하고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아·월·스트리트 저널紙가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 논평기사에서 북한의 사가들이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金日成가계를 우상화, 근대한국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류로 부각시킴으로써 金日成의 후계자등장을 합리화시키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아시아·월·스트리트 저널지가 게재한 논평가사의 요지이다.

전체주의국가에서는 역사가 정치도구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역사는 이러한 목적에 이용되고있다.

북한의 역사학자들은 이같은 지시에 입각하여 두가지— 목적에 맞도록 한국의 근대사를 전면 재집필하기에 이르렀다.

이 두가지 목적은 ①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불가피성을 확인하고 ②金日成과 그가족들을 근대한국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류로서우상화하려는 것이었다.

金日成개인의 숭배는 따라서 金日成선대의 우상화로까지 확대되었고 한국의 근대사는 김의 가족이 벌였다는 혁명투쟁을 날조하기위해 다시 쓰여지게 되었다.

북한의 사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근대사는 1866년 미국상선 셔만호가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온 때부터 시작된다. 平壤근교까지 올라온 셔만호는 노한민중에의해 파괴된다.

이사건에서 셔만호를 불태운 영웅이 바로 金日成의 증조부인 김응우라는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어떤 기록에도 이 사건에 관해 김응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또한 1919년의 3·1 독립운동은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들이 벌인 마지막 항일투쟁』이었다고 북한역사는 주장하고 있다.

◇피겨女王 곧結婚 1976년 인스브루크 동계올림픽에서 美國에 여자피겨·스케이팅 金메달을 안겨주었던 도러디·해밀양이 인기가수 딘·마틴의 아들 딘·폴·마틴 공군중위와 8일 비벌리·힐즈에서 결혼한다. 【AP=聯】

謹賀新年

지난 한해동안 베풀어주신 후의를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거듭 바라오며, 한분 한분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인태권도협회
정기태 사범
922—5117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ADDRESS APT
CITY PROVINCE
POSTAL CODE PHONE

김인규회계사무소 개업안내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히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 RIA
501 Yonge St. Suite 207(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약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제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1982년 1월 일

공인회계사
김인규 배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SEIWLL THE KOREA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중역간부모집－어느정도 영어에 용통하고 용모 단정한 분. 당회사는 기반이 잡혀있는 무역회사임.
☎ : 962－0019

웨이츄레스와 키친 헬퍼 구함
459CHURCH ST.TOR.(미치 레스토랑)
☎ : 924－7501

착실하고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
☎ : 742－0800
(렉스데일 & 이스링톤)

"송규석"씨 연락바람
충남 천원군 병천고등학교출신 김진영씨 요망.
연락처 : 몬트리얼(514)484－2906 조병화

도미니언·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또는 파타임 여자분 구함(YONGE & COLLEGE 빌딩안)
월~금 : 3시30분~9시30분 ☎ : 598－1140

스토아 헬퍼 구함(유경험자)
☎ : 491－9701(던밀×세파트 지역)

ROOM MATE구함
6시 이후 연락바람
☎ : 745－5174(MISS.BANG)

NIGHT TIME WAITRESS 구함
460 DUNDAS ST.W.
☎ : 977－2164(Mr.NIKKO)

세살난 미국소녀 친구되어줄 한국 어린이 찾습니다.
위치 : HIGH PARK
☎ : 769－7822

도너스샵에서 주말에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11 : 00PM.~9 : 00AM.(스카보로 지역)
☎ : 284－9325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성실한 남자구함.
저녁6시~새벽2시
☎ : 531－2689(Mr.김)

도너스샵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밤11시부터 아침7시까지(일요일~목요일까지)
☎ : 482－4088

맥스 밀크 스토아에서 일하실 캐쉬어 구함.
1주일에 26시간
☎ : 244－5248

*성실하고 신체건강한 운전면허 소지자 남자분
*주6 일(WAGE : $350)
직접내방 바람. 고려식품

• 가게봐주실분 구함.
• 6412 YONGE ST.
☎ : 221－6544 Mr.안

VAN DRIVER WANTED FOR SATURDAY ONLY
ROUTE-TORONTO WEST, PAY-$30 PER WEEK
SEE-ALL SCHOOL ☎ 960-0074,441-2986

• 입주하셔서 2월 한달간 2개월된 아기 돌보아 주실분
☎ : 446－1346

✲ Cook Wanted ✲
KOREAN VILLAGE RESTAURANT
628 BLOOR ST. ☎ : 536－0290

매매및 양도

이사관계로 급히 매매코저함. 쌂은시간의(10 : 00AM~6 : 00PM)GIFT SHOP으로써 은종류, 크리스탈, 밥상보 등 여러종류 취급. ☎ : 낮(656－6660), 밤(224－2227)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극장옆 코너위치(로타리오 에이전트)
3344 YONGE ST.(직접 내방 요망)

잘꾸며진 미용실, 아파트(2베드룸)
(DUPONT × SPADINA)
☎ : 921－5947

스토아+주택(4베드룸)매매
주매상 : $4,200 $30,000 DOWN+STOCK
☎ : (1)－579－4451

급 매
뎀뿌라, 가마보꾸 제작기계 6점.
냉면기계 3점, 제분기계 1점(ALL NEW)
※기계에 관심있으신 분은 연락바람
☎ : 862－0361(홍)

버라이에티 스토아 매매(주매상 : $4,500
렌트 : $400 리스5+5년(가능) 아스킹 : $41000.
☎ : 221－2084(Mr.LEE)

78년형 VAN(G.M.C.)매매
마일레지 : 45,000마일스 가격 : $3500.
☎ : 281－1938(Mr.KIM)

DELICATESSEN & MEAT STORE FOR SALE 주매상 : $2,300 렌트 : $425
아스킹 : $23,000(모게지가능)☎ : 742－3216

TUCK SHOP 가정사정상 매매코자함.
주매상 : $2,500 렌트 : $600(전기, 물세 포함)
한달 순수익 : $2,200
$28,000+스탁(몰게지가능)
(10 : 00 A.M~10 : 00P.M)
☎ : (416)461－5242(미시사가)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 머신 $800, 렌트 $550
☎ : 1－387－3983

구 혼

1957년생(서울출생. 남)
신장 : 169cm 특기 : 태권도4단(양친 캐나다거주)
☎ : 291－2976

구 혼 : 1957년생(25세), 키167cm.
직업 : 컴퓨터, 결혼할 여자구함.
☎ : 534－9660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해밀톤 스토아 매매
• 주매상 $6,000, ASKING $195,000
건물포함 다운페이 $90,000
• 주매상 $4,200 ASKING $152,000
건물포함 다운페이 $60,000
• 주매상 $4,000 다운페이 $50,000
건물포함 $159,000
• TUCK SHOP
주매상 $4,200, 좋은리스, 다운페이 $80,000
☎ : 1－662－4705, 1－662－7609
MONTREAL TRUST 전 병 호

스토아+주택(4베드룸)매매
주매상 : $4,200 $30,000 DOWN+STOCK
☎ : (1)－579－4451

부인혼자 할수있는 세탁소 매매(주매상 : $1,200
월세 : $500 리스 : 7년 가격 : $35,000)
오후4시이후 문의바람 ☎ : 423－7280

• 이사관계로 급매(미시사가지역)주5일 오픈
년매상 : $200,000 우유제품 제외
• 아스킹 : $30,000+스탁+설비.
☎ : 1－877－0634
(월. 화. 수. 토 오후7시이후 전화)
(목. 금. 일 오후9시이후 전화) ASK for JOE

BRACEBRIDGE ONTARIO
주류면허 LLBO를 갖고 있으며, 100명 이상을 수용할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와, 지불 기간에 있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음식점을 팝니다.
Clarence La Bossiere
☎ : (705)325－4454 낮, (705)326－7468 밤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높은이익 보장합니다.
928 DENFORTH. ☎ : 466－3423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집·방세·하숙

독신자 원함 $170(MONTHLY)
RAPE SUBWAY에서 한 블럭 거리
☎ : 282－0236, 929－5531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파실물건이 있으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악기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홍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양장점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취심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화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변 달 원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난파 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면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8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을 완치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 534－1085 김 춘 락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W. ☎ : 967－7121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회계사무소

R.I.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45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 : 273－7300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기 타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

朴婉緒 作
金光培 畵

한 옛날에 ③

『아이들 장난을 침소봉대 해도 분수가 있지。더 여러말하면 정말 정신병원에 처넣고 말겠어』

남편이 잔혹할이만큼 냉담하게 말했다。그러나 아내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저는 당신보다는 일곱살이란 나이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요』

『흥, 그렇겠지。당신은 아동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당신이 전공한 그대단한 학문이 당신에게 고작 그런 것을 가르쳐 줍디까? 구역질이 나는군』

『제가 한 공부까지 비웃지 말아요。그것과 이문제는 조금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럼 어디서부터 그 기발한 발상이 비롯됐소?』

『저에게도 일곱살적이 있었으니까요』

『나도 일곱살이 있었소。일곱살이 되기전에 죽지않는한 누구에게나 일곱살은 있지』

『내 일곱살은 당신의 일곱살 하곤 달라요。어느 누구의 일곱살하고도 달라요』

아내가 구호를 외치는 투사처럼 한껏 씩씩하고 자신있게 목청을 돋웠다。

『나는…』

남편이 속삭이듯이 낮게 그러나 오장에 스미도록 저력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아내는 문득 남편의 넓고 반듯한 이마에서 그의 차가운 마음이 갇고 닦은 보석처럼 빛을 발하고있는 것같은 환각에 몸을 떨었다。

『나는 당신 일곱살때 누굴 죽이려 했다고해도 상관하지 않겠소。그렇지만 당신의 일곱살로 남의 일곱살을 헤아리지말기를 바라요。더군다나 우리 아들의 일곱살을 헤아리고 간섭하는 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 그리 알아요』

말을 마친 남편이 다시 바둑판을 껴안으며 바둑책을 펴들었다。아이들 방에선 아이들이 텔레비 채널때문에 싸우는 소리가 들리다가 곧 고교야구를중계하는 소리로 바뀌었다。창밖의 풍경은 낯익고 정다왔다。멀리 흐르는듯 멎어있는듯 잔잔한 은빛강과 강변을향해곤두박질치고있는 빛깔도 모양도 색색가지의 지붕과 푸른점같은 수들이 오후의 부드러운 햇빛속에 새녀 넘 구들목의 온기같은 감칠맛 있는 따스함을 지니고 펼쳐져 있었다。고즈넉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내가 왜 이러지?』

아내는 자신의 상상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평화로움에 의해 비로소 제 정신이 들었다。그리고 방금부린 추태를 생각하고 심한 수치감에 사로잡혔다。그녀는 자신의 이런 혼란을 남편이 너그럽게 토닥거려주길 바랐다。바둑판으로 쏟아져내린 남편의 치갈고 반듯한 어깨가 그녀의 이런 갈망을 냉소하는 것

처럼 보여 그녀 역시 허둥지둥 배타적인 기분으로 외면하고 뜨개질거리를 집어들었다。남편과의 사이가 지금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했을 적에도 그녀가 정말로 위로받고싶을때 위로받지 못하긴 마찬가지였다。그녀는 위로받을수 없다는데 이골이 난 나머지 위로받을 필요가없을 만큼 기가 센 여자로 스스로를 다스렸을뿐 자기의 위로받고싶은 마음이 가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예 하더 듯지 않았나。그녀가 자신으로 위로받고싶었다면 그녀의 일곱살은 그렇게 쉽게 허겨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에게도 일곱살적이 있었다。일곱살이 되기전에 죽지않는한 어느누구도 일곱살은 피할수 없듯이.

× × ×

한수지(韓秀智)의 일곱살은 배고픔과 함께 시작됐다。그녀의 일곱살은 굶주렸다。